

# 한국교회를 생각한다

정용섭

## 차례

가난한 교회로부터의 구원! --- 4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회복을 위해 --- 14

-마르바 던(Marva J. Dawn)의 『고귀한 시간 낭비』를 중심으로-

당신, 성령 받았어? --- 27

진보신학, 비판적 성찰 --- 35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민중 신학은 대화를 포기하는가? --- 48

사순절 영성 --- 61

안식일 ‘법’과 국가보안 ‘법’ --- 72

조지 폭스의 일기 --- 86

기독교와 사회적 약자 --- 101

지성, 이성, 영성 --- 109

호기심을 버리라! --- 131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144

정통과 이단 --- 154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바라본 이단 문제-

하나님 경험과 시원성 --- 166

근본주의와 신학무용론 --- 184

창조, 해방, 부활, 안식 ---	195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 ---	20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	209
바울의 개종은 사실인가? ---	219
복음은 진리 투쟁이다 ---	231
교회 보편성 회복과 목사 사례비 문제 ---	238
제자의 삶 ---	247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	266
-옴과 예수의 운명에서 본 하나님 질문-	
명성교회 세습 문제 ---	276

## 가난한 교회로부터의 구원!

### 한국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어느 집단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크고 작음의 차이나, 빈부의 격차가 없을 수 없지만 한국 교회만큼 극에서 극을 치닫고 있는 집단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로 구성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인데도 사람 숫자나 재물의 크기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즐비한 반면에 절대빈곤에 처한 교회들이 부지기수인 상태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교회의 본질과 형태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은 가운데서 막연하게 영적으로 하나라는 말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런 치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게 가능할는지 자신이 서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형 교회 안에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소위 개교회가 또 하나의 개교회를 지부로 두는 일이다. 크건 작건 개교회는 그것 자체로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개교회로부터 지배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흡사 "체인" 형태의 교회들이 우후죽순 자리를 잡고 있다. 개중에는 이미 상당한 숫자의 지성전을 확보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역 교회나 노회와 마찰이 생겨서 추진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인들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만 해도 힘이 부치는 일인데, 또 다른 교회를 관리하고

싶다는 그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만큼 선교의 정열이 강한 탓인지, 또는 그만큼 세속적 욕망이 넘쳐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한국교회의 지엽적인 문제이니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인간이 감수해야 할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다시 새겨볼 필요도 없이 자기 교회의 풍요에 사로잡혀서 절대 빈곤에 빠져있는 이웃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동정심 정도에 머물고 마는 자금의 행태는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위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시적 선교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가 비록 우리와 다른 교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단일성이 명실상부하게 살아있다는 점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건강한 공동체로 각인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종파적 차이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수 백개로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극과 극의 몸집을 갖고 있는 개신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톨릭 교회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주껏 많이 벌어서 잘 쓰다가 죽는다는 이런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교회구조를 유지한다면 결국 그 기초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 영성의 훼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어쩌면 훨씬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숨어 있다. 교회 사이의 빈부 격차로 인해서 목회자의

영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부자 교회의 목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성취한 업적에 도취되어 버리고,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욕망과 그것이 좌절됨으로써 일어나는 절망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보아야 할 목사들이 교회를 키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 못 하는 형국인 셈이다. 더구나 당회로 일컬어지는 교회의 교권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 일차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의식의 변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교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제법 충분할 정도로 논의되었으며, 나름대로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즉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몇몇 방안이 제시되고 실천되기도 했으며, 비교적 이런 문제에 의식이 있는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한다. 이런 노력은 물론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고 하더라도 미봉에 불과하다. 중대형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급 평신도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부자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스스로 균형감각을 회복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봉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치, 경제적인 힘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최소한의 국제적 합의나 민주적 절차도 외면하고 오직 힘으로만 자기식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미국의 부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에서도 추정될 수 있는 논리이다.

### 가난한 교회로부터

따라서 나는 부자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교회와 그 목회자들에게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신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가난한 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해도 된다.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난 1960년대의 해방신학이 경우에 따라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도 했지만 그 기본 영성은 매우 기독교적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부자들이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해방신학이나 정치신학, 또는 여성신학에 대한 오해가 놓여 있다. 정치적 힘을 통해서 부자를 끌어내리거나, 또는 여성들의 힘으로 가부장적 구조를 개혁해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중의 힘으로 기독교 총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그 민중의 대표자들이 기독교 총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들을 또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대결구조는 그것이 원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역시 생명의 영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런 투쟁과 해방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개량주의적 방식, 즉 부자들의 도덕심에 매달리는 방식은 훨씬 문제가 많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에 숨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교는 그야말로 아편의 역할을 할 뿐이다.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증오함으로써 이 모순의 역사를 힘으로 분쇄하는 방식이 아니면서도 그 알량하고 위선적인 도덕심에 매달리는 방식도 아닌 "가난한 교회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게 가능한가?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 이 문제를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서 풀어가려고 한다.

### 부러워하지 않는 교회

우선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부자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일구월십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 부자 교회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사로잡혀서 결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 너희들도 고생 좀 해봐라. 나도 그런 길을 지나왔거든. 그런 다음에 느끼게 되는 이 성취감을 알게 될 거야." 보통 이런 식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키워야 사람(목사)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부자 교회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여기서 너무 상투적인 단어인 "회개"를 어찌다 쓰게 되어서, 한 마디 보충해야 할 것 같다. 회개는 이 땅에서 자기를 성취하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많은 재물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한 어떤 율법사를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우



리나라의 교육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또는 증권에 얽힌 문제들이  
 결국은 화려하게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러면서 동시에 훨씬 인간적이고 연대감 넘치는 삶을 유지해나간다면  
 부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반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어  
 떤 분들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군” 하고 빈정댈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구조적인 악은 구조적으로 투쟁해서  
 쟁취해내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 주장이 담고 있는 일정한 부분의  
 정당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나도 이미 이런 투쟁의 대열에 선 경  
 험도 있으며, 지금도 역시 그런 투쟁과 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노조의 주장이 완전하게 실현된 세상이 온다면 이 세상은 어  
 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불셰비키 혁명 이후  
 70년 동안 러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전교조의 주장이 완  
 전하게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  
 까? 비교적 좋아지겠지만 그 이상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거창의  
 셋별 중학교와 거창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학교로 이름  
 이 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학교와의 경쟁력에서도 뛰어난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  
 교도 역시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거의 그  
 대로 안고 있다. 일류대학 입시가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이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노조, 전교조, 민주화 세력, 민중교  
 회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갖고 있지만, 단지 종말론적 구원을 지향해  
 야 할 신학적 전망에서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뿐이다.

자기 성취감으로부터 해방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가난한 교회의 목사들이 부한 교

회를 부러움의 눈길로 보지 않고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가야 할 이유는 가난한 자로서의 자존심이나,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당파성, 또는 가난 예찬과 같은 관념이나 어떤 사명감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명확한 통찰에 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의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목사들이 큰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동기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자식들 잘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받고 싶다는 아주 평범한 욕망이 아니라면 대개는 자기의 목회적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말 많고 일 많은 큰 교회에서 고생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목회자들이 모이면 대개 교회당을 건축한 이야기,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주로 한다. 그게 모두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깊이, 아니면 약간 방향을 틀기만 하면 그 모든 욕망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지었다고 하자. 그것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만 하겠는가, 쾰른의 대성당만 하겠는가, 바르셀로나의 성가족교회당만 하겠는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원 교회당을 지었다고 하자. 그것이 독일의 곳곳에 있는 교회당만 하겠는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물론 교회당의 예술적 가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은,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이나 전배없다. 그런 멋진 교회당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헌당식을 드리는 순간에는 기분이 고조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흥분은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것에 쏟았던 인간적 노력의 크기만큼 강한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교회 개척 10년 만에 2천 명의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키웠다 하자. 많은 개척 교회 목회자들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긴 하겠지만 그만한 정도의 부담이 그를 짓누르게 된다. 아니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대형교회의 장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재정적 능력이 있으니까 선교사도 돕고 미자립교회도 돕고 복지 활동도 넉넉하게 펼쳐나갈 수 있다. 목회의식이 반듯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봉사와 복지 활동도 역시 목사의 영성을 돕기보다는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형 교회의 목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의지가 역학적 관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발현되기 힘들다. 오히려 그것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 구원론적 목회행위

“그래도 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이 있다는 목사들도, 물론 좋은 뜻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만약 목회를 기업경영쯤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접근해야하겠지만 목회는 오히려 기업원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점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거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움>이며 <낮춤>, <버림>이다. 아예 출발부터가 기업과는 다르다. 이렇게 비우기만 하면 생명의 영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믿는 게 바로 신앙이다. 이런 마당에 교회를 키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예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말이 된다. 간혹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들을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문제는 상호 변증법적 관계로 설정되면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마 6:33)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놓여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 말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일보다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 구원도 힘든 일인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돌보는가? 그게 진정으로 남을 돌봄인가, 아니면 자기 욕망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는 자기 구원에만 천착해 있을 것이며,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구원의 존재론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신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한의 예언을 따라서 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다. 성서 말씀을 서로 다른 층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 소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마디만 강조하자. 만약 가난한 교회의 목사들이 부자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만 하다면 한국교회의 개혁과 구원의 물꼬는 그들로부터 열릴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면서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실재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빛을 비추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맛을 내면서 그분을 반영할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안에서 빛날 것이다. 그는 무심과 포기,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바 늘 현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참된 타는 목마름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가 다른 일들에 마음을 쓴다 하더라도 마시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의 계획과 생각과 직업이 무엇이든, 마신다는 관념은 그 목마름이 지

속되는 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목마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심의 관념은 더욱 생생하게 될 것이며, 더욱 깊게 자리할 것이며, 더욱 현존하게 될 것이며, 더욱 지속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으로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다른 어느 것도 그를 감동시킬 수도, 기쁘게 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하며 더 이상 아무 것도 찾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애쓰며 무엇을 행하든, 그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는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디서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자랄수록 그것은 더욱 생생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으므로 쉼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레리몬드 B. 블랙니 편,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다산글방, 40, 41에서 인용.)

##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회복을 위해

-마르바 던(Marva J. Dawn)의 『고귀한 시간 낭비』를 중심으로-

주로 독일어권의 조직신학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나에게 미국의 실천신학 교수인 마르바 던은 생소한 학자다. 책 뒤표지 날개에 있는 저자 마르바 던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유진 피터슨과 함께 “탁월한 영성 신학자”로 국내에 알려진 마르바 던(Marva J. Dawn)은 캐나다 리젠트 대학과 Christian Equipped for Ministry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교회 오르간 연주자이며 성가대 지휘자, 작곡가였다고 한다. 그런 탓에 마르바 던은 어려서부터 루터교회의 정통 예전에 익숙했으며 음악적 자질이 풍부했다. 그녀는 북미 신학계에서 매우 뛰어난 실천신학 선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각종 모임의 강연자와 예배의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다.

마르바 던의 신앙, 또는 그녀의 영성을 이해하려면 위에서 소개한 어린 시절 루터교 전통의 가정에서 받은 신앙훈련만이 아니라 그녀가 어려서부터 감당해야 했던 질병과의 투쟁도 역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을 잠시 보자.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단지 관찰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대 시절 홍역 바이러스가 체장을 망가뜨려 놓은 이후로 건강 문제와 늘 씨름해 왔다. 그 후로 망막 출혈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했으며(7개월 동안 완전히 앞을 보지 못했었다), 콩팥이 나빠졌고(내 콩팥은 20%의 기능도 못한다), 양쪽 다리와 소화 기관에 신경 장애가 일어났다. (고귀한 시간 낭비, 399, 이하 숫자는 이 책의 쪽수를 가리킴).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많은 장애와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다. 치아를 잘못 뽑아서 턱이 내려앉았고, 갑자기 생긴 난청 증후군으로 한쪽 귀가 먹었고, 창자를 15인치나 잘라냈고, 유방암으로 유방을 잘라냈으며, 양손의 관절염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심한 통증으로 고생한다. 물론 헬렌 켈러처럼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영성을 심화시킨 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마르바 던 박사는 최악의 육체적 조건 가운데서 최고의 예배의 세계에 들어갔으며, 사람들에게 그런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

마르바 던의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는, 또는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태와는 별로 큰 연관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세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나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특성을 마르바 던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마르바 던의 루터교적 경건생활과 육체적 한계를 특단의 정신력으로 극복한 것만으로 감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대단한 일이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마르바 던의 영적 깊이, 신학적 토대가 그녀를 돌보이게 하는 핵심이다. 특히 자칫 실용적 방법론에 치우치기 좋은 실천신학을 다루면서 끊임 없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대결하고 있다는 점이 나를 적지 않게 놀라게 했다. 대개의 실천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적 토대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약간의 신학적 포즈를 취할 뿐인 데 반해서 마르바 던은 부단히 신학의 중심부에서 자신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 글이 전개되면서 좀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마르바 던의 이 책 『고귀한 시간 낭비』를 읽으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호기심을 잃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예배 신학적 구도 안에서 아주 철저한 ‘하나님 중심성’을 보았다는 데에 있다. 물론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에 일반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러져야 할 예배가, 또한 당연히 그렇게 드러진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책의 요지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하는 삶과 예배로 가득한 생활의 중심에 둔다면 그분의 무한한 임재를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과 한없는 자원과 수없이 많은 방법을 발견하리라는 것이다. 교인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계시를 탐구하면서 고귀하게 시간을 ‘낭비’하려고 매주 모여 진지한 모험을 갖는다면 잘못된 질문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압력과 비성경적 해결책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 그칠 것이다.(20, 21).

나는 위에서 인용한 마르바 던의 진술에서 두 대목을 좀더 풀어서 설명하겠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 예배의 중심에 둔다면 그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과연 그 중심에 둘 수 있는가에 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가 고급의 종교적 수사라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에 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느 장로가 결



으로는 “영원 자존하시며 무소불위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고상한 기도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데 신경을 썼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들러리로 서고 사람들에게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예배를 나는 한국 교회에서 신물 나게 보았다. 이는 곧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시트콤이 단지 말장난만 할 뿐이지 인간 삶의 리얼리티를 간과하거나 훼손시키는 경우와 비슷하다.

나는 여기서 음악을 예로 들어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설명하겠다. 어떤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할 실력이 되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손가락 테크닉이 그 곡을 소화할 수 있으면, 그리고 좀더 세련되게 연주할 수만 있다면 좋은 연주가라고 간주하지만 실제로 음악의 세계는 그런 테크닉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기술이 있기 전에 연주가가 이미 베토벤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소위 음악 경험이 있는 다음에 테크닉이 필요하고 그 테크닉을 통해서 음악 경험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예배도 역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표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차이를 구분하기는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 흡사 사이비 연주가가 베토벤의 월광을 그럴듯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마르바 던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이 유지되면 쓸데없는 다툼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한다. 옳은 지적이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추문과 인간의 욕망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심한 교회 분열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이 취약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는 다른 왕도가 있을 수 없

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와 기독교인의 삶을 회복하는 데서만 그 길이 있다. 이런 점에서 마르바 던의 이 책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버거킹 예배

하나님 중심성이 예배와 기독교적 삶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신자들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실제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우선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인들이 가능한 한 쉬운 길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예배와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거꾸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영적으로 고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우상숭배의 핵심이다.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종종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의 눈에 거슬리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언어와 역사이지만 우상의 존재방식은 매우 그럴듯한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따른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닌가 하고 따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밖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가 정통 기독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고 한다면,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은폐와 노출의 변증법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기 위한 심연의 길을 가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에 치우친다면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활동하시는, 그래서 은폐의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태도지만, 우상을 따르는 길은 그런 은폐의 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인간 의존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뿐이고 내면적으로는 구약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증거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인간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에 있다. 이런 현상을 마르마 던은 패스트푸드 '버거킹'과 비교해서 설명했다.

버거킹은 '스피드'라는 것 외에 또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가? 우리의 '예배'가 버거킹과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습관과 의식, 관습과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겠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 깊은 묵상, 경외심에 찬 침묵, 질긴 교리에 대한 숙고, 음악적 깊이, 많은 성경 구절 암송, 참 하나님과의 탄탄한 친밀함, 교회의 연속성, 진정한 공동체, 진실된 회개, 슬픈 탄식, 십자가를 지는 훈련, 시간을 초월한 진리, 거룩의 아름다움, 신실한 선과 같은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우리의 '예배'가 버거킹과 같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는가?(105).

마르마 던이 재미있게 표현한 '버거킹' 식의 예배는 아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예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드러지는 온갖 청중 중심의 예배가 여기에 포함된다. 어려운 주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저 시트콤이나 개그 프로그램에 길든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예배 말이다. 이런 개념의 예배가 우리의 경우에는 ‘찬양과 경배’라든지 ‘열린 예배’ 형식으로 소개되어있다. 온누리 교회가 이런 유형의 예배를 시도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뒤로 최근에 많은 교회가 이런 예배 형식을 끌어들이고 있다.

### 소비주의

온누리 교회의 예배가 흡사 버라이어티 쇼처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현상은 반드시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통교회의 모든 교회 활동이 단지 교회성장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너무 많은 인간적 볼거리로 인해서 하나님ی 잊히는 온누리 교회의 예배 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마르바 던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교회의 ‘소비주의’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많은 세일즈 전략이 교회에 침투하여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것 같지 않다. 만족스런 교회 성장에 대한 보장이 확산되며, 예배 스타일을 바꾸는 간단한 기술만으로, 진정한 공동체 건설과 하나님의 통치 확대라는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제안이 제시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비주의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겠는가?(169).

교회의 소비주의는 결국 교회가 자신의 본질을 통해서 끌어가야 할 이 세계의 시대정신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교회의 세일즈 전략은 세상의 것들과 다르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우리는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

음을 파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런 주장에는 근본적인 함정, 또는 착각이 내재해 있다. 복음은 삶의 내용에 담기는 것이지 그것 자체의 초월적인 세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복음이 담겨야 할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그 사건이 일으키는 생명의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복음은 기독교의 교리와 형식을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확대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 복음 사건 자체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온갖 방법론으로 교회 안의 상품을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는 분명히 소비주의에 불과하기에 복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행위이다. 마르바 던은 윌리엄 포어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런 현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광고의 기본 목적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게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전자교회’(electronic church)를 펴뜨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상품들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매전략만이 그것들을 진열대에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슬로건, 팝송,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 부정반 방법, 입소문 등 광고의 기본이 되는 모든 기술은 ‘전자교회’의 상투적 수단의 일부이며, 그런 방법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 즉 피상적이며 마술적인 하나님을 팔고 있다.(윌리엄 포어), (205).

오늘 한국 교회의 예배가 어느 정도로 소비주의에 물들었는지, 세속의 광고 효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여기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어린이 주일학교마저 상품, 간식, 또는 ‘달란트’ 같은 이벤트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교회의 어린이 교육을 맡는 책임자들이 이것을 문제로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큰 위기인지 모르겠다. 장년들의 예배도 거의 한결같이 예배 참석자들의 종교적 소비 욕망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개되는 실정이다.

내가 여기서 어떤 원칙에 사로잡혀 예배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경향이 지나치게 인간의 가벼운 종교적 욕망인 감상주의에 기댄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세계가 축소되거나 망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 교회의 전통

마르바 던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중심은 아주 뚜렷하다. 그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간과한 채 단지 신학 개념만 제시하는 학자가 아니다. 이 시대의 모든 현상을 충분히게 풀어내지만 그 대답을 그저 단순하게 현대인들의 감상적 욕망이라는 눈높이에서 찾지 않고 훨씬 근원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각 시대에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은 유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모순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주의자들처럼 프로모더니즘의 참호 속으로 후퇴하는 대신, 최전선에 나서서 주변 세상에 더 나은 포스트모더니즘, 분열과 혼돈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아니라 공동체와 신앙의 참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85).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적 풍토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값싼 처방이 아니라 기독교만이 제시해줄 수 있는 근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본 처방이 곧 ‘하나님의 광휘에 들어가는 경험’이다.

그러나 마르바 던은 반동적 전통주의자는 아니다. 청중 중심의 교회와 예배를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소비주의에 빠지고 세일즈 전략을 세우며, “실용주의적 예배를 강조하는 현재의 추세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뿐이다. 그녀는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그런 교육을 치열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녀에 중요한 것은 현

대적이냐, 아니면 전통적이냐 하는 극단적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무한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기독교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예배를 가능한 한 주변 문화에 가깝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책은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오히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 가운데 시간을 고귀하게 낭비하며, 그 결과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세상과는 다른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크나큰 광휘라는 선물을 해프게 퍼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바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즉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 수 없다.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풍성한 광휘에 잠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관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무한중심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54).

### 교회력에 따른 예배

마르바 던에 따르면 하나님의 풍성한 광휘에 잠기는 길은 포폴리즘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전통 안에 온전히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 청중들이 정통교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상품처럼 다루는 현대주의적 교회에 끌리는 이유는 기독교의 전통이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전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전통을 오늘 우리의 경험 안으로 견인해내는 길 중의 하나는 교회력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교회력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켜야 한다. 지혜롭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가장 암울한 달인 12월에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4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이 계절의 어두움과 차가움이 남반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세상의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보다 세상을 우위에 두는 파괴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77)

책 한권으로 다루어도 충분하지 않은 교회력 문제를 여기서 한두 마디로 간단히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방향만이라도 제시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교회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부 교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한국의 교회가 교회력과 무관한 예배를 드렸으며, 이런 형편은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교회력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정통교회나 현대교회나 모두 한결같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신자들의 신앙적 결단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 종합적인 신앙의 깊이를 마련해주는 데는 소홀하기에 교회력 중심의 예배가 자리잡을 기회는 많지 않다.

특히 언제부터인가 소위 ‘강해 설교’라는 이름의 설교 브랜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중심이 훨씬 천박해지고 말았다.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특정한 절기를 제외하면 한편의 성서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설교한다. 작년에 높은뜻 송의교회 김동호 목사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만 15회에 걸쳐 연속 설교를 했을 정도니까 그 상황을 알만하다. 이렇게 교회력을 파괴하는 강해설교는 본인들이 원하는 성서만을 집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청중의 균형적인 신앙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세계 교회의 일원임을 망각하게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착각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마르바 던도 지적했지만 예배와 전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설교와 성서연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사족

마르바 던의 책 『고귀한 시간 낭비』(2004년, 도서출판 이레서원)를 번역한 김병국, 전의우 두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의 말을 같이 드리겠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들이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예배의 지평을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미주를 포함해서 667쪽에 이르는 많은 양의 책을 번역한 그 수고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 모든 신학대학교의 예배학 과목에서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번역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하게 느낀 대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아니라 우리말 쓰기에서도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역자들인 것 같다. 독자들을 위해서 옥에 티를 찾는다면 다음과 같다.

1) 제목: 고귀한 시간 '낭비'(A Royal 'Waste' of Time): 여기서 '고귀한'은 시간에 붙는 수식어가 아니라 낭비에 붙는다. 이런 차이를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물론 쉽지 않다.

2) 부제: 하나님을 예배함과 세상을 위한 교회됨의 광휘(The Splendor of Worshiping and Being Church for the World): 부제는 마르바 던의 예배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광휘, 존엄을 경험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자는 여기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다. 광휘는 교회됨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림에 있다. 교회는 광휘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부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야 한다. 예배드림의 광휘와 세상을 위한 교회됨.

3) 매스터 스토리(master story),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 역자들이 음역을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우리말

은 없을까? 혹시 ‘거시담론?’(43, 47쪽)

4) 힌데미트(Hindemith): 독일 작곡가인 이 사람의 이름은 ‘힌데미트’가 아니라 ‘힌데미트’다(224, 235쪽).

5) 마티아스 그린발트(Matthias Grünewald): 이 사람의 이름도 역시 ‘마티아스 그뤼네발트’라고 발음해야 옳다(235쪽).

6) 마틴 니몰러(Martin Niemöller): 마틴 니뮐러(350쪽).

7) 젠슈흐트(Sehnsucht): 제엔주흐트, 또는 젠주흐트(405쪽).

폭염지절에 이렇게 두툼한 책을 읽고 뿌듯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경험이다. 내 글이 무디어 이 책에 담겨 있는 감동을 충분하게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책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년 여름은 나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 당신, 성령 받았어?

요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신앙의 주제는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실들이다.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경험이다.”(기독교 영성 베이직, 대한기독교서회, 15 쪽)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총체적 경험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영성을 말할 때 인간에 대한 질문을 제외할 수는 없다.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통교리인 삼위일체도 역시 영성과 연관된다. 그뿐만 아니라 영성은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교회론에 관한 논의도 역시 필요하며, 그것의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교회사에 관한 공부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 영성을 다루지 않고 영성을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성령과의 관계에서만 이를 정리하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성령에 의해서만 창조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영성과 성령은 불가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의 영

성에서는 이 성령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 받아 기록된 말씀을 다시 풀어낸다는 것은 곧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늘 이럴 질문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당신,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 받은 설교자일까? 아니면 무늬만 성령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예 생 각조차 하지 않은 설교자는 아닐까? 오늘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 체험이 분명한지 아닌지 진솔하게 고백해야 한다.

### 성령 받아라!

간혹 우리 주변에는 소위 ‘성령집회’라는 모임도 있는 것 같다. 그들의 모임이 어떤 성격인지는 내가 직접 참가하지 않았기에 끊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옛날에 내가 참석했던 부흥회를 연상하면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은사 중심의 부흥회 말이다. 어떤 부흥강사는 청중들을 향해서 “성령 받아라!”하고 외치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함을 칠 뿐만 아니라 “췌, 췌” 하는 바람소리 같은 소리까지 냈다. 이에 뒤질세라 청중들은 흡사 날아오는 력비공을 가슴으로 받는 운동선수처럼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아멘!”으로 맞장구를 쳤다. 이런 열광적인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 입신도 하며, 진동도 한다. 강단의 십자가로부터 큰 불덩이가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와서 불을 태우는 것 같은 경험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를 하기도 한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다. 성령은 자동차나 컴퓨터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를 받는다.”라는 동양 전통의 세계관이며,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성서의 보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실천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든다면, 교회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은사 중심의 현상들이

다. 동양 전통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글쓰기의 중심이 산만해질 염려가 있으니 교회생활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고, 성서의 보도만 조금 따라가기로 하자. 신앙 논의에서 성서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에 관한 성서의 수많은 보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도 없다. 성령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의 몇 대목만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고 진술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역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 설교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행 10:44)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19:2)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 두 사람쯤 되니라.”(19:6,7) 위의 인용에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성령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극복해주는 시금석이며, 세례요한 공동체를 넘어설 수 있는 토대이기도 했다. 특별히 19장의 진술을 근거로 본다면 성령은 분명히 “받은” 것이며, 안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흔적은 방언이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게 바로 성서 텍스트에 직면한 설교자들이 붙들고 씨름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질문이다. 해석은 무슨 해석이나, 보도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주장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성서의 해석학적 요청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성서가 2천 년 전에 기록된 문서라는 사실만이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도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아무런 해석학적 도움 없이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질문하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으며, 성령이 흡사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방언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까?

누가에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의 사실성 여부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기원후 80년대에 활동한 누가에게는 그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별로 없었다. 이런 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울의 이방인 선교 활동을 역사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누가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지역 선교가 바로 성령의 활동이었으며,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정통성을 확보한 사도 중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한 변증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집필 목적에 따라서 교회 전승과 개인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편집하고,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아무런 신앙적 토대도 없는 문서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대인들은 장애인의 치유, 초자연적 현상, 방언 같은 것들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한다고 해서 사도행전의 무게가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보도와 진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할 뿐이다.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는 성령에 관한 묘사는 그것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성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신학 전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성령은 사도

행전의 저자 누가가 처한 삶의 자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성서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도행전은 바울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한 세대 이후에, 근본적으로는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편지에 드러난 신학 사이에 차이가 보일 때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 무게를 두는 게 옳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바울의 편지도 역시 성서 전체와 연관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영과 바람

“당신, 성령 받았어?”라는 질문에 대한 중간 대답을 일단 내려야겠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진술은 흡사 조수미 콘서트 입장권을 받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라는 성서의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콘서트 입장권은 내 지갑에 잘 간직하기만 하면 그대로 보존되지만 성령은 그렇게 간직해서 보존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장권은 내가 기분 나쁘면 찢어버린다거나 시간이 나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도 있으나 성령은 아예 그런 영역과는 다른 차원이다.

내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소유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성령 역시 그런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것이었다. 근본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방언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신비한 언어 체험인 방언이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행위는 세상에서 볼 때 분명히 방언이며, 사랑의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도 역시 경쟁과 폭력의 질서에서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제각각의 언어들

이 폐기되고 오직 성령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 이전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방언의 본질을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방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계 맺는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온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시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은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인격, 예수의 인격, 그리고 성령의 인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고백이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기는 하다. 자칫 이런 용어로 인해서 신인동성동형론에 빠질 염려가 있다. 인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격이나 신격이라고 표현하는 훨씬 적합하다. 성령의 인격은 무슨 의미인가? 크게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이다.

하나는 성령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활동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콘서트의 입장권은 단지 하나의 사물로 내 지갑 속에 들어 있을 뿐이지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되는 게 아니다. 입장권은 콘서트 날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은 늘 나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 생명의 관계를 맺는다. 만약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둔다면 그 즉시 성령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체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이다. 입장권은 내 지갑 속에서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은 주체적으로 작용하지 주체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은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인격이시다. 그는 바로 창조의 영이시며, 종말의 영이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하는 인



격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 분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분을 내가 감히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람처럼 임의로 부는 영을 내가 무슨 수로 계량하고 처리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위의 진술은 무슨 뜻인가? 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서 몇 가지가 내 삶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설명을 알아들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고쳐야겠다. 나는 성령의 활동을 맛보았다.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소유하게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 활동에 내가 기대었을 뿐이라는 뜻이다. 성령과의 관계에서 나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영과 바람을 소유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을 맛을 뿐이다. 이런 의미를 밑에 깔고 말해도 된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위의 설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성령을 받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참여하든지 여기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의 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성서는 이에 대해서 매우 여러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 몸 안에 들어왔으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도왔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카리스마를 제공하고, 인간의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한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성령은 교회의 기초이며,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에 관한 성서의 매우 다양한 진술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곧 ‘생명’이다. 영은 곧 생명의 영이시다.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며, 이미 생명을 사는 우리는 이

런 점에서 모두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질문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담아내지 못하는 성령론과 영성학은 무의미하다. 생명의 영인 성령과의 소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는 생명을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생명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서 선택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지평을 심화, 확대해야 한다.

성령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 성서를 해석하고 전달해야 할 설교자들은 청중들을 생명의 신비 안으로 안내하는 사람이다. 안내자는 그 세계를 먼저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생명의 신비는 한번 구경한 것으로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관광 가이드처럼 한번 주어진 관광 안내서에만 의존하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관광지는 1년 뒤에 가도 그래도 남아 있지만, 생명의 신비는 다음 날이면 어제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내가 설교자로 나서는 이유는 생명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신비라는 사실을 조금 먼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진보신학, 비판적 성찰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로고스인 신학(theo-logy) 앞에 진보라는 덧붙이는 게 옳은지, 그게 가능한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태양과 달을 어찌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있는가. 우리의 예상과는 상관없이 바람처럼 자기의 뜻대로 생명 세계를 일구어가는 성령을 어찌 진보와 보수로 편 가름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에온)을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일 뿐이며,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신학도 그저 신학일 뿐이다. 다만 신학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나 경향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학'은 상수이며, '진보'는 변수일 뿐이다. 변수는 상수에 종속적인 자리에 있을 경우에만 소극적으로나마 의미가 있다.

한국의 신학과 교회 현장에서는 간혹 이 진보가 신학보다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진보신학의 한 유형인 여성신학만 해도 그렇다. 주로 백인 남자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지난 2천년 기독교의 정통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당파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성신학이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여성 차별적 질서를 일정 부분 교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신학이 단지 대안적 실효성이 있을 뿐이지 신학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종속변수인 여'성'이 전면에 드러난 탓이 크다. 전체 신학의 틀에서 볼 때 작은 부분에 불과한 정통신학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요소를 전체인 것처럼 몰고 갔다는 말이다. 예컨대 어거스틴의 여성 혐오적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의 신학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그의 신학을 바로 보

는 게 아니다. 어거스틴의 성차별적 진술은 욕의 티이거나 또는 시대적 한계에 불과한 반면에, 삼위일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진술은 기독교 신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필자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조폭의 수준으로 작동되는 가부장적 행태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 여성신학이 신학의 상수를 놓치고 변수에 불과한 ‘성’의 해석학에 머물러서 결국 신학의 왜소화를 불러오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에서 하는 말이다.

민중, 역사변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진보신학이라고 하면 여성신학보다는 민중신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필자가 보기에 민중신학도 역시 여성신학과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민중사관의 시각으로 기존의 정통신학을 해체, 또는 재구성하자는 민중신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니 처음부터 성공적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신학’보다는 ‘민중’에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테니스 같은 운동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 연주에서도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힘이 들어가면 기본자세가 허물어지는 법이다. 필자는 여기서 민중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않고, 그저 상식의 수준에서 필요한 대목만 짚겠다.

우선 민중신학과 연관된 논의에서 반복해서 거론된 것이겠지만 민중신학이 말하는 민중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 상응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민중신학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해방신학이 말하는 해방개념은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그 해방은 정통신학이 말하는 구원과 맥이 닿기 때문인 것 같다. 출애굽의 해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감당해야 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성서와 기독교 신학의 전통 안

에서 우리는 해방신학의 해방개념을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 해방은 창조와 부활과 종말 개념과도 연결된다. 정치신학이 말하는 정치 개념도 기독교 신학의 보편적인 근거가 된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치와 직간접적으로 결탁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학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해방과 정치가 보편적 개념인 반면에 민중은 특정한 계급에 대한 특수한 개념이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구원을 지향하는 기독교 신학이 특정 계급에 몰입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민중이 없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민중신학은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

자,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민중은 누군가? 여성신학의 주체가 가부장적 질서에서 희생당하는 여성을 가리킨다면 민중신학의 민중은 군주의 봉건체제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여성이 남성을 대립개념으로 삼듯이 민중은 군주를 대립개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오늘 대한민국은 봉건사회가 아니다. 그 질이아 어찌되었든지 일단 형식적으로는 민중이 주인으로 나선 민주사회이다. 군주가 없는 현대사회에서 민중 개념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도 우리의 현실에서 소극적으로나마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민중은 농민, 도시빈민, 비정규직 종사자 등등, 중산층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다. 깨어 있는 중산층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중신학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중산층 중에서도 연봉 5천만 원 이하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너머도 포함되는지 누가 구획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모호한 대상\*을 중심에 놓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 토대가 부실한 게 아닐는지.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지난 70,80년대에 도도한 흐름을 이루어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으로 자리매김한 민중신학의 역사를 필자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듯 판지결기 식으로 막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민중들의 삶이 여지없이 파손되는 이 현실 앞에서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도 아니다.

그런 현실진단과는 별개로 ‘민중’ 개념이 과연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신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왜냐하면 민중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결국 민중신학이 여성신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중신학이 중요한 해석학적 목표로 삼고 있는 역사변혁과 연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민중신학이 말하는 민중은 역사변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조금 더 풀어서, 민중이 바로 메시아적 능력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가? 일단 양쪽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민중신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전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후자에 무게를 둔다면 굳이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다. 민중이든, 군주이든,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레파이든, 무할레파이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대상이니 말이다.

민중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무게를 둘 때 민중신학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또 하나의 아주 실제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중신학과 대립적인 보수주의자들도 민중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양적인 면에서는 민중신학적 성향의 진보주의자들보다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역동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노숙자와 결식자들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북한주민 돕기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 못지않게, 아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CCC에서는 수년 전부터 북한에 젓 염소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 아무개 목사가 1992년부터 사무총장으로 관여하고 있는 남북돕기운동이 북한에 지원한 물자는 천문학적이다. 들리는 말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께서 평양에 심장전문병원을 짓기로 했다고 한다.

민중신학에 속한 인사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이런 실천을 자신들의 실천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보수주의자들의

이런 실천은 민중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래서 결국 역사의 진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민중의 아편’과 같다고 말이다. 이에 반해 민중신학의 실천은 민중을 각성시킴으로써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중의 구원’이라고 말이다. 이런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으니, 여기서 더 이상의 논란은 그만두자. 대신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각성시킨다는 것이 바로 민중 메시아니즘이며, 그것을 통해서만 민중신학의 존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민중 메시아니즘이 기독교 신학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 민중 메시아니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민중 메시아니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필자의 입장에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민중은 오히려 반(反)메시아적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들은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이다. 그들이 바로 부동산투기를 하며, 위장전입과 탈세를 밥 먹듯이 하고, 새만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돈만 된다면 생태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행태를 중산층 이상의 문제로만 돌리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위장전입과 탈세 등등, 수많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에는 민중들의 공범의식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

오늘 한국교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적인 대형교회에 몰려드는 신자들이 모두 민중신학이 말하는 바로 그 민중들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 목사께서는 자신의 목회를 민중목회라고 명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들의 요구는 아주 분명한데, 핵심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오늘 현재의 삶에서 예수 믿고 복 받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

세에 구원받아 천당 가자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민중의 적나라한 욕구이다. 민중신학이 중요한 전거로 삼고 있는 출애굽 공동체도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물과 먹을거리가 떨어질 때마다 모세와 야훼 하나님을 원망했다. 성서기자는 이에 관한 사연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야횡단의 40년 동안 설 새 없이 불평불만이 쏟아졌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모세는 한나절에 3천명(출 32:28)\*이나 되는 사람을 칼로 베어죽였겠는가. 그 당시 근동의 하층민들을 통칭하는 히브리인들은 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끌어갈만한 동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민중을 이상화(idea)하면 신학은 관념화할 수밖에 없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동족 살해는 히브리 민중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해야 할 모세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척박했으며,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보여준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는 이집트의 일상적 평안을 그리워하는 민중들과 극한으로 대립해야만 했다. 그의 처지는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와 같다. 금송아지 사건은 야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진일보(進一步) 하는 심정으로 동족을 집단 살해했다. 그의 결정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다. 먼 훗날 마지막 심판에서 모세는 자신의 이 행위에 관해서 추궁 받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중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 금송아지에 큰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기적이고 퇴폐적인 민중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각성된 민중'이 바로 민중신학의 민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것처럼 민중들이 일시적으로 혁명의 주체가 되어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성공한 혁명은 부지불식간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status quo) 또 하나의 보수적 집단을 형성한다. 그것이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서는 부패한 관료주의로 나타



났다. 지금 필자는 현실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우월한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민중의 의식을 깨워서 역사변혁의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인간학적 한계를 말하는 것뿐이다. 인간이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적 사회과학보다는 인간의 죄를 존재론적 깊이에서 바라보는 성서의 인간 이해가 근본적으로 옳다는 뜻이다. 라인홀드 니이버의 현실주의적 윤리관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게 아닐는지.(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 참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여기 연봉 2천5백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노조활동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연봉도 훨씬 많이 받게 되었다. 이전에 비해서 삶의 조건이 크게 좋아진 것이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인가? 개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우리가 한국의 노조에서 경험하듯이 노조는 조합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민중을 위한 당으로 나선 민노당이 자주파와 평등파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결국 분당하고 말았다는 최근의 사건을 참고하시라. 또 다른 예로, 여기 한 동네에 치킨집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자.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뿐이다. 이들에게 역사변혁은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민중은, 아니 인간 전체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필자는 민중들의 이런 삶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뿐이다. 이런 점에서 민중 메시아니즘은 관념이지 현실이 아니다.

이상하게도 필자에게 민중신학의 주장은 관념으로 들린다. 그들은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들은 그 역사의 변혁을 말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변혁하자는 것인지 모호하다. 물론 소외받는 민중들이 주인처럼 대접받는 세상으로 바꾸자는 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양극화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왜 모

르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민중신학의 민중 개념이 모호하고, 특히 민중 메시아니즘이 관념적이어서 역사 변혁, 또는 역사 진보라는 그들의 주장 자체가 공허하게 들려올 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느낌이 필자의 어리석음이었으면 좋으련만.

### 민중신학의 관념성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민중신학 계열의 진보적 인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사건들이 제법 있었다.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문제, 이라크 파병, 그리고 한미 FTA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고 민중의 삶에 직결되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진보신학, 또는 진보운동가들의 주장이 필자에게 관념적으로 들리는 이유를 두 가지만 짚겠다.

첫째, 경제 전문가들에게도 참여하게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를 신학자, 또는 목회자가 나서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그 사안의 실체를 놓치고 변죽을 울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마치 신학자가 진화론의 자연과학적 논의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다. 기도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리를 획득해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설교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게 관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문제는 사실 한미 FTA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윤리학의 관계 전반에 미친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 삶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여기서 관건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신약성서의 아포리즘을 거론할 것도 없이 기독교 신앙이 실제의 삶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긴 말이 필요 없는 당위에 속한다. 그러나 교회가 신자들의 모든 삶을 일일이 간섭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삶은 하나이지만 거기에 접근하는 길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삶에 관해서 자연과학자의 접근이 다르고, 시인의

접근이 다르듯이, 기독교 신앙의 접근도 역시 다르다. 가장 핵심적인 관점만 짚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세속문화는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에 무게를 둔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하나님의 영광’ 신학에 근거해서 제네바의 세속정치까지 간섭했던 칼뱅보다는 세속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마틴 루터의 ‘두왕국설’(Zweireichlehre)이 원칙적으로는 더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진보 인사들의 행태는 개인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보수 인사들의 행태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보수 인사들은 신자들의 삶을 어린아이들에게 밥 먹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신앙적으로 일일이 재단해나간다. 십일조, 성수주일, 기도생활을 비롯해서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지침까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제시한다.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진보 인사들은 사회 문제에서 이렇게 일일이 훈수를 두려고 한다. 이 양자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사를 퇴행으로 몰아가고, 자신들은 진보시킨다고 말이다. 필자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우파와 좌파의 역사 이해가 다르듯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삶의 방식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령을 훼손시킬 개연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는 피장파장이다.

\*진보신학과 보수신학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특히 설교행위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성서보다는 청중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쪽 모두 일종의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다. 보수적인 목사들이 활동하는 대형교회의 설교는 청중들의 종교적 욕구에 과잉 반응하는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의 설교는 사회적 이슈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성서의 세계를 소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결국 성서를 도구화한 채 대중과 영합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필자가 보기에 한미 FTA는 칼처럼 절대 악이거나 절대 선이 아니라 국지적 경제구조를 지구적 차원으로 돌리는 경제 시스템이다. 그것을 미국의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만약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모든 체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과 같은 지구화 시대에 가치중립적인 한미 FTA를 기독교 신앙의 이름을 걸고 막아내야 할 절대 악으로 간주하는 민중신학의 시각이, 필자가 순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관념적으로 다가온다.

둘째, 앞에서 민중신학의 정체성과 연관해서 언급한 것이지만, FTA가 민중의 삶을 현재보다 훨씬 열악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주장에서 그 민중의 실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을 큰 틀에서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미국 물품의 수입으로 타격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물품의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이들도 있다. 전자는 주로 농산물에 관계되는 분들이고, 후자는 공산품에 관계되는 분들이다. 민중신학이 말하는 민중이 농민들뿐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수출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공장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면 한미 FTA 반대는 결국 대다수 수출 공단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게 아니겠는가. 한미 FTA가 식량주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게 한다거나, 결국에는 일반 수출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니까 입을 다물겠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오늘 여기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며, 반민중적인 질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능사라는 말은 아니다. 비록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한미 FTA 반대투쟁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려는 게 아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한미 FTA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으로 선택한 것뿐이지 기독교 신앙의 이름

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민중신학이 민중 프레임에 고착됨으로써 자신들이 극복하려 했던 정통신학의 관념성에 다시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기독교의 메시아니즘을 세속화했다는 사실이다.

### 개량을 넘어 새로움으로!

민중신학의 관념성과 그 신학이 보이는 메시아니즘의 세속화라는 필자의 주장을 일련의 민중신학 동지들은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필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이런 글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부분적인 소통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삶을 훼손당하고 있는 민중들만이 아니라 물신숭배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부르주아적 계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제공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글머리에서 언급한 ‘진보’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필자의 주장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무엇이 진보인가?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진보신학이 제시하는 진보는 사회과학이 제시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으로서는 자격미달이 아닐는지. 진보는 역사를 앞으로 끌고 나간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역사 변혁을 가리킨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은 단지 진보신학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구조를 전(全)방위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한다. 현실사회주의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실제로 민중의 삶을 쇠락의 길로 빠뜨렸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이다. 북한체제도 그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역사의 끝과 관계된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은 사회과학의 진보사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역사의 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은폐되었던 생명이 마치 꽃이 피듯이 활짝 드러난다고 보는 기독교의 종말론은 진보의 극치이다. 종말론의 모태인 묵시문학적 표상으

로 진술된 요한계시록을 보라.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면 결코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종말 표상은 실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 신학을 더 공부해야 하며, 무엇이 실질인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더 필요로 한다.

둘째, 종말론적 지평에서 민중들의 구원을 선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필요로 하는가? 필자의 눈에 민중신학의 진보적 실천은 복지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 정치 민주화, 경제 정의, 마이너리티 보호, 생태적 마인드 등등, 전반적으로 휴머니즘이 민중신학의 기초이다. 이런 귀한 가치들은 반드시 진보신학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복지와 휴머니즘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또는 구원은 이런 복지 향상과 휴머니즘 제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팔복의 말씀을 따르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에 훨씬 가까운 삶이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 데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간절히 기다릴 테니 말이다. 이런 설명이 어떤 분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학은 근본적으로 왜곡된 역사 너머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없다면, 또는 그것이 상대화된다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 개혁적이고 친 민중적 시민단체나 정치결사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교회는 시민운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자리에 의해서만 존재 근거가 성립된다. 그것은 역사의 인간학적 개량이 아니라 역사의 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는 자리이다. 그 새로움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기다린다. 이런 종말론적 기다림에는 실천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 기독교 신학에 대한 큰 오해이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기다림보다 더 역동적인 실천은 없다.

당신의 주장은 일반론일 뿐이어서 이 가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민중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민중신학은 이 고약한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해서 예언자적 역사 의식과 변혁적 실천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이다. 필자는 이런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물질 숭배적 시대정신과 야합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장에서는 신학의 본질에 천착하기보다는 일단 현실변혁에 우선권을 두는 게 시급한지도 모른다. 다만 가능하면 민중이나 진보보다는 신학에 더 무게를 놓고 사유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민중(행위)은 신학(존재)에서 영적 자양분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통치를 존재론적으로 담고 있는 기독교 경전인 성서의 세계와 그 성서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결과물인 정통신학과의 해석학적 소통\*에 구도 정진할 때 민중신학의 진정한 진보성이 담보되는 게 아닐는지.

\*2008년 1월28일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진보신학의 미래- ‘진보신학’, 무엇이 진보인가?” 심포지엄 발제 강연에서 김용복 선생은 생명해방운동이라는 한국적 신학, 아시아적 신학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양기독교와의 해석학적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가부장적이고, 서구 중심적이며 주객도식적 세계관을 극복하자는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지평융해(Horizontverschmelzung)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평이 고유하게 살아나야 한다는 가담머의 해석학적 구도에서 볼 때 서구신학과의 해석학적 단절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바니>를 우리의 창(唱)으로 바꿔 불러야만 참된 노래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민중 신학은 대화를 포기하는가?

구로감리교회 조수현 목사님(이하 ‘조 목사’)은 필자가 <기독교사상> 4월호에 게재한 줄고 “진보신학, 비판적 성찰 -민중신학을 중심으로-”에 대한 반론을 5월호에 “신학은 민중신학이다 -정용섭 박사의 ‘민중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읽고서-”라는 제목으로 올리셨다. 조 목사는 민중신학에 대한 비판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비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중신학에 대한 오해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오해를 불러온 서구신학의 한계이다. 전자를 다시 세분하면 민중에 대한 오해와 민중 메시아성에 대한 오해이다.

조 목사의 글을 읽고 필자는 한편으로 조금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 당혹스럽다. 민중신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비판적 성찰이라는 글을 썼으니, 왜 부끄럽지 않겠는가. 조 목사의 글을 통해서 민중신학의 근본 토대를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글에서 오해가 풀렸다기보다는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니, 왜 당혹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으나 조 목사에 의해서 해명된 민중신학은 부정의 신학에, 또는 방어의 신학에 가깝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보인다. 첫째, 조 목사의 설명에서 민중신학 이외에는 모든 신학이 총체적으로 부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해방신학은 물론이고, 한국의 여러 토착화 신학마저 시대적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둘째, 조 목사에 의해서 제시된 민중신학의 신학 방법론은 대화가 아니라 독단적 선포에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필자의 오해였기를 바란다. 그래도 필자가 왜 그렇게 오해할 수



밖에 없었는지 변명이라도 해야겠다.

조 목사의 글을 접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인상은 그가(또는 민중신학이) 서구신학을 극도로 불신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 다만 그에 상응하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필자는 그의 글에서 그런 논리를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특 하면 당신은 서구신학에 경도되었다고 추궁한다. 조 목사의 그런 추궁을 듣고 있노라면 필자가 마치 신학적 사대주의에 묶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으로 주눅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 목사가 서구신학의 사유방식을 거부하면서 본인도 바로 그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중신학에 대한 오해가 정통신학의 절대화에 연유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갑자기 중세기 유럽에서 전개된 보편 논쟁을 거론했다. 참으로 뜬금없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민중신학이 정통신학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민중’보다는 ‘신학’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뿐인데, 조 목사는 그 부분에서 조금 ‘오버’하신 것 같다. 그건 그렇다 하고, 사유의 ‘주체성’을 도에 넘칠 정도로 강조하는 분이 정통신학이 없다는 사실을 보편 논쟁에 기대서 제시하다니, 이건 바로 자기 부정이 아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 자체가 엄청난 비약이다.

필자가 알기로 중세기 보편 논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전개되었다. 실제 안의 보편(universalia in re), 실제 앞의 보편(universalia ante rem), 실제 뒤의 보편(universalia post rem).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특성인 에이도스(eidos)를 질료와 묶어 있으면서 사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형상으로 간주했다. 앞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플라톤은 에이도스를 세계를 초월하는 이데아라고 보았다. 그의 입장은 물론 두 번째 유형이다. 마지막이 소위 유명론인데, 이에 따르면 보편은 세상의 사물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에게 의해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여기서 필자도 잘 알지 못하는 보편논쟁을 더 이상 상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면, 기독교의 신론과 인간론에 각각 큰 영향을 끼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보편개념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들 헬라철학자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세계 창조자이며, 완성자로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명론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조 목사는 유명론에 기대서 보편 인간이 없으며, 보편 신학도 없고, 따라서 정통 신학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의 존재론적 근거는 타파될 것이며, 따라서 경론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조 목사는 이런 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 모르겠다. 당신의 그런 논리는 전형적인 서구신학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필자는 조 목사가 보편논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독자 중에서 중세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필자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이 기회에 정확히 배워야겠다.

글머리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시간을 끈 이유는 가장 실증적이어야 할 민중신학이 별로 학문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조 목사의 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해는 마시라. 필자는 지금 민중신학 자체가 아니라 조 목사에 의해서 언급된 바로 그 민중신학을 거론하는 중이다. 필자의 글에 간혹 민중신학을 폄훼하는 듯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조 목사의 글에 한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다시 위의 글로 돌아가서, 이것은 단지 학문적 엄밀성의 결여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속사정이 여기에 개입된 게 아닐는지. 그것은 필자가 앞의 글에서 제기한 민중신학의 관념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관념성, 추상성이 개인의 감수성 및 교조성과 결합하면 종종 선정성으로 나타난다. 조 목사는 민중신학이 한국적 정황에서 배태된 여타 신학 중에서 독보적이라는 점을 변호하

는 대목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감옥에 갔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그때 그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다. 서남동과 안병무도 감옥에 갔다. 그들은 거기서 민중을 만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만났다. ‘조국 근대화’의 희생양이 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살인적 저임금에 시달리다가 조금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려보고 싶다고 외치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을 만났다. 고달픈 하루를 막걸리 한 사발로 달래며 푸념을 늘어놓다가 ‘막걸리 반공법’에 걸려 감옥에 온 사람도 만났다. 심지어 형사들의 범인검거실적을 위하여 속칭 ‘후리가리’로 붙잡혀 들어온 옛장수, 고물장수, 양아치들도 만났다. 서남동과 안병무는 감옥에서 이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다시 묻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이 필자에게는 선정적으로 들린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복음주의 대중 설교자들의 그것과 닮아 보이기에는 하는 말이다. 잘못 보았다면 용서를 바란다. 어쨌든지 위와 같은 민중경험만이 신학의 전거이고, 따라서 “서구신학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논리는 아무리 신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단순하다. 청량리 흥등가의 실체를 이미 오래전에 경험한 소위 ‘밥 퍼 주는 목사’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신하고 있다. 장기(臟器) 기증 운동을 하는 목사도 있고, 호스피스 운동을 하는 목사도 있다. 모두 귀한 활동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휴머니즘 운동에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군사독재와의 투쟁만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 각각의 경험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라. 며느리 신학, 외국 노동자 신학, 동성애 신학, 채식주의 신학 등등, 모든 게 이름 붙이기에 달렸다. 이것이 바로 조 목사의 인식론적 토대인 유

명론의 실체란 말인지.

위에서 조 목사가 거론한 군사독재와 감옥의 경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질서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지금도 그 창조를 유지하고, 종말에 완성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악한 질서와 투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세상을 바르게 직면하고 있는 보수 인사들도 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나름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조 목사는 군사독재와 감옥에서 일어난 민중경험만을 신학의 독단적 근거로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다.

앞에서 말한 대로 조 목사는 필자가 민중신학을 오해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계몽시킬 작정으로 많은 말쑼을 주셨는데, 그게 필자의 손에 전혀 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첫째, 필자에게 난독증이 있다. 둘째, 조 목사가 설명하는 민중신학에는 민중의 실체가 없다.

민중은 살아있는 실체?

이제 구체적으로 민중에 관한 논의로 들어가자. 조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민중신학은 “민중이 누구냐?” 하고 묻지 않고 “누가 민중이냐?” 하고 묻는다고 한다. 기존의 신학이 안고 있는 관념성을 철저하게 극복하겠다는 민중신학이 이런 언어유희로 민중개념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다는 것은 해석학적 토대가 극히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민중은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이기에 “민중 신학자들은 민중에 관해 개념규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여성신학이 억압받는 여성에 관해 개념규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민중’신학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민중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 것 아니냐는 요구에” 대답하겠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개념규정과 윤곽을 잡는다는 건 똑같은 말 아

닌가. 여기에도 동일한 언어유희가 작동되고 있다. 민중신학이 이런 말장난으로 신학적 무게를 회피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하다. 신학의 역사를 정확히 직시하시라. 그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통신학도, 아니 서구신학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 관해서 윤곽을 잡을 뿐이다. 도대체 조 목사가 말하는 민중신학의 신학방법론과 정통신학의 그것이 뭐가 다른가?

조 목사는 서남동과 안병무를 이런 윤곽잡기의 대표적 신학자로 제시하고 있다. 서남동에 따르면 민중은 백성, 시민, 프롤레타리아, 대중과 구별되는데, 핵심적으로 시민대중이라고 한다. 특히 지식인은 민중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렇다면 민중 ‘신학자’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게 아닐는지. 서남동과 안병무의 언어는 모두 지식인의 것이니 말이다. 조 목사는 왜 자기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병무가 민중개념으로 제시한 오클로스에는 경제적 약자만이 아니라 민족감정에서 소외된 세리 같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친일명단에 오른 사람들도 역시 민중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글을 쓰다 보니 이제야 민중이 “살아있는 실체”라는 조 목사의 말에 이해가 간다. 민중은 어떤 계급이 아니라 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국노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그가 누구든지 현재 소외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조리 민중이다. 군사독재로 평평거리다가 민중들에 의해서 밀려나 초라하게 망명 생활을 하는 이들도 역시 “살아있는 실체”로서 민중이 될 수 있다. 현재 억압당하는 민중만이 민중이 아니라 현재 민중을 억압하는 사람도 역시 민중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민중이다. 지금 필자가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군사독재, 감옥 운운 하는 목소리만 높았지 그 논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사실 앞에서, 비교적 민중신학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났기 때문이다. 신학은 설교가 아니지 않은가. 그의 논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자.

논리 이전에 터미놀로지(terminology)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네 대목으로 구분하겠다.

첫째, 조 목사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서구신학의 ‘주객도식’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민중을 객체로 대하는 서구신학은 기본적으로 민중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체와 대상을 엄격히 나누어 보는 시각은 서양의 사고방식이다. 민중신학은 주객도식을 싫어한다.” 개념규정을 터부시하는 조 목사가 왜 서구신학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념화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주객도식의 극복, 또는 해체를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체성 없이 서구신학을 정통으로 알고 ... 이제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우리의 것”과 서구의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객도식이다. 유럽 사상사에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슴” 이후로 경험론과 합리론을 거치면서, 일종의 주관적 인식론이라 할 주객도식이 일정하게 작동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마치 서구신학이 바로 주객도식에서 헤어지지 못한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정파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또한 안티-기독교 진영이 현재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현상들을 기독교 자체로 오해하는 것처럼 조 목사도 역시 지난 2천 년의 신학 역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던 신학현상들을 전체로 오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조 목사에게 따르면 서구신학은 이론이 먼저이고 민중신학은 프락시스가 우위이며, 서구신학은 텍스트가 먼저이고, 민중신학은 콘텍스트가 먼저라고 한다. 이런 이원론적 구분은 신학과 역사에 대한 철저한 곡해에 연유한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이론이지만 인간의 노동과 그 소외 문제를 담고 있듯이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론이지만 인간과 역사의 현실을 담고 있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Reality is a process”가 이론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이덱거가 말하는 ‘존재’나 노자의 ‘도’가 관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다. 삼위일체론을 사변적인 이론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론을 세우기 전에 이미 어떤 궁극적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물론 조 목사가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는 있다. 이론이 아무리 프락시스를 토대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 교회 생활에서는 관념적 이론으로만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프락시스의 우위를 강조하는 민중신학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신학이라고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도 역시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늘 미국의 가벼운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현장 중심적이며, 프락시스 우위적인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 신학무용론에 빠져서 청중의 종교적, 세속적 욕망에 치우친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는 아마 조 목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중신학의 프락시스 우위성을 그들의 그것과 구별하고 싶겠지만, 전자는 사회와 역사적 지평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개인과 실존적 지평에 관심을 둔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중추수주의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전혀 없다.

셋째, 조 목사는 “온갖 교리를 만들어 신학을 어렵게 하고, 현실 문제를 외면하기 위하여 거룩을 빙자하게 된” 서구신학의 전형이 루터의 ‘두 왕국론’이라고 지적했다. 조 목사에 의하면 루터는 이중적인 처신을 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자신의 개혁을 위하여 귀족들의 도움을 받았고, 귀족들이 재세례파를 탄압할 때 귀족들을 독려해주었다. ... 그들 농민들은 루터가 처음 개혁을 시작했을 때 열렬히 지지해주어 루터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다. ... 루터파 귀족들의 억압과 착취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개혁에 나선 것인데, 루터파의 탄압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세계를 두 개로 나누어 보는 시각에서 생긴 참극이다. 이 여파로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던 독일 남부 지방에는 지금까지 루터파가 별로 없다.

조 목사는 역사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아니 그는 역사의 깊이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루터는 농민전쟁 초기에 농민의 입장에서 영주와 군주들을 향해서 타협하라고 권면하는 글을 썼다. 농민들의 폭력적 시위가 과격하게 발전되면서 루터의 입장이 달라졌고, 급기야 그들을 폭도로 규정함으로써 군주들이 그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농민들을 끝까지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루터의 역사의식은 문제가 크다. 그러나 오늘의 잣대로 그의 행동을 매도하는 것은 조 목사가 그렇게 강조하는 콘텍스트를 무시하는 것이다. 두 가지만 보자. 첫째, 우리가 농민전쟁에 관한 루터의 행태를 말하려면 뮌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본적이고 원리적 종교 개혁자였으며,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천년왕국론자였던 뮌처에 의해서 농민들이 선동당하고 있을 때 현실적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무슨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건지는 훨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폭력적인 농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인 루터의 논문이 없었다면 그 당시 군주들이 농민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하는 점도 중요하다. 프랑스 혁명도 아주 요원한 16세기 초에, 독일의 봉건적 군주제가 추호도 흔들림이 없던 그 상황에서 루터가 견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빠져들던 농민전쟁을 부추겼다면 훨씬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대놓고 종교개혁사에 관해 말할 입장이 아니기에 그만 줄이겠다. 다만 농민해방의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시점에는 극단적인 폭력투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만은 인정해야하지 않겠는가.

더 근본적으로 루터가 두왕국론에 기대서 자기의 안일을 도모했다는 조 목사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두왕국론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세상을 그냥 적시해보라.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구별된다는 것은 아무 명백한 게 아닌가. 예컨대 이 세상에는 과학의 질서가 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교회가 알가알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세상에는 실정법이라는 질서가 작동된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일일이 시비를 걸 수는 없다. 교회는 실정법이 아니라 오히려 청의론으로 인간의 삶을 살리는 길을 찾는 공동체가 아닌가.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율법을 완전히 거부하고 복음 공동체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도 역시 법의 질서와 은총의 질서를 구분했다는 의미이다. 이 자리에서 약한 질서도 인정해야 하는지, 하고 질문하지는 마시라.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작은 사실관계를 하나만 더 확인하자.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 목사는 루터의 잘못으로 인해서 루터가 개혁을 시작한 독일의 남부지방에 루터파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는데, 루터는 북부지방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95개 조항의 신학명제가 작성되었으며, 그 뒤로 루터가 죽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도시인 비텐베르크는 독일 동북부지방이다.

넷째, 조 목사가 성서를 인용하는 방식에도 논리적 결함이 보인다. 민중의 메시아 성을 설명하면서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인용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강도 만난 사람은 민중이다. 이 민중을 살려낸 사마리아 사람은 민중에게 고귀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다. 결국 강도 만난 민중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민중의 메시아 성”이라고 한다. 성서본문을 이렇게 읽다니, 참으로 해괴한 논리이다. 그런 논리라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야기한 강도도 역시 메시아 역할을 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 예수를 판 가롯 유다나 예수를 고발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 모두 메시아 성을 띤 이들이다.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참된 이웃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소박한 비유를 근거로 이런 논리의 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당신은 서구 보수신학에 철저히 세뇌된 사람이래서 민중신학이 말하는 메시아니즘의 신비를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정통신학은 용도폐기 되었나?

조 목사는 민중신학을 비판하려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서구신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민중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제 필자는 민중신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판했다는 그 비판을 그대로 조 목사에게 돌려드려야겠다. 조 목사도 역시 서구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용어와 개념을 제 논 물대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가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민중신학의 열 가지 특징도 별 대수롭지 않는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진정한 민중의 체험 없이는 이런 민중신학의 깊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민중신학이 일종의 소종파적 밀의종교(密儀宗教) 운동으로 떨어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민중체험이 뭔가? 신학적 성찰이 없는 기존의 교회 현장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든지 “성령을 받지 못한 탓이야.” 하는 말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듯이 민중신학도 민중체험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지. 자칫 교조적 태도가 보여, 하는 말이다. 다시 묻자. 모든 걸 빼앗겨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를 경험해야만 가능한 신학이 민중신학이라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오늘 집집마다 자가용을 굴리고, 핸드폰과 인터넷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누가 도대체 민중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민중은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실체가 더 묘연해지고 말았다.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용했듯이 조 목사가 말하는 민중신학도 역시 민중체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여타의 모든 신학과 같은 길을 못 가겠다고 한다. 민중신학만이 지고지선이라는 말이다. 믿거나 말거나, 민중신학은 서구신학에서 오염된 ‘사랑’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겠다고 한다. 서구신학의 해석학적 전승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포즈를 취한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빠져서 세계와 역사의 깊이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우리의 것을 찾겠다는 의도를 가타부타 말할 건 없지만, 문제는 세계 신학이 그걸 인정하는가에 있다. 이런 필자의 주장도 역시 주체성의 상실이라고 비판받을지 모르겠다. 조 목사가 그렇게 강조하는 신학의 주체성 문제를 여기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조 목사의 언어사용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는 서구신학의 주객도식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서구신학을 대상으로 놓아야만 성립되는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다. 민중신학이 정통신학을 어디까지 부정하는지를 말이다. 신구약 경전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등을 비롯한 역사적 문서들을 모두 용도 폐기시킬 생각인가? 필자가 시비 걸듯이 말한 이유는, 조 목사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민중신학이 아예 신학적 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유럽신학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거둬들이기를 바란다. 유럽 신학의 한계를 본다 하더라도 유럽신학은 분명히 기독교의 역사이며 현실이다. 그들과의 대화가 없이 자폐적 상태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신학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길이며, 더구나 그 작업은 가능하지도 않다. 편견 없이 우리 앞에 놓인 신학의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예로 들고 글을 마쳐야겠다.

바울, 루터, 그리고 바르트로 이어지는 청의론이 말하려는 그 핵심 안으로 들어가 보라. 왜 그들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청의 개념으로 접근했는지, 그리고 의(義)를 실질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관점으로 해명하고 있는지를 알면 정통신학이 인간과 역사를 아주 현실적으로, 조 목사의 표현으로 바꾸면 살아있는 실체로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청의론을 백날 가르쳐봐야 인간과 역사가 변하나, 하고 묻지는 마시라. 기독교 신앙에서 실제적인 변화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그런 변화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제1,2세대 민중신학자들은 이미 유럽신학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서남동과 김창락은 죄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청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개념을 도입했다. 필자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시도는 정통신학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지 조 목사의 주장처럼 그것 자체를 부정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의 정통신학이든지 민중신학이든지 서로 해석학적 토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존재와 행위의 근거로 삼아야 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마땅한 영적 태도가 아니겠는가. 독일에서 부는 바람(루아흐)이나 한국에서 부는 바람이나 똑같은 바람이지 않은가.

오늘 필자는 경솔하다는 말을 듣겠다는 각오로 약간 거칠게 글을 썼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 목사께서도 그렇게 읽으실 줄로 믿는다. 좋은 자리에서 만나, 한잔합시다.

## 사순절 영성

교회력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요즘은 성령강림절 중반 이후를 창조절로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교회력의 중심은 부활절이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교회력이 형성되었다. 부활한 분의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순절, 주현절, 성탄절, 대림절이 자리를 잡았고, 부활한 분의 승천 이후에 성령강림절이 자리를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통치를 경험한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런 교회력의 형성은 당연하다.

사순절은 부활절 바로 앞에 자리한 절기이다. 부활절 전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 바로 사순절(四旬節, Lent)이다. Lent는 고대 앵글로색슨어인 Lang과 고대 독일어 Lenz에서 온 단어로 ‘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사순절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 같다. 우리나라 교회가 사용하는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헬라어 ‘테사라코스테’에서 왔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절 전 한 주간만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다가 니케아 공의회(325년)부터 40일로 확대했다고 한다. 40이라는 숫자는 신약약성서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후 겪은 광야생활 40년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 전에 행하신 40일 동안의 금식과 시험받으신 사건 등등이 이런 사순절 확장과 연관된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성회(聖灰)수요일’, 즉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금년은 2월17일이다.

수난절의 세 가지 전통

고난주간의 확장인 사순절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로 나선 이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고난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뜻이리라. 이 절기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신앙 습관이 행해졌다. 첫째, 신자들은 성회수요일에 교회에 가서 재를 이마에 발랐다. 재는 인간이 가장 처절한 상태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죄와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어 재로 변한다는 사실은 성서가 말하는 인간의 엄중한 실존이다. 사람들은 그걸 간단히 잊는다. 아니 그걸 잊도록 강요받고 있다. 오늘의 문명은 우리를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뻔뻔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모른다는 망상을 가져도 좋은 것처럼 유혹한다. 중세기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명제가,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명제가 중요한 화두로 작동한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죽음을 기억할 때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리라. 오늘 사순절을 맞는 기독교인들도 순식간에 재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신자들은 사순절에 금식했다. 금식 습관은 인간의 가장 강렬한 본능인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강도의 차이가 있었다. 사순절 초창기에는 저녁 전에 한 끼의 식사만 허락되었다. 육류는 물론이고 달걀과 우유 제품도 먹을 수 없었다. 오늘 수도원이 아니라 세속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사순절을 지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욕을 절제하다는 기본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의 문명은 먹는 것을 탐하게 만든다. 식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삶을 확인시킨다. 그게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 전형적인 예만 짚겠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광우병 현상은 사람들

의 육식 편향성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이다. 질 좋은 소고기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곡물을 사용한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과 콩이 재배되고, 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한다. 제삼세계 어린이들의 굶주림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런 세태에서 기독교인만이라도 먹는 것을 절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절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무절제한 성적 욕망도 포함된다.

셋째, 사순절 기간에 신자들은 구제와 선행에 힘을 썼다. 바로 위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금식이 식욕이라는 인간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제와 선행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생존 본능을 제어하는 신앙 태도다. 말하자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차원으로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이를 성만찬 영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형제애로 나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더불어 살아가려면 결국 ‘너’와 공동체를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나눠야 한다.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오직 개인의 경쟁력만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기심만이 사회의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시대정신에서 ‘너’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마틴 부버가 지적했듯이 이제 ‘너’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사물이 되고 말았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웃을 향해 개방적인지, 사회적인 소수자와의 연대에 진지한지 질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사순절 영성은 공허하다. 수백억 원, 수천억 원짜리 교회당 건축이 큰 고민 없이 시도되는 한국교회가 사순절 영성을 말한다는 것은 속과 겉이 이중적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위에서 언급한 사순절에 대한 세 가지 전통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을 가리킨다. 고난의 영성이라 해도 좋으리라. 재를 이마에 바

르는 것이나 금식과 구제는 모두 다소간 자기를 부정하며, 이로 인한 고난을 담보한다. 고난의 영성! 말은 좋다. 솔직하게 묻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여전히 유효한가, 가능한가, 적실한가? 오늘과 같은 소유와 소비와 풍요를 신처럼 떠받드는 시대에 이런 부정의 영성, 고난의 영성이 신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인가?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일반 신자만이 아니라 소명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순절 영성은 말 그대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란 말인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능력이다. 사순절 영성도 삶의 능력이다. 이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자.

### 고난의 영성

앞에서 필자는 교회력의 시작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순절은 바로 부활절의 씨앗이며, 부활절은 사순절의 꽃인 썸이다.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이며, 그것의 육화(肉化)다. 즉 사순절의 영성은 십자가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 없이 사순절 영성은 불가능하다.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회 수요일에 재를 이마에 바르거나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한다거나 구제에 나서는 일도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습관을 실천하기 이전에 그런 실천의 뿌리가 무엇 인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 신학을, 즉 십자가 영성을 모른 채 그런 경건한 습관에만 치중한다면 결국 종교적 교양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예배와 기도는 많지만 거기에 걸맞은 삶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근본적인 신학적 영성의 부재에 놓여 있는 게 아닐는지.

필자는 위에서 영성과 신학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영성은 경건의 능력이고, 신학은 단순히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언어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영성과 신학의 관계



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다. 이런 오해는 오직 교회 행사에만 매달리는 대중적인 교회는 물론이고, 소위 영성을 추구한다는 교회에서도 일어난다. 필자의 생각에 영성은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아니 신학이 바로 영성이다. 신학자라고 한다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영적인 사람은 신학적이지 않을 수 없다. 신학자들은 이론을 세우기 전에 이미 영적인 현실을 경험한다.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 신학이다. 예를 들어, 바둑의 정석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프로 기사가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정석이 신학이며, 프로 기사 활동이 바로 영성이다. 이런 점에서 사순절의 핵심인 고난의 영성은 바로 십자가 신학과 다를 게 없으며,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사순절 영성에 들어간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사순절은 고난주간의 확대였다는 앞의 지적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순절 영성은 다음의 질문을 기초로 한다. 십자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대답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그 대답이다. 세례를 받기 위한 교리문답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실제 십자가 신학, 십자가 영성의 차원에서는 부족하다. 부족하면 결국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초기 기독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 구원의 길로 경험하고, 해석하고, 인식하고, 믿게 된 데에는 아주 긴 사연이 놓여 있다. 그것이 성서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논쟁적 신앙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듯이 신약성서에 부분적으로 그런 논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들이 논쟁적이었다는 말은 예수에 대한 경험을 진리의 차원에서 해석했다는 뜻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대답도 그런 과정에서 주어졌다. 그런 과정을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대답만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운다면 결코 십자가 영성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런 과정을 일일이 추적할 필요는 없다. 사순절 영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일까? 더 근본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일까?

복음서를 선입관 없이 읽는다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가능한대로 그런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다. 비록 순간적인 유혹에 불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예수도 인간이었기에 순간적으로 죽음이 두려웠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국가와 이념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 과감하게 나서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 그런데도 성서는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피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놓여 있을 것이다.

이 다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는가, 하는 그 다음의 질문과 연관된다. 십자가 처형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예수가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예수가 그것을 피해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종말에 세상을 완성할 분이다. 그런 절대적인 분이 한 유대인 남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에서 그렇다는 뜻이

다.

이런 논리가 이상하게 들리는가? 아니다. 예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과 충돌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모든 설교와 메시아적 행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건이었다. 십자가는 죽음 자체이며, 실패이며, 좌절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하고 믿었던 예수에게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 그가 그런 상황을 피해보려고 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십자가 죽음의 절망과 저주는 당시 모든 이들에게 자명한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고전 1:23) 이런 맥락을 모르면 십자가 신학의 깊이를, 즉 사순절 영성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든 사실에 대해서 예수가 확신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다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훨씬 더 빛난다.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거기 에까지 이르게 된 예수의 순종이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예수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지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었을 것이다. 예수는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그가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그것은 곧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었다.

이 대목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열광적으로 사로잡힌 한 유대인 남자의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 사건이었다. 실패라고 생각한 그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생명이 발현된 것이다. 기독교 영성의 진수는

바로 이것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행하신 분이시다. 아니 창조자인 그분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사순절의 영성도 이 구도 안에 들어 있다. 죽음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역동한다. 고난에 이미 기쁨이 싹트고 있다. 어둠에 이미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선취의 방식으로, 은폐의 방식으로!

### 성공주의를 넘어

위에서 설명한 십자가 신학, 또는 십자가 영성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사순절 영성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마지막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독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든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일반론적이다. 그것의 현실성(reality)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현실성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성이 허공에 떠돌지 않고 실제적인 역동성을 얻을 수 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다.

첫째, 사순절이 가리키는 고난의 영성은 고행이나 자학과 다르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앙 정서와 긴밀히 결탁되어 있다. 신앙을 죄책감이나 자책감과 혼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떤 목사는 설교 때마다 당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고 외친다. 모든 행위를 도덕적인 죄와 연결시킨다. 술, 담배마저 죄의 항목에 넣는다. 강단에서 실제로 대성통곡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자학적인 설교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신자들은 마조키즘 상태에 빠져든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깊이보다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위로에 매달린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신앙의 모태는 유럽의 청교도 신앙과 미국의 부흥운동이다. 신자들을 단순히 회심과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재단하는 방식의 영성이다. 18,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간 이해와 기독교 신앙에서, 즉 생명 중심의 영성에서 살아가는 21세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청교도 영성과 부흥운동의 신앙을 강조한다는 것은 청년이 된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 입던 작고 낡은 옷을 입히려는 형국과 비슷하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묵회적인 방편으로 버젓이 행해진다. 자책감에 빠진 신자들을 다루기는 쉽다. 목사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고난을 신앙이라고 강변한다. 자녀들의 등록금을 교회당 건축 헌금으로 바치는 걸 좋은 신앙으로 부추긴다. 이런 일들이 어디 한 둘인가. 먼 곳에 출타했다가도 주일이면 본(本)교회에 반드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성수주일인 것처럼 주장한다. 신자들이 당하는 불편과 고통을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호도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극한의 고통이었지만 예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능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결과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이른 것뿐이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예수는 고난과 고통의 운명을 살았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신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고통 자체를 신앙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영성에 대한 오해이며, 더 나아가 왜곡일 수도 있다.

거꾸로 요즘 기독교인 중에는 영악하고, 출세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출세에 도취된 신자들도 많다. 한국교회에 속칭 고지(高地)론이 지성적 기독교인들에게 팽배한 적도 있었다. 고지론은 복음 사역

을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좋은 자리에 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세속적인 기복주의를 지성적인 용어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기독교 신앙이 건전한 중산층 시민을 길러내는 시민종교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자기 부정적인 신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라도 있지만 긍정의 힘에 매료된 오늘의 신자들에게는 그것마저 없어서 기독교인의 특징을 찾으려고 해봐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세상과 삶을 무조건 비판하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신앙이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식으로 성취감에 사로잡히는 신앙이나 모두 고난의 영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전자는 고난을 심리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며, 후자는 고난을 세속의 가치로 전락시킨다. 전자는 고난을 즐기며, 후자는 고난을 두려워한다. 전자는 고난의 무게에 눌러 있으며, 후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한다. 전자의 신앙은 너무 엄숙한 반면에, 후자는 너무 가볍다 못해 천박하기까지 하다. 전자는 신앙의 색깔이 너무 어둡고, 후자는 너무 밝다. 조금 도식적으로 분류하면 전자는 부활 신앙이 턱없이 부족하고, 후자는 십자가 신앙이 턱없이 부족하다. 양쪽 모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고난의 영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탓이다. 십자가 영성은 부정의 영성도 아니요, 긍정의 영성도 아닌, 그야말로 순종의 영성이다.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킨다.

둘째,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의 처절한 실패인 십자가가 하나님께의 개인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이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인간은 아무도 실패의 길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성취, 목회적인 성취도 결국 구원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십자가 영성에서만 본다면 목회의 실패야말로,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철저한 순종이 전제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묵회에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기독교 영성과 거리가 먼 사람이리라.

결론적으로, 사순절 영성은 승리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쉽지는 않다. 우리의 영성이 승리주의에 완벽하게 길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승리만을, 그것도 세속적 승리만을 향해서 줄달음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사 모임에서도 교회를 크게 키운 목사들에게 발언권이 독점되어 있다. '예수성공, 불신실패'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이런 행태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정신(spirit of churches)이 되어버렸다. 십자가의 영(spirit of cross)을 전해야 할 교회의 타락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찌 사순절 영성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자식을 호적에 파내듯이 교회의 절기에서 파버리는 게 차라리 정직한 게 아닐는지.

## 안식일 ‘법’과 국가보안 ‘법’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죄를 지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 갇혔다. 이들의 발에 채워진 족쇄와 동굴 안의 어둠이 그들의 행동을 불편하게 했지만 이들은 차츰 동굴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의 후손들은 그곳에서의 삶에서 전혀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에게서 동굴 밖의 세계는 시나브로 잊혀지다가 급기야는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족쇄를 풀게 된 어떤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동굴 밖은 그가 태어나서 자란 동굴 안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각양각색의 사물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여러 생명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색깔, 꽃향기, 나비와 벌, 산과 강, 호수, 들판, 태양과 별이 제 각각 아름다움을 빛어내고 있었다. 전혀 새로운 세계에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포들에게 어서 빨리 이 동굴을 벗어나야 한다고, 동굴 밖은 정말 멋진 세상이라고 외쳤다. “당신들은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해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동굴 밖으로 함께 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동포들은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었어도 믿으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살아온 동굴만이 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동굴 세계의 원로들은 동굴 안의 법을 어기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엉뚱한 말을 하는 이 사람을 ‘미쳤다’고 단죄하고 옥에 가두었지만, 이 사람은 옥에 갇혀서도 동굴로부터의 해방을 계속 외쳤다. 그러자 원로들은 이 사람 때문에 동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자칫 그 근본이 위태롭다고 보고, 의논 끝에 이 사람



을 없애버렸다.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한 이후로 동굴 안의 세계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동굴을 모든 세계라고 믿고 있는 그들은 동굴 안에서 이전처럼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 (이왕주의 <철학폴이 철학살이>에서 참조).

2천4백 년 전 아테네의 원로들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죄명으로 사약을 받고 죽은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어리석은 아테네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그 오랜 세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플라톤은 단지 그 시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상만을 빚대서 이런 우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참된 ‘이데아’에 대한 인식만이 이 세계의 실체를 밝히 보여준다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이런 우화에 담으려 한 것 같다. 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미 우리에게 남겨진 ‘동굴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어 있는 허상과 허위를 직관하도록 압박한다. 이 우화에 나오는 동굴 안의 실정법과 종교법, 관습헌법과 조례 같은 온갖 종류의 법과 규범이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를 원천 봉쇄했다. 정치와 종교에 의해서 금지된 법은 세월의 두께와 더불어 그 동굴 세계 안에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 이데올로기가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 의식까지 지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결국 그들은 동굴 밖의 황홀한 생명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그 동굴 안의 칙칙한 삶을 행복한 것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런 동굴의 허상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 같다.

나는 간혹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런 동굴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섬뜩해진다. 최근에 나는 자의반타의 반으로 ‘설교비평’에 관계된 작업을 몇 번 했다. 스스로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에 끼어들었다는 게 약간 부끄럽지만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되었다. 설교비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솔직히 은혜

로운 설교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는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원로들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었다. 비록 동굴 안에 묶여있지만, 동굴 밖의 세계를 가리키고 함께 그쪽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야 할 설교자가 청중들을 동굴 안의 질서에 적응시키는 일에만 신경을 쏟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다만 그런 현상을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관해서 설명한다면 그들은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치장된 여러 종류의 ‘규범’만 강화하고 있었다. 성서를 규범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곧 기독교가 율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헌금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봉사, 복지, 봉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접근방식이 한결같이 ‘율법’의 차원이었다. 그들에게 성령은 스스로 바람처럼 자유롭게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는 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도와 프로그램 안에 갇히는 법이 되고 말았다. 도대체 (율)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 안식일 ‘법’

유대교의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일 것이며, 그것을 다시 압축하면 안식일 ‘법’이다. 물론 이런 규정이 구약신학의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진 긴장과 충돌이 주로 안식일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안식일 제도에서 안식년으로, 안식년에서 희년으로 훨씬 포괄적이고 심층적 차원으로 변화해간 그 역사를 감안한다면 안식일은 모든 율법의 단초라 할 수 있다. 물론 십계명에는 안식일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보이는 계명이 있다. 야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

지 말라는 세 번째 명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의 계명들은 약간 관념적인 데 반해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명이라는 점에서 율법의 정수라 할만하다.

안식일은 두 가지 전승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창조 전승이며, 다른 하나는 출애굽 전승이다. 출애굽기 20:8-11절에 보도된 안식일 규정은 옛세 동안의 창조 행위가 끝난 다음 일곱째 날에 하나님 이 쉬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해명되었다. 신명기 5:12-15절에 보도된 안식일 규정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앞의 전승은 생명 창조와 쉼이며, 뒤의 전승은 해방과 쉼이다.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짐승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참된 쉼을 지향하고 있다. 신명기 전승의 본문을 읽어보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하느님 야훼가 분부하는 대로 해야 한다. 옛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과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가 억센 손으로 내리치고 팔을 뻗어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야훼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신 5:12-15).

출애굽기(20:8-11) 본문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십계명 중에서 이렇게 전후 맥락을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안식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는 구절은 안식일 규정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노예들까지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러한 규정은 고대 문명 가운데서 여기 이스라엘의 십계명에만 지시되어 있다. 어느 신학자는 안식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한 정신유산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정확한 지적이다. 안식일 제도를 강제로 규정함으로써 노예들까지 창조와 해방의 기쁨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모든 인간,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노예나 나그네, 그리고 가축들까지 생명의 환희에 참여해야 한다는 유기적 생명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구조가 그것을 자율적으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한계 사이의 갈등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보려고 했다. 이게 바로 법의 정신이다. 안식일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은 결국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생명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지 그 안식일이라는 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은 곧 모든 ‘법’은 인간과 세계의 생명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쉼을 얻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생명정신을 온전히 살려나가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은 바뀌든지, 아니면 최소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막 2:27)라는 예수님의 아포리즘은 바로 이런 사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며 해석이다.

#### 바리새인과 예수의 안식일 논쟁

나는 오늘의 설교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전달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굳이 신학 공부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태도와 오늘 우리의 태도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외면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에 대한 예수의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가 칭찬한

세리와 우리를 일치시키고 있지만, 찬찬히 그 속내를 뜯어보면 오늘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은 일주일에 행한 금식과 십일조 헌금 행위를 자랑스레 쏟아내는 바리새인에 가깝다. 그 이유를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과 예수와의 갈등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제시해보자.

공관복음이 함께 다루고 있는 안식일 논쟁은 기본적으로 두 대목이다. 하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막 2:23-28, 마 12:1-8, 눅 6:1-5)과 곧 이어서 예수가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장애인을 고친 사건(막 3:1-6, 마 12:9-14, 눅 6:6-11)이다. 누가복음은 그 이외에 두 가지 전승을 보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친 사건(13:10-17)과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자를 고친 사건(14:1-6)이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의 보도를 외면하고 두 가지의 독립 전승을 기록한다. 하나는 예수가 안식일에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을 고친 사건(5:1-18)과 성전에서 행한 안식일 논쟁(7:14-24)이다. 요한복음은 논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9:14).

각각의 본문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예수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상반된다는 기본 골격에서는 똑같다. 바리새인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예수 당신이 장애인들이나 만성 질환자를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할말은 없지만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라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치료하시오.” 비록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 뒤에는 어떤 음모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그 주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무에게도 책잡힐 일이 아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율법의 총체가 담겨있는 법이 아닌가? 치료도 좋고 자선도 좋지만 굳이 안식일 법을 어길 필요는 없

었다. 그것도 하루만 늦추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들의 제안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루를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죽거나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안식일 법 준수에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체면도 살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대안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예수는 안식일에 장애인들과 환자들을 고쳤다.

이런 예수의 태도가 나에게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비록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싸움을 좀 멀리 보고 가능한 한 충돌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했을 텐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중재안을 단호하게 배척해버렸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절대 이데올로기인 안식일을 해체한 것이다. 예수는 무슨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배수진을 친 것일까? 이스라엘의 주류인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예수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상황 판단은 약간의 생각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다볼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때 예수의 심정과 태도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너희들은 적당한 선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그치지만,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내가 안식일 법을 어겼으니,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소설을 쓰듯이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의 이 도발을 이런 방식 말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일이 있던 직후에 바리새인들은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처치할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한다.(막 3:6). 이 때가 바로 예수의 공생애 초기였으며, 그 이후로 회당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그는 일종의 반체제 인사로서 유랑 전도자의 길을 가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당하게 된 그 단초는 도발적 행동을 통한 안식일 해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율법과 복음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떻게 보면 작은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는 안식일 논쟁이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왔으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이 사건진행 안에 개입되어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 복음서에서 늘 예수와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별난 사람들일지 모른다고 예상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타가 인정할만한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높은 연봉을 받고 교회에 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정보도 많고 교양 만점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예수에게 적대감을 갖고 대할 정도로 인격과 신앙이 뒤틀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 안식일만 피해서 환자를 돌보라는 그들의 제안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알 수 있다.

그들이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를 처형해야겠다는 결단과 실천에 이르게 된 이 사태의 중심에는 일종의 ‘율법 지상주의’가 놓여 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이후로 1천 년 이상 내려온 종교전통인 율법, 그중에서도 안식일 ‘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식일은 고대 문명 가운데서 그 어떤 문명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그 안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절대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탓할 게 못 된다. 어떤 점에서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가치와 세계를 담는 틀

이며 그릇이라는 점을 그들이 놓쳤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율법이 답아내야 할 훨씬 상위에 속하는 가치는 곧 하나님이며, 생명이며, 자유와 평화와 해방과 쉼이다. 이런 상위의 절대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을 때만 율법은 그 존재 의미가 있지 그것 자체를 위해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안식일 법 자체를 절대화하는 ‘율법 지상주의’는 결국 그것을 지향해야 할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발견한다.

기독교가 자신의 교리를 절대화함으로써 지난 2천 년 역사 안에서 반생명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는 여기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재판,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종파 전쟁,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가한 만행 같은 것들은 부끄러움의 극치이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487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업적신앙과 교권주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절대주의에 빠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진정한 복음에 근거한 교회로 개혁해보고자 몸을 던진 마틴 루터를 따르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안다면 자기 절대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루터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훨씬 배타적으로 자기 절대화에 빠져 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을 때 명색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른다는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은 “그들은 양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체복무를 반대했다. 지난해를 어느 유명 목사의 설교집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들은 공식적인 예배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저주라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에이즈로 심판하셨다고 선포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거의 신경증적인 현상으로 고착되어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타종교인들의 평화 운동을 공격하고, 성적 마이너리티를 단죄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종교 방식이라 할 복음을 알게 되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와 직접 만나는 길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가?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구원으로부터 제외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던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 반역(反逆)이 복음의 세계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경쟁력과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그 역설의 세계를 내다보고 열어간다. 여기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권이라는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배타적 판단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오직 은총, 오직 믿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구원은 너무 어렵다는 게(업적 의) 다른 하나의 의미이다.

만약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을 억압적으로 규정하는 ‘율법 지상주의’가 아니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에 관심을 집중시켜야만 할 것이다. 칼 바르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율법은 단지 복음 안에서만 실효성이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이다.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위에서 언급한 안식일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바로 생명 지향성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막 2:27)는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법은 단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장치일 뿐이지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지배할 수 없

다는 뜻이다. 법은 법이고 생명은 생명이다. 왜 법으로 생명을 훼손 시킨단 말인가.

### 국가보안법과 인권

올법과 복음의 구도는 신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다.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어떤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지만 많은 법 전문가들이 생각하듯이 ‘법(法)실증주의’에 빠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 법은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결국 생명 자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은 일종의 칼과 같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생명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물론 내가 여기서 극단적인 ‘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 ‘법치’가 문명사회의 바람직한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법을 누가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을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의 질서를 최소화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더욱이 이런 정치와 경제 및 윤리의 근거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일종의 ‘법 만능주의’와 대결하려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유신헌법 시대에 신학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법조계에 관한 생각이 곱지 않다. 그 당시 누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야말로 법에 대한 지식을 가장 나쁜 방향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올해처럼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중심무대로 등장한 때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없었을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번 행정수도 이전 사건에 대한 현재의 결정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아무리 법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 사람의 세계관에 문

제가 있으면 법은 무용지물이거나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될 뿐이다. 법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한국의 실정법에 대해서 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접기로 하고, 다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에 대해서는 신학적 토대에 근거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하나도 없다. 다만 개정이나, 대체입법이나, 아니면 무조건 철폐인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만 두 가지 사실만은 아쉽게 생각한다. 하나는 위의 안식일 논쟁에서 살펴 보았듯이 율법과 복음, 법과 은총, 규범과 생명 사이의 차이점을 그들이 날카롭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만 기다렸다가 장애인을 고쳤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그 상황에서 예수가 거의 도발적으로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는 복음서의 보도에서 우리는 법과 생명 사이에서 어중간한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국보법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 악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철폐되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파괴한 국보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사안을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근거해서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해야 할 기독교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국보법 철폐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국가 지상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국보법이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안식일 논쟁과 결부시킨다면 안식일 법이 하나님 야훼 신앙을 지켜준다는 논리와 똑같다.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해보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님보다 상위에 있는

것일까? 인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말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국가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또한 알고 있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반인권의 실체이며 상징이라 할 국보법 철폐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들이 염려하는 국가 안보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부시에게 호소하는 따위의 행동을 복음의 이름으로 자행한다는 사실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연민에 앞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보법 철폐를 반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여기서 이런 남북 문제, 더 나아가서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국제질서,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역학에 관한 문제를 다룰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그것을 다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맥락을 꿰뚫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사회학적 요소들을 적절한 선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의 눈으로 이 사태를 잠시 들여다보자.

나는 이들이 북한을 향해 내보이고 있는 불신과 적대감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선입관에 의한다고 본다.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종교를 부정한다든가, 해방 이후 그들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다는지, 그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상이라든지, 북한에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말살되어 있고 굶어죽는 사람이 많다는 등등, 대충 이런 논리들이 그들에게서 나온다. 그런 논리 중에서는 옳은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논리의 옳고 그름보다는 이런 요인들을 이유로 북한을 상종 못 할 사탄의 앞잡이쯤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무의

식에 지난 날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재판, 또는 수많은 종파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선악이분법적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훨씬 본질적인 사태라고 생각한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이 오만불손, 자기들만 선하다는 이 자기도취,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자기 확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독점하고 있다는 자기착각이 이렇게 북한을 향한 끝없는 증오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신앙의 순수성과는 상관없이 선악 이분법적인 배타성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에게는 반인권적인 국보법이 예수의 사랑보다 훨씬 중요한 질서로 작용하는 것 같다.

## 조지 폭스의 일기

왜 조지 폭스의 일기인가?

금년 여름 ‘고전읽기’를 두 달 앞두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나, 아니면 <조지 폭스의 일기>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적지 않게 망설였다. 어거스틴의 책은 함께 읽어내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워낙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알찬 작품이라 이번 기회에 한번 소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고전읽기’ 모임은 혼자 눈으로 읽는 방식이 아니라 차례대로 운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해내기에 어거스틴의 책은 분량이 너무 많은 편인 반면에, 470쪽에 이르는 조지 폭스의 일기는 적당한 분량이었다. <폭스의 일기>로 잠정 결정한 다음에 일단 내가 몇 대목을 훑어보니까 돌아가면서 읽기에는 편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이 그렇게 충실한 것 같지 않아서 약간 찝찝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평소애 꽤 괜찮게 생각하고 있던 웨이커 교도의 수장이 쓴 일기라는 사실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다. 꼼꼼히 읽다 보면 지난 1회 때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나 2회 때의 <루터선집> 못지않은 영적인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약간 막연한 기대감도 이런 결정에 한몫 했다.

사실 정확히 계산해서 472쪽 짜리 책을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낸다는 것은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고는 힘들다. 더구나 이번 여름은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위가 아닌가? 원래는 이 더위가 한고비 꺾인 8월 말쯤에 모임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다음 학기의 강의 준비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몇 있어서 더위 문제를 무시하고 8월9일(월)부터 삼 일간에 걸친 일정을 잡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모임을 가졌던 1회와 2회

때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금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글을 써야 할 일들이 제법 밀려 있었기 때문에 좀 줄여서 3일의 일정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 체질 탓에 그런 대로 견딜 만했다. 그러나 실내 기온이 34-5도를 오르내리는 좁은 공간에 에어컨 없이 그저 선풍기 바람으로 견딘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내년에는 작은 용량이라도 쓸 만한 에어컨 하나 장만해두어야겠다.

조지 폭스의 책을 3일 안에 모두 읽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책 앞에 수록된 폭스와 그의 일기에 대한 제삼자의 평은 일단 제외했다. 그게 60쪽 가까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은 410쪽도 벅찬 분량이다.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읽고, 점심 1시간 쉬고, 오후에 4시간 읽는다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6시간이 확보되는데, 짬짬이 코멘트를 달거나 음료수 마시는 시간을 빼면 순전히 읽는 시간만은 4시간가량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계산과 지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루에 대략 100쪽 정도가 소화해내기 가장 적당한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20장(章)으로 구성된 그의 일기 중에서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잡는데 곤란하지 않을 범위 안에서 몇 장을 뛰어넘기로 했다.

### 조지 폭스

조지 폭스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일반 신자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별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나도 사실 그가 단지 웨이커 교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흐릿한 추정만 있었을 뿐이다. 조지 폭스가 이렇게 우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는 그의 신학적 사상이나 신앙 체험이 좀 별나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를 태두로 시작된 웨이커 교가 이렇다할 대중적인 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몇몇 교파만이 정통파이며, 그래서 세계 교회의 주류로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종

파의 주장은 아무런 반향을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런 선입관을 제거하고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직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일종의 마이너리티였던 사람들이나 그런 신앙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의 한 사람이 조지 폭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지 폭스의 일기> 앞표지 날개에 실린 짤막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조지 폭스(George Fox, 1624-1691)는 퀘이커라고도 알려진 친우회(親友會)의 창설자이다. 잉글랜드 레스터셔의 한 마을, 페니 드레이턴에서 태어났다. 그가 공식적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19(?)세 때 그의 종교적인 수업 또는 체험을 얻기 위하여 집을 떠났다. 그의 일기는 폭스 자신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퀘이커교의 발생에 관해서도 가장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는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열정이 또 하나의 정통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였다. 특히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청교도들이 각축을 벌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왕권이 축출되고 공화정이 꽃을 피웠던 격랑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조지 폭스는 그야말로 불꽃처럼 자신의 삶을 태우다가 친우회라는 일종의 소종파 조직을 남겨두고 67세라는 적당한 나이로 죽었다.

우리가 4세기 전에 살았던 인물의 자세한 내력을 살피는 일은 그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지 폭스처럼 철저하게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무의미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교육 과정은 그의 사상과 행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일기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 조직 폭스에 대한 평을 쓴 사람의 글에도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다. 조지 폭스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살았던 칼빈이나 루터, 또는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들의 학문적 훈련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져 있는 반면에 조지 폭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는 이 사실은 심중팔구 그가 이렇다 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나는 그 게 마음에 걸렸다. 학문은 자기의 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그것이 종교이었던, 예술이었던, 다른 인문학이었던 진리에 이르는 토대인데도 불구하고 조지 폭스에게서 그런 흔적이 없다는 점이 말이다. 이 사실은 그의 일기를 읽어가면서도 계속 확인된 바였다.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다고 한다.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순결함과 의를 알았다. 그동안 순결함을 지키며 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성실하라고 가르치셨으며, 두 가지 측면 즉, 안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밖으로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성실하라고 가르치셨고 모든 일에 나 예나 아니오 하고 대답하도록 나를 가르치셨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입에 거짓말과 변하기 쉬운 말들을 담아도 나는 모든 일에 예 혹은 아니오 하고 말해야 하며, 말을 조심하여 내가 하는 말이 은혜로 단련되어 향기를 풍기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건강에 좋도록 음식물을 창조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로 적당하게 피조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도록 가르치셨던 것이다.”(60쪽, 이하의 숫자는 본서의 쪽수를 가리킴).

조지 폭스를 한 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며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대답해도 좋을리라. 그는 도대체 어디서 전폭적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나 나타나는 이런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다른 진리도 역시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길도 역시 반드시 공적인 교육에 의해서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 가지의 이치만 배워도 열 가지의 이

치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지 폭스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일류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그런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훨씬 진리 자체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회가 형성한 교육 제도의 양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게도 하지만 그 반대로도 작용한다는 양면성 말이다. 또한 그런 교육 제도 안에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교육이라는 제도는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당위성을 갖지는 못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맺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공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영적 각성의 세계에 들어간 조지 폭스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략 19세가 되는 1643년 9월9일 출가했다. 그 뒤로 그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구도자의 길을 평생 동안 지속해나간다. 나는 여기서 그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성장해나갔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 경험을 축적해나갔는지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19세에 출가한 이후로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에만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의 신앙적, 인격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리라 본다. 특히 그는 자기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확보한 영적 감수성의 탁월성이 높이 드러난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비굴하고 아래 사람에게 교만하며, 약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처신을 하는 법인데, 조지 폭스는 오직 거룩한 영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한번도 흐트리지 않고 살았다.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따라잡기 힘든 놀라운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 올리버 크롬웰 방문

우리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그가 대략 30세쯤 되었을 때 자기보다 26살 더 먹은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을 만난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크롬웰은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함으로써 왕정의 뿌리를 뽑아내고 영국을 ‘공화 자유국’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이미 호국경(護國卿)의 지위에 올라 있던, 그야말로 그 당시 영국의 최고 실권자였다. 지금 우리는 조지 폭스가 크롬웰을 만나게 된 깊은 사연을 알 수 없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일찍이 청교도적 신앙경험을 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정치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던 크롬웰이 조지 폭스에게서 영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 추정해볼 따름이다. 폭스가 전하는 한 대목을 여기 인용하겠다.

“그래서 나는 호국경에게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값없이 전하였으며, 값없이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설교를 하며, 돈을 받고 예언하며, 대가를 받으며 설교를 하는 탐욕과 욕심에 찬 사람들로, 결코 충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리하였듯이 이제껏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 호국경은 몇 번이고 ‘참 좋은 말이오. 그 말이 맞소이다.’하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소위 말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전하여준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동일한 능력과 성신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성경과, 또한 사람들 간에도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능력과 성신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177).

조지 폭스는 그 뒤로도 크롬웰이 죽을 때(1658년)까지 여러 번 만났다. 그럴 때마다 폭스는 크롬웰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었는데,

이게 참으로 불가사의이다. 삼십대 초반의 방랑 전도자가 환갑에 가까운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할말을 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는 증거다.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롬웰이 갈등하고 있을 때 폭스는 그것을 거부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 일기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을 편집한 사람에 의해서 과장된 것인지 내가 판단할 길은 없으나 폭스라는 인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크롬웰도 역시 주변에서 폭스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폭스의 신앙적 순수성과 열정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비록 노획한 정치인이었지만 매우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크롬웰이 병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왕정이 시작되자 크롬웰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지 폭스를 음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그 당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가던 ‘천우회’ 모임에서 역모가 일어나고 있다는 고발이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지 폭스는 전혀 개의치 않고 왕 앞에서도 뚝뚝하게 자신의 신앙적 관심을 표명했다. 왕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찰스 왕 보십시오. 왕께서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은 칼로 들어 온 것도 아니며 전쟁에 승리하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살지 않으면 왕께서는 번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는데 왕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을 중단시키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신다면, 또한 신앙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법률들을 없애고 그리하여 그러한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을 해 나간다면, 국왕께서는 이전에 사라졌던 사

람들처럼 맹목적인 사람들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라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능력으로 뒤집어엎으시며, 용감한 행동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면서 억압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294).

폭스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면적으로 경험하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국경이나 왕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런 기준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비록 적지 않은 정치적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그런 모든 오해 및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제도 교회를 부정함

조지 폭스를 중심으로 한 ‘퀘이커 교도들’이 정치적, 종교적 시련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들이 영국 국교의 모든 체제를 부정한다는 사실과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한다는 데에 있다. 폭스는 십일조와 성직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목사들은 성경 어디에서 십일조를 금하고 있는지, 혹은 십일조 제도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히브리서 7장을 펴 보이며 십일조뿐만 아니라 십일조를 거두는 제사장직도 끝났다는 것과, 제사장직을 정하고 십일조를 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율법도 끝이 나고 이제 폐기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자 두 목사는 사람들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켰다.”(170).

이런 표현은 그의 일기에 반복해서 등장한다. 끊임없이 십일조와 성직제도를 부정하는 조지 폭스가 영국 국교회 쪽에서는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그가 부정하고 있는 이 두 요소는 바로 영국 교회를 지탱해주는 핵심이었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변함없다. 나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

서 시작된 기독교가 여전히 십일조 헌금을 유지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알가알부하지 않겠다. 아무리 원칙적인 면에서 극복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이 세계 현실 안에서 제도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기왕에 십일조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면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금을 의무로 강요함으로써 헌금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것이다. 성직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폭스의 주장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마틴 루터 역시 ‘만인 제사장’론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성직 하이라키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의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성직이 일종의 봉사 카리스마로 운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니까 더 이상의 언급은 그만두자.

다만 폭스의 주장이 원칙적인 면에서 옳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방향에 쏠림으로써 현실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의 주장과 조직에 담긴 영적인 에너지가 17세기 영국을 뒤흔든 신앙 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소멸의 길을 걸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웨이커 교가 어느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역동성이 위축된 것 자체만으로 폭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 성령의 직접적인 소통

조직 폭스가 종교적 제도권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격한 이유는 일단 그 당시 영국 국교의 정통주의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즉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불러넣음으로써 교회에 의존적이게 만드는 인간적 모습을 보았다는 데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성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다. 성직자 없이도 기독교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은, 또한 헌금 없이도 예배와 기독교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힘은 모든 기독교인들 각자가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굳이 목사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도 퀘이커 교도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성직자 없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예배도 역시 그런 설교 전문가 없이 회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드러진다.

나는 폭스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종교 전문가 없이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는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의 일기에 진술되어 있는 그 내용만으로는 그의 경험을 정확하게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언어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근본적인 사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두 대목만 인용해보자.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오,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란! 고통과 괴로움이 커질 때는 주님의 사랑 또한 지극하게 넘쳐나이다. 주님, 주님은 기름진 들판을 황량한 광야로 만드시며 황량한 광야를 기름진 들판으로 만드는 분입니다! 주님은 허물어뜨리고 또한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이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 영광의 주님이시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리나이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생명이요, 육으로 하는 것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70).

“나는 또한 어둠과 죽음의 바다가 있지만 무한하신 빛과 사랑의 대양이 어둠의 바다 위로 넘쳐흐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점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았으며 커다란 열림을 경험하였다.”(75).

조지 폭스가 경험한 ‘열림’은 일종의 돈오(頓悟)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세계가 점진적으로, 또는 갑자기 자기의 전체 존재를 휩싸는 경험이라 할 이런 열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조지 폭스는 이제 좌고우면 없이 오직 하나의 대상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조지 폭스의 이런 열림의 경험을 제삼자가 간섭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경험이라는 게 매우 심원하고 확실했다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것의 내용은 그의 일기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 흡사 모차르트 같은 사람에게 음악의 세계가 한꺼번에 열렸던 것처럼 조지 폭스에게는 십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그런 영적인 깨우침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

조지 폭스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경험은 누구에게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영적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의 신앙생활과 성서공부, 더 나아가서 신학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이런 경험도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나 가능하지 그런 노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흡사 옛날 흑백사진을 보듯이 흐릿한 영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도덕성과 경건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걸음(Anrede)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대개 일상과 자기 성취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일조차도 혁명적인 변화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비록 조지 폭스와 같은 영적 카리스마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희미하게나마 그런 ‘열림’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조지 폭스의 이 ‘열림’ 경험은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 경험이지만 자칫 신학 무용론에 빠질 염려가 없지 않



다. 만약 과거의 신학 역사를 부정하게 되면 조지 폭스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이단으로 빠져들 위험이 없지 않다.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험한 ‘열림’이 신학적 반성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단의 길을 걷게 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은 이런 두 가지 기준 사이의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조지 폭스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영적인 열림의 경험과 신학적 해석 사이의 긴장 말이다. 이런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 일종의 주관주의적 성령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 지성주의에 빠지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조지 폭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면서도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며, 비타협적이면서도 인간학적 토대를 상실하지 않았다. 이런 게 바로 비슷한 대중적 카리스마를 확보했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달랐던 사이비 교주들과 조지 폭스와의 차이점이다.

왜 모자를 벗지 않을까?

<조지 폭스의 일기>를 읽는 중에 반복되는 신앙 용어나 체험, 또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에피소드는 폭스와 그 일당들이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서로 인사를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로 모자를 벗었던 것 같은데 폭스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습관을 과감하게 거부한 것 같다. 법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불이익이 적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 행동이 우리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과 공연한 시뻘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폭스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적 태도로 여겨진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고 보며, 다만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신앙의 근본을 유지시켜나가려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를 벗지 않는 문제와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조지 폭스는 ‘맹세’나 ‘서약’을 완전히 배격했다. 그 당시로서는 관행이기도 하며 형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문제, 즉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는데도 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모자를 벗지 않는다는 문제는 성서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지만 맹세하지 않는 문제는 성서에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 5:33-37).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서약과 맹세를 거부하는 폭스의 태도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흡사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과 마찬가지로 퀘이커 교도들도 당시의 모든 풍습과 예의범절을 배척함으로써 상당한 오해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는 조지 폭스와 퀘이커 교도들은 근본주의자, 또는 극단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그들의 평화주의는 인류 역사를 폭력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

을 했다. 정통교회는 지나치게 현실과 타협하거나 더 나아가서 매우 세속적인 이유로 현실을 이용한 반면에 퀘이커 교도들은 자신들에게 그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들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을 과감하게 떨쳐내려고 최선을 다 기울였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길’을 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 자체가 무조건 옳다는 말은 아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는 지나치게 문화 우호적인 정통교회와 비교할 때 매우 단호하다.

조지 폭스와 퀘이커 교도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단지 평화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동물애호가이며 남녀평등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에 동물학대나 남녀차별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조지 폭스의 영성이 기독교 본질에 얼마나 깊이 천착해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쪽으로 깊이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쪽에서도 그만큼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듯 영성의 깊이로 인간과 생명의 깊이를 볼 줄 알았던 인물이 곧 조지 폭스다.

### 뵘족집

폭염지절에 흡사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에 그려진 순수 무구한 주인공 같은 조지 폭스를 간접적으로 만나보았다는 것만 해도 나에게 참으로 뜻 깊은 여름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비해서 매우 무기력한 나의 영적 세계를 돌아보면서 약간 우울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마저 감사한 일 아닐까.

마지막으로 교회성장주의에 매몰되어서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거의 잊혀진 오늘 한국교회에 조지 폭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자못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성교회를 향한 그의 주장에 극단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마저 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순수한 영

성에 의해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교회를 뽕족집으로 낮춰 부르는 그의 쓴 소리도 크게 불순하게 들리지 않으니 말이다.

“목사들의 세상적인 생각은 내 삶에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뽕족집으로 불러들이는 종소리를 듣기가 괴로웠다. 그것은 마치 목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시장의 종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최고의 주교에서 가장 낮은 사제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팔아, 설교를 통해 벌어들인 그 엄청난 돈이란! 세상에 어떤 장사와 비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값없이 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돈을 위해 일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나는 거저 베푸시는 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생명의 말씀과 값없이 이룩하신 화해를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후히 베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은 이전에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이다.”(91).

## 기독교와 사회적 약자

이 글의 제목 “기독교와 사회적 약자”는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샤머니즘 류나 극단적 밀의종교 집단이 아니라면 모든 종교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각각 종교 사이에도 입장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용산참사’만 해도 그렇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각각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거칠게 구분하면 가톨릭이 가장 강하게, 다음으로는 개신교가, 그리고 불교가 가장 나이브하게 대처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에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왜 가톨릭과 개신교로 대표되는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불교보다 더 적극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다음의 사실을 밝혀두어야겠다. 이 글은 여러 종교를 비교하거나 가치 평가를 내리는데 그 무게가 있는 게 아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필자가 그런 문제를 언급할 수도 없다. 주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와 그것의 해석인 신학에 근거해서 필자의 입장을 펼칠 수 있을 뿐이다.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말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기껏해야 구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뿐이다. 가난은 단순히 개인의 동정심에 근거한 구제의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하는데, 한기총은 후자의 차원을 무시한다.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편드는 이유에 대한 필자의 설명은 한국교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현상이라기보다는 신학적 당위에 대한 해명일 뿐이다.

위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의 고유한

세계이해, 역사이해에 자리하고 있다. 유대교의 구약성서와 기독교의 신약성서는 이 세계를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세상'이라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공간적인 관점이 강한 헬라어 '코스모스'와 시간적인 관점이 강한 히브리어 '에온'에서 이 차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상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이다.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런 세상을 구약성서는 '에온'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에온은 물러가고 새로운 에온이 다가온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유대교에서 묵시사상으로 정형화되었다.

유대의 묵시사상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철학이라 할 수 있는 종말론의 단초가 되었다. 종말론도 당연히 묵시사상처럼 세상을 시간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는 곧 인과율적 역사 개념을 넘어서는 관점이다.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어쨌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영원회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실현되는 시간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의 특징은 변화와 과정이다. 종말론적으로 열린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변화된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 변화를 위해서 투쟁하면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곧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뜻이다. 이런 신앙적 태도에 근거해서 기독교는 지난 2천년 동안 이 세상과 역사 앞에서 도전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서양의 역사에 혁명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독교의 종말론적 역사관에 놓여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하는 마르크시즘은 기독교 종말론의 세속화이다. 이에 반해 윤

회적인 불교와 무위적 노장이나 위계질서에 충실한 유교 사상이 중추로 작동되는 동양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했다. 박노자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동학혁명도 사실 농민들의 양반을 향한 항거였지 위계의 정상에 자리한 왕을 끌어내리려는 혁명은 아니었다. 동양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 성서적 근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성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짚어보자. 구약성서를 크게 분류하면 세 장르다. 첫째는 율법서, 둘째는 예언서, 셋째는 성문서이다. 각각의 문서들이 말하는 핵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사회적 약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율법서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이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억압을 받던 사람들의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낸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서기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다음이다. 종살이와 사회적 불의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사회악이다. 따라서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사회적 소수자를 보살피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원주민들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성서가 말하는 가르침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몇 구절만 인용하겠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인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 22:21-23)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두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줌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9,10)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신 15:12-14)

율법서만이 아니라 예언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더 노골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파성(Parteilichkeit)을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는 부자와 귀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별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애 5:28,19) “정의를 쓴 쪽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암 5:7) 이런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오늘 그 어떤 정치 이념적 해방 선언보다 더 신랄하게 불의를 행하는 부자와 권력자들을 비판한다.

구약성서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 소수자를 거의 편파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싸고도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일은 주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사람이 수단으로 다뤄지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난다. 성서 전통은 그런 일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으로 보았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가 것이다. 그것은 왜곡된 사회질서의 회복을 말한다. 모든 빛은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노예는 해방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참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지어 생태계도 삶을 얻어야 했다.

신약성서는 기본적으로 구약정신을 이어받는다. 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입장이 가장 확고하다.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는 노래를 부른다.(눅 1:52,53)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읽은 구약성서는 이사야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눅 4:18) 마태복음도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마 5:1-12) 이런 전통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다.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고전 1:26)

지난 2천년 역사에서 기독교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 문제를 대처했다. 하나는 구제활동이다. 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온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활동이다. 이런 전통은 개인윤리의 차원에서 가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정치투쟁이다. 정치신학과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주로 이런 입장을 취한다. 이런 전통은 사회윤리에 강조점을 둔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두 전통이 분리되어 있다. 소위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사이에서 벌어지는 노선 갈등이다. 이걸 건강한 교

회의 모습이 아니다. 구제와 제도 개혁은, 그리고 개인과 사회는 불가분리이다. 기독교인은 가난한 이들과의 정서적 연대에 근거해서 구제에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똑 같다는 말이다.

### 한국교회의 실상

‘현대종교문화연구소’ 측에서 “기독교와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의뢰한 이유는 위와 같은 뻔한 말보다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과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말할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뜻이다. 그래도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만 짚겠다.

첫째는 동성애자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정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에이즈’로 치신다는 말이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선포되는 실정이다. 둘째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들 문제이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신앙양심에 따라서 거부하는 이들은 대개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이다.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자는 주장을 거부한다. 필자는 한국의 주류 기독교가 보이는 이런 행태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성서의 기본 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전혀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 이외에 크고 작은 이유를 대충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기독교를 전한 초기 선교사들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미국의 값싼 복음주의 교회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오랜 일제식민 지배 아래서 피해의식이 깊어졌다. 남북분단 체제로 인해서 공산주

의에 대한 적개심이 신앙의 차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도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한편 한국교회는 구제 문제에서는 매우 성실한 태도를 취했다. 결식노인과 아동들을 위한, 또는 노숙자들의 쉼터 마련을 위한 구제활동에서는 에큐메니컬 진영이나 복음주의 진영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북한 돕기 운동에서도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나 불교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섰다. 심지어 기복적인 신앙을 뿌리내리게 했다고 비판을 받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양에 심장병 어린이 전문 병원을 건축하기도 했다.

#### 하나님 나라와 복지 문제

글머리에서 필자는 제목 자체가 이미 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에서 암시하지 않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정리하겠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적 지평이 가난한 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당위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복지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복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적 착상이다. 기독교 신앙은 휴머니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 구원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지의 모델을 북유럽 국가로 본다. 사람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그런 복지 국가가 전 세계의 국가들이 꿈꾸는 미래일지 모른다. 복지가 최고로 구비된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삶의 충만한 의미는 충족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태가 연루되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층이 없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을 수 없다. 둘째, 복지를 통한 모든 행복한 조건들도 영원한 게 아니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을 알고 있다.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상실감이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복지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마가복음 14:3-9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가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 향유 한 옥합은 300 데나리온(대략 2천만 원)이나 값이 나가는 귀중품이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옳았다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 구원은 가난을 복지의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데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순수하게 종교 생활에만 천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잠정적인 문제 해결인 복지 해결이 인류 구원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필자의 생각에 복지 문제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국가가 그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필요 없는 곳에 국가지출을 대폭 줄이고 복지 예산을 확장하도록 교회가 투쟁하는 것이다. 교회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만한 물질적 역량도 미미하지 않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이와 반대로 개인의 동정심만 자극하는 구제에만 기울어짐으로 결국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서 무책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 지성, 이성, 영성

###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의 각 교회마다 청년 신자들이 별로 없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의 나이 분포도를 그린다면 아마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잘룩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잘룩한 허리 부분이 점차 확대된다는 사실에서, 3,40대와 중,고등 학생층도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에서 한국교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3,40대와 학생회는 같은 정비례합니다. 3,40대의 자녀들이 바로 학생층이니까 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대구 시내의 모 교회는 5,6년 전에 6,70명이던 학생회가 지금은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교회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40대 교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논리가 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청년회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내가 관여하고 있는 <대구성서 아카데미> 운영위원인 김영옥 장로의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본인이 지도하던 청년들이 지금은 이미 3,40대가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영옥 장로의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그분이 지도하던 그 당시의 대학생들은 아마 전형적인 <386 세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한국 정치와 시민단체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 386 세대의 핵심 멤버들이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 나갔었는데, 이제는 발길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교회 외적인 요인이야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7,80년대의 군사정권이 끝나고 이제 93년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의 구심점이 느슨해 질 수 있

습니다. 비록 IMF라는 함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삶의 조건들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40대의 교육 수준이 그 앞 시대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나름대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죄인으로 다루는 종교보다는 자기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중심 무대로 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20대 청년기의 신앙생활이 3,40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외적인 것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대답이 못됩니다. 더구나 교회는 늘 이런 시대정신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과 3,40대가 줄어들었다는 이 하나의 현상만을 놓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담고 있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기침이라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가 만약에 깊은 기침을 한다면 심한 감기에 들렸다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기침을 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기침이 무조건 그 한 사람의 건강에 위기가 온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심한 감기에 걸린 사람은 이런 기침을 하기 때문에 이 기침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청소년들과 3,40대 신자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역으로 이렇게도 진단이 됩니다. 청년과 3,40대가 많으면 교회가 건강할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요즘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잘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풍토

지난 주 금요일(2월7일)에 <기독교사상> 편집부장 한종호 목사와  
 객원기자 박명철 목사, 두 분이 우리 <대구성서 아카데미>를 취  
 재하러 대구에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종호 목사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쓴 책을 하  
 나 건네주더군요. <전병욱 비판적 읽기 - 설교비평의 새로운 지평  
 을 연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 주간신문 <뉴스앤조이> 편집인  
 으로 있으면서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설교를 비판한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전형적인 386 세대의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  
 장시켰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전병욱 목사의 설교를 읽거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종호 목사의 책을 통해서도 대충 짐작  
 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70,80년대의 조용기 목사가 이제 2000  
 년대에 다시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현  
 대적 감각을 지닌 젊은 목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7,80년대의 한국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리 그레함의 엄격한 청교도  
 주의와 로버트 홀러 목사의 “불가능은 없다”는 책에서 알 수 있듯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천박한 인간학이 조용기 목사에 의  
 해서 소위 삼박자 구원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은 이분  
 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  
 은 지금도 역시 여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 특징을 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적 도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지상주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해서 전자는 자기부정  
 으로서 이 세상을 늘 성숙이원론에 근거해서 보며, 후자는 자기집착  
 으로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요소는 모든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자체만을 놓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이런 요소가 거의  
 정신적 질병처럼 극단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심리적 요소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덕주의는 한국 기독교에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었을까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TV도 없고, 별다른 재미도 없이 살 때라서 그런지 부흥회를 열면 여러 교회 신자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회의 설교는 거의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남의 집 과수원을 넘나들던 일부터 시작해서, 미주알고주알 잘못된 것들을 토해내게 합니다. 때로는 그 내용을 글로 쓰라고까지 합니다. 그 종이를 불에 태우면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고 믿습니다. 이런 정도는 양반입니다. 심지어는 심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옛날만이 아니라 요즘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윤석전 목사라는 양반도 학생과 청년 집회에서 그렇게 몰상식한 욕설을 많이 내뱉는다고 하는군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현상인 매조키즘을 이용한 대중선동입니다. 물론 이런 대중 집회에서는 일정 부분 파격적인 요소가 가미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대중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차원에 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요소입니다. 이렇듯 무식한 부흥회의 설교만 이런 도덕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세련된 도시 교회의 설교도 역시 그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심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신자들을 자기의 죄의식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새벽기도회에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죄의식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어둠을 속으로 끌어들이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신자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런 죄의식으로 찌들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이 병적으로 고착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만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성장제일주의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7,80년대에 모든 한국 교회는, 지교회든지 총회차원의 교회이든지 불문하고 자기 몸 불리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매년마다 몇 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명 신자를 늘리는 것이 지상 목표였습니다. 통합측 교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 해마다 몇 만 교회, 몇 백만 신자 운동이 연례행사처럼 펼쳐졌습니다. 개개 신자들도 늘 그런 식의 설교만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면 부자 된다는 식입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의 복음에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왔고, 신자들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단지 사람들의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입만 열었다 하면 외치는 선교가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위 <Missio Dei>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씀입니다. 이른 곧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역사들로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독점하고 있다는 듯이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열의 배후를 조금만 깊이 들여야보면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 욕망이 얼마나 철저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 현상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그만 두는 일들이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물론 잠시 섭섭하겠지요. 누구때문이라는 미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까지 한다는 것은 교회 봉사라는 것이 자기들의 욕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는 그야말로, 목사로 마찬가지로이지만, 섬기는 카리스마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이해타산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요소가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요소이기도 하고, 내적으로 병들게 해서 결국은 부실한 공동체로 남게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확대함으로써 그 불안을 벗어나려고 과도할 정도로 애를 쓴다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성취하는 데서 만족한다면, 그런 신앙이 오래 가겠습니까? 한국 경제처럼 상당한 부분이 거품입니다. 보통 때는 그럴듯하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런 거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성장이 멈추었으며,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교단을 불문하고 교회 개척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자립하기는 참으로 요원합니다.

### 과도기적 상황

오래 전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갱신될만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망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더 이상 좋게 없습니다만 그런 내부적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충격이 없는 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철학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과학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기존의 틀이 허물어질 정도로 혁명적인 것이 나와야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라든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차이 같이 전혀 틀을 달리하는 컨셉이 나와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사 분야만이 아니라 우리 종교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됩니다. 7,80년대에 도덕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신앙의 근본으로 믿고 살아온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그들이 죽거나 아니면 교회가 망할 정도로 혁명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는 요지부동입니다. 성서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다고 어릴 때부터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신자들은 신학의 <역사비평>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인 타당성과 합리적인 논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교회 개혁은 교회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앞서 예를 든 전병욱 목사의 경우처럼 여전히 7,80년대식의 목회와 설교가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또는 신성한 아이디어, 프로그램, 이벤트 목회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섰는데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7,80년대와 같은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급성장하는 교회에 흥미가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는 저저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맛을 똑같아도 어떻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 집은 장사를 잘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병욱 목사 교회를 찾아가서 한 수 배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겠지요. 신앙의 패러다임을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교회 부흥에 매달린다면 이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그리고 그 역사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르게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도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80년대의 신앙 형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나브로 힘을 잃어가는 중이며, 부분적으로는 7,80년의 왜곡된 신앙에 색다른 옷을 입힘으로써 잠시 시선

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7,80년대 신앙이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이제 기독교 본질에 부합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고기맛을 그리워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소돔성의 향수를 잊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조금 기둥이 되었다는 롯의 아내일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위에서 7,80년대의 왜곡된 신앙이 우리의 운명이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전체로 보나 교회로 보나 생존이 최상위 개념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생존을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때의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지요. 생존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비만을 염려해야할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7,80년대의 군사독재 정권이, 또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돌진근대주의가 우리의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정권의 등장을 합리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지나간 과거 역사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인간 삶의 본질과 민족의 미래를 보다 전진적으로 내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 사건이 이런 변혁의 단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노무현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해석하기 위한 일종의 코드로 읽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밀레니움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21세기를 맞긴 했습니다만, 국내 정치적 지형으로 보면 이제야 실제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가시화 된 게 아닐까요? 어쨌든지 한국교회가 앉아있는 이 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던 이런 변화의 물살을 탔습니다.

에클레시아 샘퍼 레포만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해야 합니까?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덩달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늘 변혁되는 공동체니까 시대정신보다 훨씬,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에서 보면 “에클레시아 썬퍼 레포만다”라는 명제에 충실해야한다는 점이 그 한 가지입니다. 루터의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개혁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점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종말의 지평에 근거해서 자기를 규정해야할 교회는 당연히 매우 높은 수준에서, 거의 무한정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사회 집단과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노동, 의료, 교육, 거주 등 인간의 모든 문제를 상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설정하고 있는 정치, 경제 집단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서 이런 인간의 행위들을 자극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자기 개혁을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미리 수행해야만 합니다.

종말론적인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종말론적 지평은 그렇게 아득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종말이 아무리 먼 미래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조금 앞에 있을 뿐이지 현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전혀 상관없는 초월적인 사건에 불과할 테니까요. 또한 종말론적인 시각은 반드시 거시 담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미시 담론을 뜻합니다. 거시는 늘 미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시도 역시 거시의 틀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두 시각은 한 사태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지평은 곧 지금 여기라는 지평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 신앙의 기본이며, 종말론적 개혁의 출발은 신앙의 기초와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좀 쉬

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외국어를 잘 하려면 우선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첼로 연주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역시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음악의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어느날 갑자기 장한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또한 기독교 개개인들이, 특히 오늘 기독교 청년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연습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7,80년대 교회가 왜곡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에 부신했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어쩌면 이런 기초가 부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초인 정의, 평화, 자유, 기쁨 같은 가치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신앙의 기초와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문제는 이 강의 앞부분에서 제기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매우 부실하게 된 교회 내부적인 원인을 밝혀보자는 그 질문과 그 대답이 곧 신앙의 기초와 본질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부신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고 말았으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미 1958/59년도 겨울학기 쥘리히 대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게르하르트 에벨링은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순수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겠습니다.

여하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순수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것에 큰 기대를 걸고 묻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더구나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든 일이다. 사실 나 자신도 이 강의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기대대로 철저히

캐묻고 겹해서 다른 문제까지 솔직하게 물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여하간 질문하는 우리는 잘못된 자명성을 한사코 고집하는 세찬 세력의 저항을 경험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따지면서 실제로 우리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면 하는 기대도 세찬 저항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움적이는 그 무엇,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섬광 같은 불가항력의 것을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 복잡한 시대에서 기독교 신앙이해에 필요한 새롭고 실제적인 모든 동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서두에서 이미 우리 물음의 모험적 성격을 말한 바 있지만, 그것은 우리 물음의 필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결코 오늘 긴급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해의 문제를 못 본 척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에벨링이 지적한 문제는 벌써 40 여 년 전 독일의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거의 같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줍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기독교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며,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오래 된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동굴 안에서 사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동굴 안에서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동굴 밖은 동굴 안과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구름, 안개와 비, 꽃, 나무, 색깔, 향기, 태양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동굴 밖에 세계에 대해서 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를 종교재판에 부쳐 화형시켰습니다. 플라톤은 이 사람을 소크라테스로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지요. 우리도 역시 어떤 본질에 대해서는 눈감으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본질에 대해서 침묵한 채, 기존의 전통만을 무조건 고수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오늘의 제목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기독교 청년들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 반지성주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아마 <반지성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도 이런 반지성주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종교재판은 이에 대한 아주 두드러진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타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모슬렘들에게 빼앗긴 기독교 성지를 되찾자는 명분이 있었습니니다. 이런 명분에는 단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 훨씬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참으로 종교와 정치는 인간의 문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파괴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둘이 손잡고 나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 준비는 바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 아닐까요? 대테러 전쟁이라고는 합니다만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양민이 희생될 수도 있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부시의 생각은 비록 그가 매주일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반지성적 신앙



인의 본보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중세기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였겠지요. 지금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가능한대로 이라크 전쟁을 늦추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무기사찰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부시는 당장 이라크를 요절내도록 유엔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그런 결의가 없더라도 자신들이 앞장서서 때려 부수겠다고 준비 중입니다. 반지성적인 십자군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교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에는 진리에 대한 탐구와 순전한 선교적 열정에 못지않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박해의 흔적이 많습니다. 수많은 물리과학자, 천문학자, 인문학자, 신학자, 또는 집시들이 종교재판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죠? 갈릴레오도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두 교수를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교수 면직(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종교다원을 주장했다는 이유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성을 박해하고, 스스로 반지성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반지성주의는 성서에 대한 오해에 근거합니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독교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기독교 믿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독교 패권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약간 예민한 주제를 조금 생각해보실까요? 여러분은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부정해야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요즘도 소위 <창조과학회> 소속된 사람들은 터키 지역에서 노아 방주의 잔해를 찾아보겠다면서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사건이 객관적 역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이야기는 구약성서만이 아니라 바빌론 신화에

서 많이 등장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신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성서 기자들도 역시 그런 고대인들의 자연관과 사유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설화들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계몽주의 이후를 사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사건을 역사로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지성적 맹신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일상적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이런 반지성주의는 매우 교묘하게 작용함으로써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기독교의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옳으니 그러니 너무 따지지 말고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교회의 주류가 그런 쪽에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은 아주 독특한 삶의 결단이고 체험이며, 모든 사물이나 이론들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인 점에서 이 말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 일방주의가 우리의 지성적 활동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몰아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은 않고, 안수 기도로 치료하겠다고 하면 이게 어디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통 교회에서도 이런 일에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처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뿐이지 속 내에는 그런 현상에 대한 부러움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속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7,80년대에

한국교회가 반지성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토양에서 생활하던 젊은이들이 지금 장년이 되어서 교회에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영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곳이 있다. 돈 몇 푼으로 인륜이 망가지고 천륜에 금이 가도록 알알이 자본주의적인 세상이지만, 수령자도 모르면서 한 주에 수천만 원이 자발적으로 헌납되는 탈자본주의적인 곳이 수도룩하다. 희한한 곳이 있다. 시간이 돈이라고 분초를 다투어 뛰어다니며 실없는 모임이라면 누구나 기피하는 세상이지만, 옛새를 꼬박 일하고도 쉴 줄 모르고 즐기치게 매주 수백 명 씩 한데 모여 별 생산성 없는 프로그램을 경건하게 진행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있다. 기이한 곳이 있다. 온갖 원심력으로 찢겨진 마음을 한 데 모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믿을 수 없이 견고한 구심력으로 못 사람들을 한 데 모으고, 냉소와 허탈이 만연한 세상에서 열정과 광기가 살아 번득이며, 이기적 보신주의로 살벌한 세상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쏟아 붓고도 득의한 듯 히히거리는 곳이 있다. 그러나 정녕 이상한 일은 그 놀라운 자산과 열정과 에너지가 여를 강물처럼 사회로 밀려들어가 평화와 연대와 정의를 위한 변혁의 힘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 필경 파편처럼 분분히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 아 교회여, 내 순정의 샘터였던 곳이어, 돌진적 근대화의 튀기나 속물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전국의 인문 세력과 견결히 연대하시라.” (한겨레21, 1999.4.15.).

우리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독설이지만 따지고 보면 옳습니다.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는 젊은 지성인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반지성주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인가요?

지성을 넘어서

아마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미 내가 강조하고 있는 지성의 한

계를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지성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근대주의의 그 지성이야말로 세계사를 질곡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지성을 경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경구는 이미 그 천박한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 지성의 축적으로 이룩한 현대의 삶이 비록 외양으로는 풍요를 구가하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궁핍하다는 점에서 지성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지성에서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의 양면을 보아야 합니다. 한 면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종의 계몽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보다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좀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지성을 갖춘 사람과는 최소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은 지식 자체만으로는 궁극적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봅시다.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함수관계나 기업의 메커니즘이나 법의 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지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은 그것만으로 끝납니다. 좀더 가치 있는 차원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을까요?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지성적인 집단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원리만 알았지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안일을 위

해서 유신헌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들은 우리 주변에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성이 늘 이렇게 불의하게 사용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성은 보다 창조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답은 이성입니다. 지성과 이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전문적인 언어학자나 인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전문가들이 볼 때 잘못된 관계설정이라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규정해보려고 합니다. 지성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지만 이성은 그 정보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은 단순한 앎이라고 한다면 이성은 그것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앎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이 훨씬 근원적인 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학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지성이지만 그 의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입니다. 변호사나 판사는 법에 대한 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술과 법이 나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있는데 이성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비록 지성적이지 않더라도 지성적 이면서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바람직하고 의미 있게 살아 갑니다. 이런 점에서 아는 것은 많지만 이성적이지 못한 대학교수보다는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분수에 맞도록 성실하게 사는 농부가 훨씬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이비 지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은 일단 접어두고 교회 세계만 보더라도 단순한 지성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성서와 교회 질서에 대한 정보에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빠삭한 사람들이면서

정작 비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이것저것 아는 것은 많았지만 예수와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노예라고 했으며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멀었으며,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노예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 영성의 세계로!

결국 신앙의 토대는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성주의도 아니라, 오히려 이성에 놓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지성과 이성의 차이를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 시대의 헬라어를 보면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보십시오. 공동번역은 “진정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루터번역은 “vernünftiger Gottesdienst”(이성적인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인데, 로기켄의 원형인 로기코스(이 형용사는 로고스라는 명사에서 왔음)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rational, 다른 하나는 spiritual입니다. 개역성경은 로기코스를 영적인 것으로, 루터는 이성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진정한이라는 뜻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은 그中间的 입장 같군요. 아마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성과 영성을 같은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헬라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바울 같은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이 두 개념을 하나로 보았다는 것입

니다. 그들은 왜 이성과 영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을까요?

직접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교회 안에서 영성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박 집 사님은 참으로 영성이 풍부하네요.”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이런 의미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원 출입이 잦고 철야기도를 많이 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온갖 신비로운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좀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흡사 족집게 점쟁이처럼 누구의 인생을 훤히 내다보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가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미리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위 <영발>이 센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영적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인용한 성서구절의 로기코스의 다른 한 축이라할 이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성이 건강한가 아닌가는 하는 검증은 바로 그것이 이성적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것에 가장 영적인 것이며, 가장 영적인 사람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영성은 바로 하나의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과 초대 교회는 왜 이성과 영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가에 대해서 답할 차례입니다.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성이나 영성 모두 사물과 사건의 근본에 관계되는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사실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물의 근본을 통찰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꽃이 있다고 합시다. 보는 사람마다 각각 느낌과 판단이 다릅니다. 꽃가게 하는 사람은 그 꽃의 가격을 생각하겠고, 꽃꽂이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떠오르겠죠. 식물학자는 그 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을까요? 시인이라면 한편의 시상이 떠오를 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제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그 꽃이라는 사물을

평가합니다. 그들 중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꽃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꽃의 생명 작용, 그 원인과 결과, 그것의 우주론적 의미들을 파헤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꽃으로 돈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꽃의 일부가 되어서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정신적 작용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종교에서는 늘 화두를 안고 수행합니다. “이게 뭐꼬?”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온갖 조화는 어디에 오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물입니다. 신기합니까, 아납니까? 지구상의 물질은 우리가 아는 한 기체와 고체와 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액체인 물이 가장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형체를 갖지 않으면서 고유한 물질일 수 있습니까?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면서 그 물의 느낌을 좀더 절실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다른 차원의 인식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헤르만 헷세가 쓴 <싯달타>를 보면 그가 강물을 보고 큰 깨침을 얻습니다. 지금도 인도인들은 인더스 강을 신의 젖줄기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보면 세례 받을 때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약간만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지구에 비해서 거의 무한대의 공간인 우주에서 물이 있는 곳은 거의 지구가 유일합니다. 아마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한다면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물이 제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방정식으로는 H<sub>2</sub>O라는 아주 간단한 조적으로 구성된 물은 태양과 지구의 사이의 절묘한 조화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물질입니다. 지구와 똑같은 행성인 금성은 태양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화성은 멀기 때문에 물을 만들어낼 수 없었으며, 잠시 만들어냈다가도 유지시킬 수 없었습



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현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요?

두 번째의 예는 쌀입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이야기 모음집의 제목이 <나락 한알 속의 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던 청년들은 장일순 선생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밥을 먹습니다만 그 쌀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산된 먹을거리이기 전에 우주론적인 사건입니다. 탄소동화작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과 탄소와 태양이 놀라운 화학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생명의 기초인 식물의 생명을 유지시켜나갑니다. 따라서 쌀 한 톨에는 1억5천만 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태양으로부터 광속 8분 동안 달려온 태양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쌀을 먹는 우리 인간도 역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태양의 자손입니다. 그 태양 에너지가 밑바탕이 된 식물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한 바는 우리 앞에 드러난 현상은 단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상 자체만이 아니라 훨씬 큰 힘이 그 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이 그런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그런 물질 현상만이 아니라 고통과 소외, 기쁨과 희열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죽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자기의 모든 삶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 수도사, 또는 도사라고 합니다. 일상을 꿰뚫고 있는 본질을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몇 마디 말로 표현합니다. 삶은 대몽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들의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뭔가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또는 위대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외면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의 작업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

적이고 정확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성과 이성온 상통합니다. 본질을 꿰뚫어본다는 점에서 이성과 영성은 같은 지평의 인간 작업입니다. 굳이 구별해본다면 이성은 좀더 분석적이며, 영성은 통시적입니다. 이성은 미시적이라고 한다면 영성은 거시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미시적으로, 가장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족 같은 말을 덧붙인다면 여기서 초월은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신선놀음 하듯, 뜬구름 잡듯이 자기 흥에 겨워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외면적 현상에 사로잡혀서 온갖 번뇌와 이해타산에 빠지지 않고 훨씬 본질적인 것에 모든 마음과 삶을 투자함으로써 참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역에서 많은 일로 분주하던 마르다에게 이르기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공동체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반지성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인 지성주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과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데, 이성적이며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호기심을 버리라!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퍼스는 누구인가?

이미 30년 전 신학대학교 학부생이었을 때 김정준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사놓고 띄엄띄엄 읽었을 뿐이지 독파하지 못해서 마음이 찢찢하던 차에 이번 대구성서아카데미 고전 읽기 모임을 통해서 이를 이를 수 있어서 기쁘기 그지없다. 김정준 목사님은 이 책을 1956년에 번역하셨는데, 요즘 새롭게 번역된 것들보다 훨씬 잘 된 번역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책은 절판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박명곤 씨가 번역한(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4년)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며칠간 읽기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었지만, 번역이 좀 서툴러 보여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도 토마스 아 캠퍼스가 말하려는 영성의 전체적인 맥락은 따라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번역자에게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이현주 목사님의 번역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한 번역도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닿으면 그 역본들을 찾아볼 생각이다. 물론 이 책의 원서는 그 당시에 신학의 언어라 할 수 있는 라틴어로 집필되었지만 우리의 번역은 모두 영어에서 중역된 것이다. 멀지 않아 라틴어에서 직접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우리에게 토마스 아 캠퍼스로 알려진 이 인물은 1380년 경 독일의 중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캠펜(Kempen)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대장장이였던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면 토마스 해멜켄이지만 캠펜 출신이라는 뜻으로 아 캠퍼스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는 12살 때 네덜란드의 데벤터에 있는 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1471년 6월

25일, 그러니까 그가 최소한 아흔한 살의 나이로 죽을 때 까지 평생 수도생활을 하면서 영성 훈련에 몰두한 인물이다. 아직 부모 밑에서 귀여움을 받아야 할 나이인 열두 살에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지 토마스는 1413년 서른세 살의 나이에 사제 직분을 받았으며, 1425년에는 수도원 부원장을 임명되어 새로 들어온 수도사들의 교육을 맡기도 했다. 해롤드 가디너의 설명에 따르면 토마스는 어린시절부터 지적 관심이 높았으며, 독서와 명상의 조용한 생활을 원했다고 한다. “나는 작은 책과 더불어 좁은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결코 휴식을 찾지 못했다.”는 그의 좌우명을 통해서도 토마스의 학문적이고 영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가 수도생활을 하는 형제단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서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널리 읽혀졌다고 하는데, 이 책은 토마스가 47살인 1427년경에 집필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1450년에 이미 250여 종류의 사본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는 700여 종류 이상의 사본이 남아있다고 한다. 최초의 인쇄는 1472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1483년에 베니스에서 인쇄되었으며, 1779년에는 대략 1,800여 종류의 책과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다.

### 호기심에 대해서

그건 그렇고, 도대체 토마스가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무엇일까? 대개의 신비주의자들, 혹은 영성의 대가들이 비슷하지만 토마스도 역시 한 기독교인이 영적인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에서서 거의 습관적으로 영적인 평화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매우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특별한 신앙적 세계를 가리킨다. 무엇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면서도, 또는 알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평화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대개는 교회의 조직에 묶이거나 어떤 종교적 열광 상태에 빠지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영적인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할 뿐이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영적인 평화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토마스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영적인 세계도 역시 전문적인 인식과 훈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일종의 ‘좁은 길’이다. 이것은 예컨대 음악경험이라는 것도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야만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는 사실과 비슷하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실제로 음악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이비 음악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분명하다. 굳이 설명한다면, 음악의 본질에 들어간 사람은 음악의 존재론적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지만, 그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이비 음악가들은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 내려고 부심한다. 이런 사이비 음악가들은 자신들이 음악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 사람들의 감수성에 의지한다거나 공연하게 과장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인간학적 노력은 아무리 산을 옮길만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온갖 수사학으로 꾸미는 일에 정신을 팔기 때문에 큰 열정을 보이기는 하나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되고, 그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열정에 사로잡히는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

기독교 영성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창조의 능력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존재론적 '자기계시'에 귀를 기울일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열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사로잡힌다. 교회당을 짓는다거나, 해외 선교사를 보낸다거나 복지관을 세우며, 혹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도덕주의적 우월감에 빠지면서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 열정을 영의 활동으로 착각한다. 이런 인간의 열정은 모든 종교 일반에 현상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스포츠와 연예 오락에도 약간 다른 방식이지만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로마 가톨릭 신자는 마리아 기도나 묵주기도를 하루에 백번씩 암송하는 것으로 대단한 영성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통일교 신자들은 문선명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 장미꽃을 팔면서, 혹은 대규모 국제합동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인간학적 열정에 의존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종교현상이다.

토마스는 이런 모든 시도와 노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만 우리가 내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동기화하는 '호기심'을 포기하라고 충고한다. 이 단락을 김정준 목사님의 번역으로 읽어보자.

나의 아들이야, 호기심이란 악에 주의할지이다. 유익이 없는 일에 분주한 사람이 되지 말지이다(딤후 5:13). 그런 것이 네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 너의 관심이 사람이 선하다는 일에 관한 것이냐? 반대로 악하다 함에 대한 것이냐? 그가 하는 말에 관한 것이냐? 그가 행하는 일에 관한 것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함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 함이 너의 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대 자신의 생활 전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롬 14:12). 그런데 왜 너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려고 드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되는 일 중에서 내 지식이 미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알고 그의 사상, 그의 계획, 그의 욕구가 무어인가를 알

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대한 관심에 너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대 마음에 평화를 찾으라.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머리 위에 항상 있나니 이는 내가 그를 다 알고 내 앞에서는 그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힘 있는 원조자만을 따르지 말고 만인이 즐기는 인기 있는 일이나 친구가 주는 특별한 사랑에도 그다지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모든 것은 혼란을 가져오며, 너의 마음을 불안으로 가득 채우나니 만인 내가 그대에게 임하기만 구하며, 너의 마음 문을 나를 위해 열고 있으면 내가 친히 말해 줄 것이요,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리니 그러니 항상 준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네가 힘써야 할 것은 겸손하게 되는 일이다.(3권24장)

#### 호기심이 왜 악인가?

우리 <고전읽기> 모임에서 이 대목을 읽고 잠시 생각을 나눌 때 어떤 회원이 말하기를, 토마스가 나쁘게 생각하는 호기심을 유아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것이다. 사실 어린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기울인다. 봄이 되면 왜 땅 속에서 새싹이 돌아나는지,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지, 왜 무지개가 뜨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사물과 사태에 대해서 호기심을 기울임으로써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것은 그 어떤 교육학적 이론이나 신학적 이론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그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호기심과 토마스가 말하는 호기심에는 차이가 있을까? 유아교육학이 말하는 호기심은 어떤 근본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토마스가 경계하고 있는 호기심은 결국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이다. 이 문제는 여전히 생각할 거리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접어두고, 토마스가 호기심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하도록 하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호기심은 대개 우리의 감수성과 연관되어 있다. 흡사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스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소녀들처럼 우리의 호기심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심리적 현상이다. 부동산, 주식, 홀쇼핑, 각종 루머에 솔깃하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뜻이다. 대리만족일 수도 있고, 백설공주 콤플렉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작동되는 우리의 감정과 심리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평화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일본의 젊은 아줌마들이 <겨울연가>의 촬영장소인 춘천을 방문하고, 배용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씩 추위와 더위를 참는다고 한다. 겨울연가와 배용준을 통해서 그들의 호기심이 자극되기는 하겠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공허와 허탈일 뿐이며, 또는 더 뜨거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사이버 소종파 운동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소위 교주는 이들 종파에 빠진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다. 교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교주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호기심의 대상이다. 교주의 손과 몸, 그가 쓰는 경전과 일용품, 손수건, 심지어는 그가 세수한 물까지도 신도들에게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 정통 교회에도 이런 호기심에 근거한 신앙 행위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크대거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행위가 그런 것들이다.

일상생활로부터 종교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이런 모든 현상들은 비록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토마스는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우정에도 마음을 지우고 말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토마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근거라고 배우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 토마스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의 속성을 조금이라고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쏟고 있는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들을 하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의 사랑도 궁극적인 사랑은 될 수 없다. 일단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부모는 궁극적으로 자식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자식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고집을 피울 때 따끔하게 혼을 내야하는지,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다. 다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은 경우에 따라서 자식을 파괴하는 쪽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행위를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존재론적인 차원에 갈 것도 없이 단지 사랑이라는 현상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게 분명해진다. 우리는 사랑하거나 사랑받다고 할 때 늘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대상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효심이 깊은 사람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분적인 관계

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 앞에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놓기 때문이다.

### 죄 현실주의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이 말은 곧 인간을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로 본다는 뜻이다. 겉으로 아무리 선한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창세기의 타락설화에서 보듯이 인간은 악에 의해서 유혹받기도하며, 유혹하기도 하며, 그것을 실행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매우 재빠르며 익숙하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과 그런 경향성이라는 건 대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본질이 된 성향인지 모르겠다. 성범죄라든가, 경제사범이라든가, 또는 폭력 같은 것들도 인류가 다른 동물들이나 자기들끼리 벌였던 생존경쟁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의 조상인 유인원들이 지구에서 생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침팬지 집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집단에서 가장 힘이 센 수놈이 나머지 모든 암놈과 짝짓기를 한다는 건 우량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에 의한 것이다. 이런 종족 보존을 위해서 수놈 침팬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사생결단이다. 아마 인간에게도 이런 생존 본능의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

왔겠는가?

이 말은 곧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인 품성을 지켜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에도 침팬지와 같은 생존 본능의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에 폭력은 거의 통제 불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악이라는 것은 그것의 가치론적인 평가를 내리기 전에 이미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폭력과 악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몇몇 종교적 교리나 도덕 교양의 강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뿐이다.

글의 흐름이 약간 옆으로 흘렀지만 성서가 말하는 인간의 타락, 기독교 죄론에서 말하는 원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인간 이해는 인간을 죄의식에서 고통 받게 하자는 게 결코 아니라 그것의 현실성을 직시하려는 일종의 인간 해석학이다. 이는 곧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숙명 앞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 아 캠퍼스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충고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그럴듯한 윤리, 가르침,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치우치는 한 인간은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친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렘 17:5) 전적인 신뢰와 깊은 마음을 바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때때로 당신을 반대하거나 당신에게 대항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도 내일이면 당신을 반대하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날씨가처럼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2권 1장)

결국 참된 위로와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겨야만 한다. 이 두 사실은 맞물려 있다.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끊어야만 하나님만을 희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둔 사람은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끼지 않는 법이다.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재물을 믿을 수는 없다. 사람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빠질 수 없다. 아마 여기서 좀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코 이원론적인 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마스도 역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혹은 두 가지 일의 선후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지금 기독교인의 영성을 말하는 중이다. 이 영성이 풍요로워지는 길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이다. 이 영성은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창조의 영인 성령,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앞당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한다는 말이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영적인 풍요로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참된 위로와 풍요를 누린 사람이 정치를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복지활동을 하든지, 그 이외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두 번째 문제이다. 토마스에 따르면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순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들을 찾는 노력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어리석음이다.

#### 계시 일원론

웬만큼 기독교 교리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설명에 대해서 그런대로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심각하면서도 예민한 상황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이라는 게 일종의 아포리즘(경구)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한다거나,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확연하게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내면적인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이런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말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은혜가 넘친다고 말이다. 성서를 많이 읽으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기도원도 많고, 성서연구 단체도 적지 않고, 큐티 공부도 많고, 심지어는 성서쓰기 모임도 있다. 우리나라의 설교처럼 간증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 간증이라는 게 온통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함정이 있다. 이런 방식의 은혜는 대개가 주관주의적 종교경험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흡사 여고생이 노총각 선생님을 사랑하게 된 것과 비슷하다. 자기에게는 경천동지할 큰 사건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유치한 환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주관주의적 종교경험은 앞에서 토마스가 계속 경계한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현상과 다른 게 아니다. 이는 곧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호기심에 머무는 것이다.

토마스 아 캄피스만이 아니라 모든 신비주의자들과 영성이 대가들이 말하고 있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신앙적 태도는 ‘기다림’에 있다.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

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세계를 약간이라도 맛본 사람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이는 곧 우리의 인식론적 작업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만 완벽하게 집중한 사람들이 곧 신비주의자들이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들겠나이다(삼상 3:9). 나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경고를 알아차릴 수 있는 총명을 주십시오(시 119:125).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신 32:1,2). 모세나 다른 어떤 선지자도 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소서. 모든 선지자들을 감동케 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밝혀주신 주님께 서 홀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그들의 도움 없이 당신만이 저를 완전하게 가르칠 수 있사오며, 저들은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나이다.(2권2부)

하나님의 말씀(계시)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대개의 설교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듣는 게 전제된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시인이 될 수 없듯이 성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 시인들이 언어로 무엇을 나타내기 전에 그 언어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듯이 설교자도 역시 설교하기 전에 먼저 보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설교는 계시의 지평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단지 자기 생각에만 머문 채 말재주로 무엇을 말하는 설교는 단지 도덕적 교훈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접어두기로 하고, 다만 아무리 비슷한 형식으로 쓰였어도 참된 시가 있고 거짓 시가 있다는 사실만 일러두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글의 제목처럼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침묵과 고독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경건한 영혼은 유익을 입으며 자라나고, 성경의 숨겨진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1권20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자들은 이기주의자들처럼 보인다. 옳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이기주의이다.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은 시나브로 이기(利己)와 이타(利他)의 경계 너머에 있는 참된 자유, 기쁨, 평화, 위로의 세계와 연결될 것이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다. 기독교인도 역시 이런 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어머니를 개관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그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다. 만약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정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있게 된다면 바람직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먹지말고 보기만 하면 된다. 아예 딱딱한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먹을 수는 없어도 언젠가 이가 났을 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자주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약간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을 인식해보고자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다. 우리들 중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성찰하면서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표현이 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그저 우주 공간 어디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표현을 종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끝까지 이런 질문을 묻고 늘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 1. 하늘은 공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만 **아니라 자주 하늘과 연관된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요 6:38,40).**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만에 구름을 타고 승천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믿었다. 이미 바울이 빌립보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땅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에 근거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초월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로마 정권의 억압이나 현실적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도 역시 이런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는 하늘을 향한 초월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속적인 세력에 대한 관심과 그런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최소한 18세기까지 유럽의 역사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모순이나 딜레마를 극복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며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하늘”이 무엇인지 가능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늘은 곧 우주의 공간을 뜻하는 것일까? 초보적인 우주 물리학을 알고 있기로 하더라도 하늘은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은 1광년 거리에 놓여 있는데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 것도 없고, 기껏해야 빅뱅 당시 생긴 흑암물질과 별빛뿐이다. 지금 인류의 우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늘

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 축소되고 있는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작과 끝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만이 확실하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구와 다른 종류의 생명체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는 하지만, 태양처럼 위성을 갖고 있는 항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있을 개연성은 거의 무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 현상이 없는 곳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수는 없다. 우리는 그런 우주 공간을 성서가 말하는 하늘, 혹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할 수는 결코 없다. 우리의 휴거가 우주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미선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정통 교회 안에도 하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없진 않다.

둘째, 성서의 하늘이 우주 공간이 아니라면 인간의 마음속을 가리키는 걸까? 언젠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나라는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긴 하다.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인간과 인간의 참된 만남, 또는 동료성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도 약간 지식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렇듯 실존적인 의미에서 하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하늘나라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신학보다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이 훨씬 하늘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셋째, 지상천국이 성서가 말하는 하늘일까? 안식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상천국론자들의 주장은 하늘을 이원론적으로 간주하는 정통 교회의 입장보다는 훨씬 그럴듯해 보인다.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해보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아니라 민중신학이나 생태신학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땅에 민중들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후천개벽설이나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의 구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들의 생각에는 지상천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그와 비슷한 구도가 담겨 있다.

이미 2천년 전에 언급된 말씀인데도 “하늘”이 무엇인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탓에 교회 안에서 이 개념은 제 멋대로 해석되었다. 그 어떤 해석학적인 설명 없이 막연하게 땅과 대별되는 이원론적 시각에서 언급되고 적용되었을 뿐이다. 흔히 일컬어지듯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또는 “영혼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 불확실한 것을 추상적으로 잡으려는 것으로 오해되었다. 즉 하늘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오늘의 삶과 역사 앞에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을 보인 기독교는 계몽주의 이후로 주로 자연과학자들과 휴머니스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명제로 그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하늘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성직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땅에 충실하라고 외쳤으며, “도덕 계보학”에서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죄의식에 기초한 도덕심을 떨쳐버려야만 인간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니체는 기독교의 하늘이 아니라 철저하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명을 강조함으로써 반 기독교적 운동에 선봉자가 된 것이다. 그 이외에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독교의 하늘이 인간의 삶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과 독설을 던진 사람들이 많다. 신이란 인간의 투사일 뿐이라고 말한 포이에르바흐, 어린애로 남는 자들의 환상이며 따라서 집단적 히스테리라고 말한 프로이트,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한 마르크스 등이 그렇다. 그들의 주장이 비록 기독교를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있

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현상하고 있는 비실질적 흔적을, 즉 하늘에 대한 이원론적 추상성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어야만 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이 매우 불확실하다면, 니체 같은 이들이 말하는 땅은 확실한가? 인간이 이 땅에서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달성한 결과는 구체적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나? 하늘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땅을 경작해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었나? 인간의 계몽과 진보는, 특히 현대의 생산성은 외면상 풍요로운 생명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털끝만큼도 나아지지 못했다. 하나님에게서 해방된 인간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이다. 그것이 정치 이념이었든, 자본주의였든, 세계 혁명이었던 상관없이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 인간은 노예로 삼는다.

이 땅에서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의 삶을 지탱해왔으며, 온갖 문화의 꽃을 화려하게 피웠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 아직 이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나 당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절대적인 삶을 경작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절대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지상천국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자. 인간이 이 땅에서 이런 방식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자. 병도 없고 굶주림도 없이, 억압과 미움도 없이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하자. 그다음에는 무엇이 남는가? 기독교의 하늘이 공허하다면, 인간의 땅도 역시 황폐하다.

과연 하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삶을 경시하는 종교적 기만이며, 인간의 오디프스 콤플렉스가 반영된 것이며, 인간적인 투사에 불과한 것인가? 물론 조직으로서의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의심받을 만한 일을 적지 않게 행했다. 신앙적으로는 하늘을 기다리라고 하면

서 실제적인 삶은 매우 영악하게 땅의 질서만을 따라가게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초월적이면서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다.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이 기독교 비판자들에게는 위선이며 자기학대로 비쳤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기독교 비판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일단 정당하다. 동시에 그들도 역시 인간 구원과 성취 문제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와 성서가 말하는 하늘이 기독교 역사에서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원래의 의미를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2. 하늘은 하나님의 은폐성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꽃이나 새, 또는 안개처럼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속이 시원할텐데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 아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이런 답답증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과 평화의 마음에 휩싸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또는 종말이 온 다음에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한가? 그 답이 곧 하나님의 은폐성(Deus absconditus)이다. 하나님

은 계시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은폐되어 있는 분이다. 성경을 구구절절이 꿰거나, 또는 지금까지의 모든 물리학, 철학에 관한 학문에 능통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서도 역시 하나님을 완전하게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증언되며, 이 거룩한 분을 직접 본 자는 죽는다고 까지 했다. 즉 못 볼 것을 본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사건이다.

사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듯 명백한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생명도 역시 그 궁극적 사실은 은폐되어 있다. 여기 민들레꽃이 있다고 하자. 그 꽃은 햇빛과 물과 탄소를 결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생산한다. 우리의 모든 먹을거리가 그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기초 단위는 햇빛이라는 말일까? 아니면 탄소, 또는 물인가? 그 모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생명공학자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설명은 현상에 대한 추상적 접근에 불과하지 근본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못된다. 오늘의 첨단 과학이 생명의 기원에 상당히 접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현상에 대한 아무리 많은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대인들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똑같이 무식한 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생명을 말하려면 그것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해명해야만 한다. 하이텍거가 질문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없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각 범주 안에서만 통용되는 주장에 불과하다. 하이텍거에 의하면 오히려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무엇을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존재(Sein)이다. 이 존재는 존재

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우리의 감각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절대적인 것은 은폐되어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명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노출되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은폐의 방식으로 노출되는 힘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물질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를 기초로 한 어떤 물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대 물리학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과 에너지의 결합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는 입자가 아니라 너무나 작아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핵과 그것보다 더 미세한 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의 핵은 원자를 대형 교회당으로 확대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찬송가 악보의 작은 보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간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핵마저도 역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 즉 물질 자체가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 존재, 물질의 은폐와 연관된 하나님의 은폐는 그렇게 어둠으로만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계시마저도 역시 완전한 노출이 아니라 은폐의 방식을 취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에서 자기를 은폐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신학이며 설교다. 바로 이 예수 사건에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토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 종말이 이미(schon) 선취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noch nicht) 상태라고 믿는다. 계시와 은폐의 변증법으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해석하고 구원론적 지평을 제시하는 중이다. 작은 예를 하나 들자면 씨앗과 꽃의 관계가 이와 같다. 씨앗에는 꽃의 세계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은

폐의 방식으로 숨어 있다. 그러나 씨앗이 없으면 꽃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관계는 계시와 은폐를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다.

### 3. 하늘은 부활(영광)의 세계이다.

근본적인 면에서 하늘은 니체나 프로이트, 혹은 포이에르바흐가 비판하듯이 인간 삶을 왜곡시키고 소외시키는 요설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추상적인 데 묶어두지 않고 참된 리얼리티와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힘이다. 또한 하늘은 이 땅과 대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땅은 현실이고 하늘은 관념이지만 결국은 동일하다. 땅은 생명의 질료이며, 하늘은 생명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두 세계가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낸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은 바로 부활을 가리킨다. 영광이라는 독일어(Verherrlichung)에는 주(Her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영광은 왕 같은 통치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부활은 그가 영광의 세계로 높임을 받았다는 뜻이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결국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왕처럼 살아가는 때이다. 그 때를 가리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한다.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종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일어난다고 본다. 우리가 영광을 생산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2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게 일어났던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생명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다만 소극적인 면에서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변화는 현재 우리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활한 예수님은 죽기 이전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제자들과 대화를 했고, 식사를 함께 했다. 즉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몸과 아무 상관도 없는 혼령이나, 혹은 기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영광의 몸은 현재의 몸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생명을 덧입는다. 비록 현재의 몸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예컨대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된다고 할 때 그 나비는 애벌레 상태의 그 몸으로부터 변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몸이 되었다는 것과 비슷하다. 애벌레의 상태에서는 나비의 세계를 도저히 인식할 수 없다. 사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비와 밑에서 올려다보는 애벌레의 관계가 서로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연속적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부활과 생명의 세계도 역시 현재 우리의 삶과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연속적이다.

궁극적 생명 형식인 이 영광의 몸은 오늘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생명을 선취했다고 믿는다. 즉 예수 사건에서 이미 하늘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기독교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공동체다. 예수 부활에서 어떻게 궁극적인 생명이 완성되었는지 설명해야한다. 특히 우리의 이런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은폐된 생명인 하늘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해나가야 한다.

## 정통과 이단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바라본 이단 문제-

필자가 1980년대 중반 현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의 일화다. 아주 성실한 통일교 신자 한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주일 공동예배를 비롯해서 수요성경공부 모임에까지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일 년 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는 다시 통일교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요즘 문선명 선생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꿈 운운 하면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다. 결국 돌아갔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한 분을 데리고 갔다.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다. 인격적으로도 진정성이 있고, 신앙적인 열정도 강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이단 문제를 다룰 때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은 다름이다. 정통 기독교 노선도 스펙트럼이 넓은 것처럼 이단들의 스펙트럼도 각양각색이다. 그 차이를 세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도관이나 통일교처럼 반(反)기독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이단들은 쉽게 구별이 되지만, 그 외의 수다한 반(半)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단들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대책도 쉽지 않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후자에 속하는 이들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일반 신자들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김기동과 박옥수에

대해서 잠시 검토하겠다.

### 김기동과 박옥수

귀신론의 김기동 목사와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비평한 글이 실린 줄저 <속빈 설교 깎찬 설교> 발간 후에 필자는 한국이단 대책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메일로 받았다. 이단에 속한 목사들을 정통교회 목사들과 함께 다룬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해명이 없을 경우에 문제를 삼겠다고 했다. 나는 이단에 대한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들의 설교만을 그대로 보고 싶었다. 그들의 설교를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세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복음에 대한 열정과 목회적 진정성

김기동과 박옥수는 이단 중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쪽에 속한다. 그들의 설교는 전반적으로 복음에 천착해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인정받아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재림주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즉 케리그마에 천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정통교회 목사들 중에서는 케리그마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다. 대신 값싼 기복주의나 도덕주의에 떨어진다. 교양이나 처세술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고 옥한흠 목사님도 문제로 지적한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토양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다. 원초적 복음에 굶주린 기존 기독교인들이 김기동이나 박옥수의 가르침에 솔깃해하는 것은 나름으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김기동과 박옥수의 목회적 진정성도 높이 사야할 요소다. 적지 않은 청중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개인이 담보하고 있는 목회적 진정성에도 있다. 예컨대

박옥수는 젊은 시절 목회를 시작할 때 신자들의 상처에서 나온 고름을 입으로 빨아 처리한 적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목회와 인격의 진정성이 위험하다. 이것이 왜곡된 가르침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신다. 인격이 아주 훌륭하시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냐, 아니면 건전한 인격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간단히 재단될 수 없다. 현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인격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 2) 신학 부재

인간적이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꽤 괜찮은 목회자들인 김기동과 박옥수에게서 이단적인 요소가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신학의 부재다. 신학의 부재는 결국 기독교 신앙을 주술의 차원으로 떨어지게 하거나(김기동),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인간의 실증적인 확신으로 떨어지게 한다(박옥수). 김기동은 “교리란 원래 미신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부정하고 귀신론으로 대체한다. 박옥수는 성서를 극단적인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그들이 신학을 부정한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신학이 없으니까 대신 개인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청중들의 종교적 욕망을 추수(追隨)할 수밖에 없다(포퓰리즘).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주관적 신앙경험의 절대화와 신앙의 대중추수주의이다. 이것이 청중들에게 어필하면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학은 이 두 왜곡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인식의 길이다. 신학은 진리의 영인 성령에게 의존하는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더 풀면 다음과 같다. 신학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역사의 경험에 우선권을 둔다. 기독교 신학은 어떤 한 두 사람의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2천년 기독교 역사가 축적한 영적 보고다. 집단적 영성인 셈이다. 개별 설교자(목회자)의 한계를 집단적 영성으로 극

복하는 것이다.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 바르트와 판넬베르크의 신학을 통해서 목회자 개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대중(민중)이 호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서지도 않는다.

### 3) 정통 교회와의 문제점 공유

김기동의 주술적 세계관과 박옥수의 실증주의적 구원론은 정통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의 목사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다. 필자가 보기에 윤석전 목사나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이들의 설교와 다를 게 별로 없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다. 그들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이 오버랩 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접어두고, 김기동과 박옥수의 신학적 특징을 개괄적으로만 정리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도 드러날 것이다.

김기동의 귀신론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역사가 아니라 주술의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이다.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세계는 신비이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보라. 태초는 아득하다. 하늘과 땅도 아득하다. 성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리킨다. 도대체 무(無)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 것들은 있고, 무는 없는가?’ 신정론(神正論)도 사실은 세상의 신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신학적 담론이다. 왜 무죄한 이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이들이 잘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 말이다. 이런 문제는 세상과 역사의 신비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욕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자유로 언급된다. 에버하르트 융겔은 <Gott als Geheimnis des Welt>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비밀은 곧 신비이다. 이런 차원을 못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김기동은 그 신비를 주술적으로 처리한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을

귀신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이원론적이고 주술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주술적인 신앙이해는 한국교회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김기동에 대한 필자의 마지막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김 목사가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역사가 아니라 주술의 차원에서 처리함으로써 결국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형해화하고 대신 귀신론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도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통으로 자처하는 설교자들의 정신세계도 역시 주술이 지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아, 내 마음이 영 개운치 않다.(기독교사상, 2005년8월호, “신앙의 신비, 주술인가 역사인가?”)

박옥수의 구원론은 김기동의 귀신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의 대중 집회가 열릴 정도다. 그의 논리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정통교회의 구원론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위 구원파를 대표하는 그의 주장은 구원의 신비를 실증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다. 이것은 구원론의 오류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간의 심리적 확신으로 훼손한 것이다. 그는 결국 구원 결정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구원 결정론이 칼뱅의 이중예정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칼뱅의 경우에는 이중정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학적 착상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오히려 열려 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박옥수처럼 구원을 실증적 범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천국상급론 등이 그런 예의 하나다. 박옥수에 대한 필자의 마지막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도대체 청중들은 박 목사에게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는가? 박 목사의 구원론이 일종의 종교적 엔터테인먼트로 작용했다는 게 그 대답이다. 인간이 이 땅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인 긴장과 불안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해결해 보려는 박 목사의 설교는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종교적 여흥과 다를 게 없다. 그 여흥은 구원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려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거둬들인 선악과이며, 그 끝자락에는 일반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구원론의 타락이 꿈틀댄다.(기독교사상, 2006년 3월호, “구원을 향한 과도한 욕망의 끝자락”)

엄격하게 말해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단들에게도 정통적인 요소가 있고 정통에게도 이단적인 요소가 다소간 불문하고 내재해있기 때문이다. 루터를 종교재판에 회부한 로마가톨릭의 오류가 교회 역사에서 반복되었다. 마녀사냥도 일종의 이단 논쟁이다. 지동설까지 종교재판에 처했다. 이단 논쟁은 양날의 칼이다. 기독교의 진리론적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패권적 행동일 수도 있다. 이단, 또는 타종파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관용으로 대해야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필자는 소극적으로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 교권의 차원이라면 가능한대로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만, 진리 논쟁이라면 치열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이런 분별 자체도 쉽지 않다. 그러나 성서와 기독교 역사를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분별력에 키운다는 의미로 신약성서가 기록되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 논쟁을 검토하자.

### 신약성서의 이단 논쟁

첫째는 영지주의다. 영지주의(Gnosticism)는 신플라토니즘의 일파로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 역시 영향을 받았다. 주로 요한서신이 그렇다. 로고스, 빛과 어두움이라는 메타포 등이 예다. 영혼불멸설도 영

지주의의 뿌리인 플라토니즘의 영향이다. 삼신론과 양태론 등을 거쳐서 핵심 교리로 자리 잡은 삼위일체론도 플라톤 사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기독교가 주변 사상이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과 교부들이 주변 철학과의 대화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는 증거다. 기독교를 독단론이 아니라 진리론에 근거해서 변증했다는 뜻이다. 기독교 신학이 주변 철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는 주변 사상에 영향을 끼칠 것은 끼쳤다.(판네프르크의 Theologie und Philosophie 참조)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에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은 퇴출당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은 기독교론에 있었다. 영지주의 교부들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소위 가현설(Docetism)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지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초창기에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결국 예수의 본질을 ‘vere Homo, vere Deus’라고 규정한 정통 교부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이 논쟁은 요한1서 4:1-6절에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가현설에 대한 요한의 비판은 극단적이다. 그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았다는 증거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로부터 삼위일체론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현설적인 입장에 따르면 예수와 하나님의 위격적인 긴장이 모호해진다. 예수의 위격이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만다. 삼위일체론은 삼위가 단순히 일체라는 뜻이 아니다. 삼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삼위일체론은 단일군주론의 극복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구원을 행하시고, 아들 하나님인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성령도 이런 관



계에 자리한다. 참고적으로 성령론에서 ‘filio que’(그리고 아들로부터) 논쟁은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 분리의 신학적 단초로 작용했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별 것 아니거나 목회 현장에서 별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모르는 소리다. 사도들과 교부들은 초장부터 치열하게 논쟁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역사에서 틀을 잡은 것이다. 그런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 경험이다.

둘째는 유대 기독교다. 초기 기독교는 대표적으로 두 파가 다뿔다. 하나는 유대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기독교(또는 헬라파)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기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 상황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편집 방향에 따라서 다루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꼼꼼히 살펴보면 두 파가 어떻게 다뿔었는지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예컨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다뿔다. 그들은 사도 외에 일곱 명의 일꾼을 뽑는다. 그들은 모두 헬라파들이다. 이 사건은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의 분파를 의미한다. 스데반과 빌립을 대표로 하는 일곱 일꾼들은 사도에 버금가는 활동을 했다.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는 사실 동일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뿔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단논쟁에 가까운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방 기독교의 태두인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온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대표자들이, 그들은 물론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와서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갈라디아 교우들의 신앙은 흔들렸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갈 1:6)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바울의 주적은 할레파들, 즉 유대

기독교다. 그들은 이방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토라와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신학논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대 기독교의 주장은 나름으로 설득력이 있다. 토라와 할례가 없는 교회는 자칫 도덕적 방종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 유대 기독교가 토라와 할례를 주장한 실질적인 이유는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과도기적이었다는 데에 있다.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나사렛 파’로 남으려고 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교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유대교와 척을 지면서까지 토라와 할례를 거부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이방 기독교는 유대교와 관계를 전혀 새롭게 설정했다. 유대교의 토라와 할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복음 공동체를 지향했다.(에티엔트 라크리매, 초기 기독교 형성, 참조)

바울은 유대 기독교의 주장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갈 2:4) 바울은 유대 기독교를 일종의 혼합주의로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되 유대교의 율법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라고 말이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경쟁 관계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비난했다. 당시 유대 기독교는 주류였고, 이방 기독교는 비주류였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의 주축인 예수의 제자들과 동생들을 상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힘들게 되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사실은 바울의 이런 어려운 입지를 가리킨다. 당시 바울은 ‘왕따’였다. 자기의 복음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어디선가 쓸쓸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살아났다.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져서 결국 소멸되었고, 이방 기독교는 배타적이라 할 정도로 복음을 순전하게 고수하다가 결국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로 부상했다.

요한일서가 적(敵)그리스도라고 가리킨 영지주의와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이라고 가리킨 유대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크게 심각해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양쪽 모두 예수에 대한 믿음만큼은 철저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것을 첨가한 것뿐이다. 만약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역사에 없거나,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을지 모른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진리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 전통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한다. 그게 목회 현장이기도 하다.

### 신학 무용론을 넘어

목회 현장에서 이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현장 목회자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전업 신학자와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전자는 신학의 문제이고 후자는 교회정치의 문제이다. 신학자들은 교회의 혼합주의적 유혹을 분별하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합주의는 쉽게 눈에 띄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세워진 적도 있다. 교회의 실용성에 치우치면 결국 혼합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요소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잠입해 있는지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것은 곧 신학 무용론의 결과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신학무용론이 팽배하다. 더 나가 신학해악론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학이 만능이고 지고지선이라는 말은 아니다. 신학이 교회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

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신학이 교회와 아무런 연관없이 자체 논리로 발전해갈 수도 있다.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그랬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신학을 ‘교회의 기능’이라고 했다. 신학은 교회에 뿌리를 두고, 교회에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옳은 지적이다. 신학자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이 바로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신학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먼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늘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칼 바르트의 이 말은 신학이 교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만약 신학이 교회에 아무만 한다면 신학도 죽고 교회도 죽을 것이다. 히틀러 나치즘에 대한 <독일 기독교인>(Deutsche Christliche)과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신학적 대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바르트 등이 중심이 된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Barmen Erkaerung)은 일종의 신학적 혼합주의인 나치즘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그리스도 이외에, 또는 그와 유사한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신학선언이었다.

교회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신학을 불신하는 이유는 신학과 영성이 다르다고 보는 데에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우침이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흔히 영적인 사람은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 그렇지 않다. 신학은 인간의 단순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이론체계가 아니다. 신학자들은 자기의 이론을 세우기 전에 이미 어떤 영적인 현실을 경험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참된 의미에서 신학자(神學者)가 될 수 없다. 신학(theos-logos)은 신의 로고스이면서 신에 대한 로고스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말을 거는 경험이 없다면 신학은 아예 불가능하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신학을 실제로 행할 수는(Theologisierung) 없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곧 영성이다. 영성이 없는 신학은 종교적 교언영색으로 떨어질 것이며, 신학적 토대가 없

는 영성은 인간학으로 변질될 것이다. 기독교 전통은 신학과 영성의 일치 가운데서 역사에서 성장했다. 기독교 경전을 비롯해서 모든 교리가 신학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옳다.

신학 무용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단 사이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왕도가 있는 건 아니다. 신학적인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해도 해결되지는 않는다. 최선의 길은 기독교 정통 신앙의 세계를 맛보고 깊이 아는 것이다.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앎과 자신의 일치인 돈오(頓悟)로 아는 것이다. 교회 자도자로 평생 살았다고 해서 기독교를 무조건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칼뱅이 말하는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 개념을 A4 용지 10매를 읽은 자리에서 쓸 수 있는지 자문해보면 된다. 보석감정사는 진짜 보석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고, 위폐감정사도 진폐에 집중한다고 한다. 바둑에서도 정석을 알아야 꼼수게 눈에 보인다. 최소한 사도신경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자. 그 세계에 들어간 깊이만큼 사이비 이단의 모습이 눈에 보일 것이다.

## 하나님 경험과 시원성

### 하나님 경험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온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뒤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 모세는 호렙 산에서 ‘모세야, 모세야!’(출 3:4)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이런 구절은 구약성경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 신약은 구약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거나 대화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대신 천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예수의 출생이나 바울의 회심 사건 등에 천사가 나온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니까 천사와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나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가?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생명(초월)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으로 작동되는 이 세상에서(내재) 살아가는 사람이 그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전수받았

다고 한다. 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출 33:20).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물로 알려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들리는 보도는 문학적 수사다. 사 6:1-5절을 보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상투스’ 찬송을 불렀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다.” 이런 문장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으로 보면 곤란하다. 그는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소명을 받았다. 그 소명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문학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험은 아예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고 간접적인 경험이다. 전체적인 경험이 아니고 부분적인 경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분만을 경험한 것이다. 1백만 개의 퍼즐 중에서 한 개 조각을 경험한 것과 같다. 한 조각이라도 분명히 전체 퍼즐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퍼즐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경험은 모순, 충돌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경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노하는 분으로 경험한다. 사랑이기도 하고 미움이기도 하다. 전능한

존재이기도 하고 무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탈출하게 만들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한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옴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신론 논쟁이다. 친구들은 옴의 고난을 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지만 옴은 그걸 부정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은 더 풍성해졌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고후 4:6절은 다음과 같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영광(헬: 독사)으로 나타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요 14:8절 이하에 따르면 빌립은 예수에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초기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예수만이 하나님 경험의 유일한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에 근거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이번 특강의 목적이 아니기에 간단한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제자들은 예수 사건에서 생명 구원의 깊이와 신비를 보았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다. 죄와 죽음이 예수를 통해서 극복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핵심은 생명 경험이다. 생명 경험이 곧 하나님 경험이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 생명체라는 말이다. 죽으면 생명이 없다고 한다. 기독교는 죽는다고 해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



으로 변화된다고 믿는다. 부활이 그것이다. 부활은 끝이 없는 생명(endless life)이 아니다. 끝이 없는 것은 끝이 있는 것과의 상대적 개념이라서 여전히 절대적인 게 못된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이다. 양적으로 늘어난 생명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이다. 생명의 양과 질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은 지루하지만 통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속도도 빠르게 느껴진다. 앞의 시간은 양적인 차원의 경험이라면 뒤의 시간은 질적인 차원의 경험이다. 앞의 것은 상대적인 생명 경험이라면 뒤의 것은 절대적인 생명 경험이다. 부활은 절대적인 생명 사건이다. 그것을 여기서 오늘(here and now) 어떻게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시원성(始原性)에 대한 경험이 그 대답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선포하고 완전히 의존했던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reality)이 바로 이 시원과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다. 하나님은 통치로서 존재하니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다. 후기 유대교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묵시문학적 형태를 띤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때가 되면 강력한 힘으로 시작되고, 이로 인해서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보았다. 예수도 이런 신앙적 풍토에서 생활했다. 이스라엘과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중요하다. 차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머물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어야만 현실을 의미 총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영적 시각으로 예수는 기존 유대교 권력자들과 용감하게 투쟁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뚫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시원적(始原的, anfänglich) 사유다.

시원은 시작, 근본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를 ‘태초’라고 말한다. 창 1:1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이며, 요 1:1은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이다. 성경 기자들은 세상을 지금 이렇게 현상하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원의 차원에서 보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원적 깊이 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시원적 깊이를 보려면 시원적 사유가 필요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시원적 사유는 “존재의 호의의 메아리이다. 그 호의 속에서 유일자가 자기를 밝혀주고 스스로 발생하게 한다. 즉 존재자가 있도록 한다.”(Was ist Metaphysik?).

### 성찬, 빵과 포도주

대구샬테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한다. 성찬식에서 필요한 물품은 빵과 포도주다.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몸과 피로 받아들여진다. 빵이 실제로 예수의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로마가톨릭교회는 화체설을 주장한다. 사제가 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는 축성을 하면 실제로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포도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개념인 질료와 형상의 관점에서 이런 교리를 내세운다. 빵이라는 질료가 예수라는 형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수의 몸이 된다는 논리다. 이 세상의 사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논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예수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소립자가 지금 성찬대 위에 놓인 빵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루터교회는 임재설을, 개혁신주의교회는 기념설이나 상징설을 주장한다. 어떤 입장이든지 빵과 포도주의 시원적 깊이를 예배에서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오묘하고 신통방통하다. 우선 밀이 자라

야 한다. 밀이 자라려면 최소한 물과 탄소와 태양빛이 필요하다. 흙은 모든 것의 토대다. 이런 요소들은 다 시원적인 것이다. 여기서 태양빛만 보자. 태양은 지구에서 1억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인 광속으로 달려도 지구까지 9분이 걸린다. 빛의 물리적 성질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모든 물리적 성질은 이 둘 중의 하나이어야 하는데, 빛만은 다르다. 물은 입자다. 그래서 앞에 유리로 된 담이 있으면 물은 통과하지 못한다. 빛은 앞에 유리가 있어도 통과하다. 그러나 유리가 아닌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빛은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한다. 태양은 8개의 행성을 지닌 항성이다. 지구는 세 번째 행성으로 금성과 화성 사이에 자리한다. 지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행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금성이다. 태양은 은하계 안에 자리한 평범한 별이다. 은하계에는 1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는 1천억 개가 있다. 우주가 더 큰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밀은 태양빛과 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3-4개월 자란다. 태양빛만 받는 게 아니라 밤하늘의 달빛도 받는다. 나비와 벌과 새들이 그들의 친구다. 간혹 요정과도 대화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이삭이 트며 결실을 맺는다. 이런 과정 전체가 신비다. 오늘의 첨단 과학이라 하더라도 밀 이삭 없이 순전히 실험 도구만으로 실험실에서 밀을 생산해낼 수 없다. 생명 현상은 주어진 것이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때가 되면 누군가 밀을 추수하고 제분하고 반죽하고 발효시켜서 구워낼 것이다. 성찬식에서 빵을 손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시원적인 것이다. 사물에 들어 있는 시원적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빵 한 조각만으로도 황홀한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런 시원적 깊이야말로 성찬의 빵이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의 실질적인 의미다.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오묘하고 신통방통하다. 밀과 마찬가지로 포도 역시 태양빛과 물과 탄소가 필요하다. 여기서 물만

보자. 물은 액체다. 지구에 있는 사물은 세 가지 형태를 띤다. 그것 자체가 신비한 현상이다. 행성이나 위성의 어떤 것들은 기체로만 되어 있다. 물이 있는 행성은 없다. 간혹 금성이나 목성 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지구처럼 물이 오랫동안 보존된 행성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메커니즘은 물을 필수로 한다. 외계인은 물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구에는 물이 풍성하다. 지구 표현의 대부분이 물이다.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이다.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주장들이 분분하다. 지구 밖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 45억 년 전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태양처럼 불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지구는 상전벽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된 행성이다. 생명의 가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물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시원적인 것이다. 온천욕, 설거지, 커피와 포도주와 맥주 마시기, 밥을 하고 국을 끓이는 모든 일상 행위에 시원적인 깊이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물 한 잔만으로도 황홀한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런 시원적 깊이야말로 성찬의 포도주가 ‘예수의 피’라는 사실의 실질적인 의미이다. 왜냐하면 성찬의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 생명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빵과 포도주는 지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물이다. 사물의 시원적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시원적 사유다. 이 시원적 깊이는 창조 신앙이 말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하셨다는 게 창조론의 기초다. 창조는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발견, 발명, 개량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창조가 무엇인지를, 즉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 아마 모른 채 인류 역사는 끝날 것이다. 지금도 창조는 보존되고 있으며, 종말

에 완성될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과학철학 교수 장하석은 바로 그 대목을 도형으로 정확하게 설명했다. 전체 검은 부분에서 환하게 빛나는 동전 크기의 원이 과학의 역할이다. 과학적으로 아는 게 늘어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다. 그는 물이 100도에 끓는다는 원칙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노년에 들어서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보였다. 물(物, Ding)은 사중자(Gevierte- 넷을 가리키는 독일어)의 회집이라고 표현했다. 잔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부은 것의 선물 속에는 땅과 하늘, 신성들과 사멸할 자들이 체재한다. 이 네 가지는 자체로부터 볼 때 하나이지만 함께 속한다. 그들은 모든 임재자들보다 먼저 와서 하나의 유일한 사중자 속으로 겹쳐져 있다.” (사유와 존재, 234쪽에서 재인용). 여기 내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 연필의 질료인 나무와 흑연은 땅에서 왔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온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이 활동했으며, 결국 연필은 해체된다. 이런 네 요소들이 연필이라는 사물에 모여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설명이다. 동화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에 사물의 시원적 깊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래서 코엘료도 『연금술사』에서 ‘모래 한 알이 우주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사물의 시원성을 독특한 시적 언어로 표현한 김혜순 시인의 시 ‘음식에 대한 예의’의 일부를 소개한다. 그 시는 ‘오래된 영화 <단포포>를 보면 일본 국수 먹는 법이 나온다.’로 시작된다. 이 시인에게 국수 먹는 것은 시원에 대한 경험이다.

... 다음은 음식 자체에 대한 예의  
 젓가락으로 국수가 담긴 표면을 어루만진다.  
 특히 고기를 건드려 주면서 어루만진다.  
 그다음 고기를 국물에 담가준다.  
 (그러면서 고기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존칭으로 기도한다.

면부터 먹는다.

후루룩 소리를 내어 예를 표한다.

면을 먹으면서도 애정을 담아, 고기를 응시하는 걸 잊지 않는다.

... 나는 내게 와서 내게 먹는 것이 된 것들의 두려움을 함께 먹는다.

그들의 두려움은 내 불안이 되었을 거다.

내 몸 속에 들어와 내 시간이 된 것들의 비명과 공포와 불안을 생각한다.

...

지구 안의 모든 사물은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무게를 지닌다. 장자는 하루살이와 코끼리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물을 숫자로 계량하는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국 사물의 시원적 깊이를 놓치고 있다. 그런 깊이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시급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만 떨어지는 삶은 결국 의미 충만성을 얻기 힘들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낙엽, 곤충, 거품 등등, 모든 사물이 전혀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랴.

#### 호모 에렉투스

한국교회에서는 창조론이 오해되기도 하고 독단에 빠지기도 한다. 자연과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긴다. 소위 말하는 ‘창조 과학’이 기독교 창조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거기에도 스펙트럼이 넓기는 한데, 가장 극단적인 입장은 젊은 지구론이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지구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마치 지구를 평평한 것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시각이다. 비전문가들에게는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 과학 용어와 개념을 나열하면서 진화론이 틀렸고, 성경이 과학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전파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개혁적인 교회 중에서도 창조 과학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다. 창세기가 말하는 6일 창조도 그대로 믿을 것이다. 이런 전근대적 행태에 근거해서 교회 밖의 안티 기독교 세력은 기독교를 비판한다.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다시 격렬하게 자연과학을 비난한다. 젊은 지구론에 의하면 공룡시대도 부정되고, 구석기와 신석기도 부정된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같은 유인원들도 부정된다. 호모 에렉투스(직립원인)에 대한 사전의 설명이다. “신생대 제4기 홍적세에 살던 멸종된 화석인류로 160만 년 전부터 25만 년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였으며,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의 직계조상으로 간주된다.” 나는 진화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증거라고 믿는다. 진화에 시원적 깊이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직립원인에 한정해서 살펴보겠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즉시 서서 걷지 못한다. 일정한 기간 누워 있다가, 힘이 생기면서 엎드리기도 하고 기다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선 다음에 발걸음을 조금씩 옮긴다. 더 먼 시간으로 가면 어머니 자궁의 양수에 떠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두 발로 걷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이 인간 진화의 긴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벼랑 위의 포뇨’라는 만화영화에서, 주로 앞부분에서 이를 재미있게 묘사했다. ‘포뇨는 푸른 바다에서 찾아왔어요.’라는 노래가 배경으로 나온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네 발을 사용하다가 두 발로 서게 되는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질학적 우연이다.

원래 사람과 침팬지의 공동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다른 동물과 경쟁하면서 살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동부와 서부에 지질학적 격변이 일어났다. 서부는 여전히 밀림이 계속되었고, 동부는 평야로 바뀌었다. 서부와 동부 사이에 높은 지대가 형성되어서 왕래가 쉽지 않았다. 동부에 머물게 된 이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포식자들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네 발로 기어 다니지 않고 두발로 서게 되었다. 두 발로 서면 일단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접근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진화의 과정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겠지만 직립원인이라는 정체성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불가역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직립원인이 된 다음에는 인간의 특징은 비약적으로 진화되었다. 뇌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성대가 자유로워져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직립, 이것은 인간의 시원적 깊이를 가리킨다. 까마득한 진화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사건이다. 로봇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이, 어쩌면 해결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로봇의 직립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로봇 개발자들이 만든 로봇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로봇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유치하게 보인다. 힘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세밀하지 못하다. 평지에서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계단을 올라가는 일은 더욱 힘들다. 언젠가 로봇의 기능이 더 발전하면 피겨스케이팅을 할 줄 알거나 테니스 시합을 할 줄 알게 될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농사일을 보자. 지금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기계 혼자서 할 수 있는 없다. 인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는 기계가 못하는 일도 많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의 임계점을 로봇이 넘을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알파고가 바둑 시합에서 인간 최고수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없는 거와 같다. 사람이 계산을 당할 수 없는 거와 같다. 공정하게 시합을 하려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이나 시동을 거는 일도 사람이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알파고를 대신해서 사람이 바둑돌을 놓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 두지 말고 바둑을 두는 현장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시합이 된다.

사람이 선다, 또는 달린다는 말은 지구 중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직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는 법이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보라. 뒤통거리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걷는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 어른이 아이에게 중심 잡는 법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 아이가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열 발자국을 걷다가 차츰 늘어나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닐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뛸 수 있게 된다. 기어 다니던 아이에게 걷고 뛰는 건 삶의 비약이다. 16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 아이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걷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인지지를 안다. 언젠가 우리도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이전까지 걷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게 좋다. 사실은 걷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촉감을 느끼는 것이 다 존재의 기쁨에 속한다. 인간에게 이런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더 시원적인 일은 없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시원적인 것은 존재론적인 능력이다. 빈부귀천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인식이 가능한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줄 모른다. 천민자본주의

이념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걷고 운동하는 것마저 그것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일종의 투자 개념이다. 혼자서 일단 빠르게 서는 연습을 해보라. 온 몸으로, 주로 발바닥에 중력을 느낄 것이다. 중력을 느끼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원적인 것이다. 지구와 몸으로 교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의 교감! 섹스도 기본적으로 몸의 교감에 의한 희열이다. 지구와의 교감을 통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시원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현대인은 걷기의 시원적 차원을 놓치고 산다. 지구와의 교감보다는 기계와의 교감에 더 익숙하다. 걸으면서도 스마트 폰에 존재를 맡기고 있으니 어찌 걷기의 영성에 들어가겠는가.

『나는 걷는다』 1~3권은 기자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프랑스 남자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60세가 넘은 나이에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중국 시안까지 12,000킬로미터를 자기 발로 걸은 이야기다. 나중에 프랑스 리옹에서 베로나까지 900킬로를, 그리고 베로나에서 이스탄불까지 2,000킬로를 더 걸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다. 거기에 가기 전에 국내만이라도 좀 걸어야하지 않을까. 불교 수도승들이나 기독교 수도사들도 걷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 걸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일단 걸을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하다. 다음은 짐을 최소화해야 한다. 걷는 것 자체에 목표를 뒀다. 다른 것에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아니 여기에는 목표 자체가 없어야 한다. 가장 극단적인 순례에는 삼보일배, 오체투지가 있다. 이런 순례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게 된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순전하게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제공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 의식이야말로 시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역사와 하나님

시원적인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세상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런 현상을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라고 표현했다. 누미노제는 말 그대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출 3:6). 중풍병자를 예수가 고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마 9:7). 두려워했다는 표현들은 성경에 자주 나온다. 하나님 경험이 왜 두려움일까?

하나님 경험이 낯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혼자 한적한 곳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외계인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사람처럼 생기면 안 된다. 얼굴도 없다. 달걀 모양이다. 주먹 정도로 작아졌다가 순식간에 코끼리 정도로 커지기도 한다. 어느 순간에는 불꽃이 되었다가 다시 바람이 된다. 이런 형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낯섦의 극치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진다. ‘전적 타자’라는 칼 바르트의 신학개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전적 타자(Totaliter Aliter)로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재유비로 해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외계인과 같은 형체를 상상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미 성경 기자는 그런 걸 암시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 경험이 계 1:13-16절에 이렇게 나온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

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경험을 한 이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17절).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사실적인 것으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경험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극단적인 상징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경험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도현은 시인이 되려는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것들과는 결별하라.’고 충고한다(『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 40쪽 이하). 시인들도 그럴진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낯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야말로 시원적 사유의 단초다.

성경 기자들은 이런 경험을 역사에서 찾았다. 하나님을 역사 경험으로 본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한다. 계 1:8절은 이렇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사를 초월한다는 뜻이다.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다. 다른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던 고대 왕들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한다. 화려한 유물과 건축도 일시적이다. 하나님만이 알파이며 오메가이기 때문에 ‘전능한 자’로 불린다.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성서기자들만이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본 것은 아니다. 그들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역사를 보았다. 이집트 바로의 마병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제국들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선지자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은폐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역사의 깊이가 곧 시원성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완성이 그것이다. 그 완성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마 25:31-4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다. 오른 편에 분류된 양은 자신들이 칭찬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못했고, 왼편에 분류된 염소는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복음서 기자들이 역사를 시원적 깊이로 경험했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사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역사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대다수는 인과율에 머물러 있다. 공부 잘한 사람에게 그만큼 대가가 가고,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해당되는 결과가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까지도 이런 인과율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징벌이 임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불순종한 사람이다. 예수는 이런 인과율적 역사관을 거부했다. ‘포도원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하루에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했으니 말이다. 역사는 결정론적 인과율이 아니라 종말론적 차원에서 개방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역사는 변혁과 개혁과 혁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종말 힘이 이미 현재에 은폐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개별 인생도 역사다. 지금 당장 결정되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 결정된다.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인생의 역사다. 이 인생의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서 대립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서 도반의 길을 걸을지,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행복한 조건이 나중에도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며, 지금의 불행한 조건이 나중의 불행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최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시원적인 것 중에서 가장 시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시원적 생명이다. 개인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의 결합으로 완성될 것이다.

#### [참고자료]

하이텍거- 왜 존재자는 존재하고 더 이상 무는 없는가/ 화이트 헤드- 리얼리티는 과정이다./ 장자의 호접몽/ 플라톤 동굴의 비유/ 색즉시공 공즉시색/ 도가도비상도/ 불립문자/ 줄탁동시/ 백척간두 진일보시방세계/ 바둑 복기/ 대나무 바람 소리, 기왓장 떨어지는 소리/ 호모 에렉투스/ 원소/ 블랙홀

『카핑 베토벤』 귀 먹고 소음만 들리는 베토벤은 교향곡을 듣는다/ 베르디의 ‘레퀴엠’- 클라우디오 아바도/ 미겔란젤리 피아니스트 / 미겔란젤로- 버린 돌에서 피에타 상을 만들어낸다/ 영화 『블랙』 헬렌 켈러의 언어 경험

오인태 ‘시가 내게 왔다’/ 『어린왕자』 생뵈쥬베리/ 『소피의 세계』 노르웨이 작가 요수타인 가아더/ 『월든』 소로우- 각자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들으며.../ 코엘료 『연금술사』 / 『나는 걷는다』 베르나르 올리비에

루아흐, 프뉴마/ 태초/ 모세 이야기- 스스로 있는 자, Ich  
werde sein, der sein werde./ 에릭 프롬, 『To have or To be』  
/ 판넨베르크-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 바르트- tataliter alieter/ 누미노제- R. Otto/ 도  
미니크 수도원 영성- Ora et labora!

## 근본주의와 신학무용론

한국교회에 근본주의자들이 있을까? 실제로는 근본주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걸 표면에 내세우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편협하고 독단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대개는 그들은 보수주의자나 복음주의자로 불리기를 원한다. 어떤 용어로 불리더라도 근본주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임스 바(James Barr)는 근본주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근본주의자들은 성서 무오성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둘째,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을 극단적으로 배격한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만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근본주의 신학, 7쪽)

근본주의자들의 이런 특성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 배경은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감정, 교육, 윤리 등에 강조점을 두고 기독교를 변증한 신학운동이다. 그 이전 중세기까지 교회는 유럽 사회에서 종교 영역만이 아니라 학문, 정치, 예술 부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권위를 확보한 기구로 인정받고 있었다. 18세기 어간의 근대주의를 거치면서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교회는 근대주의 정신인 합리성과 계몽, 인문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자유주의신학의 시작이다. 한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마귀 사식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주의 덕분에 교회가 근대주의라는 태풍을 견뎌낼 수 있었다. 자유주의신학은 1차 세계 대전 전후로 힘을 잃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학운동이 변증법 신학, 또는 위기의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이를 대표하는 학자는 칼 바르트다. 바르트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주목하



기 시작했다. “Deus dixit”(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신학 모토였다. 개신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또 하나의 반작용 운동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근본주의다. 신학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신정통주의가 중도라고 한다면 근본주의는 보수 우익이라 할만하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현대정신을 부정했다.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떨어뜨린 학자로 불리던 칼 바르트마저 자유주의자로 매도했으니, 그들의 신학적 경향이 얼마나 경직되었을지는 상상이 가지 않는가. 한국의 대다수 대중 설교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근본주의를 복음주의와 구별한다.(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27-92 참조) “근본주의적 설교는 종종 천박한 주석에 기초해 있고, 근본주의는 어떤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성경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며,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창의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비복음주의자들의 연구를 조금씩 유용하는 경향이 있다.”(칼 헨리)는 사실을 인정한다. 복음주의야말로 기독교의 근본을 놓친 현대주의와 편협성에 빠져버린 근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맥그라스는 제임스 바가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놓쳤다고 비판하면서, 복음주의의 신학적 특징을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성경의 최고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성경의 주권,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 복음 전도의 우선권,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맥그라스가 열거한 복음주의의 특징은 매력적으로 비친다. 한국의 대중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이런 복음주의 노선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관에서 고리타분하지 않으면서도 케리그마를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로 자리를 잡고 싶어한다. 명분을 어디에 걸든지 중요한 것은 목회와 설교 행태이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처럼 근본주의적인 목회와 설교 행태를 보이면 비록 복음주의자라는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주의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학적 문제를 놓고 맥그라스 정도나마 치열하게 고민하는 설교자가 한국교회에 있거나 할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근본주의자라고 해도 좋고, 보수주의자나 복음주의자라고 해도 좋다. 그들이 과연 기독교의 근본을 보수하려는 생각을 할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근본을 지키겠다면 3-4세기의 교부 신학과 16-17세기의 루터와 칼뱅신학에 철저해야 한다. 교부신학의 집대성이라 할 삼위일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한 설교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단순히 삼위일체라는 용어만을 구구단을 암송하듯이 외칠 뿐이지 그 신학의 세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칼뱅이 말하는 ‘전가된 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장로교 설교자들을 찾기 힘들다.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기독교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수호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열정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열정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동력이라는 해괴한 사태를 아는 사람들은 알리라.

자칭 보수적인, 또는 복음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신학적 접근은 둘째 치고 최소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전통을 따르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하지 않겠는가. 예배만 해도 그렇다. 세계교회는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력과 예전을 지켜왔다. 한국교회는 이 귀한 전통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 건전한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에서도 예배의 예전과 성서일과와 교회력은 실종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청중들의 종교적 감수성에 눈높이를 맞추는 열린예배와 강해설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연속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회력 대신 온갖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자행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자들이 지키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본주의자들이 지키려는 근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19세기 자유주의보다 훨씬 강도 높게 인간 중심으로 치우쳤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전도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중들을 끌어 모아 교회를 성장시키

려는 상업주의 정신뿐이다. 교회성장 일원론적 목회 패러다임이 오늘날 모든 신학적 담론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교회 현장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근본도 없고, 보수도 없고, 복음도 없이,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신학도 없고 근본주의적인 목회 실천도 없이 오직 성장론만 절대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의 영혼은 마비되고, 부패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례를 드는 게 좋겠다.

### 천안함 사태 앞에서

지난 3월26일 밤에 대한민국 해군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앞 바다에서 침몰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5월20일에 침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군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것이다. 사고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린 어뢰 추진체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추진체가 북한의 것이며, 또 천안함을 침몰시킨 바로 그 어뢰의 것이라고 했다. 청색 유성 매직펜으로 ‘1번’이라고 쓴 글씨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보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후 24일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게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 배는 제주도 해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을 향한 모든 민간 구호물자 공급도 영유아용만 제외하고 중단된다. 국방부는 휴전선에서 대북 심리적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합조단의 발표가 있기 훨씬 전인 4월26일에 ‘한기총’은 침몰한 천안함을 재 건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아니 엽기적이라고 해야겠다. 한기총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

을 쳐서 낮을 만들 것”(미 4:3)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다. 그들이 특히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좋게 봐서 전력을 강화해야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앞장서서 군함을 건조할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퇴행적인 행태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니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일제 치하에서 천일 기독교인 명사들이 비행기 헌납 기성회를 조직한 일이 그것이다. 그들과 한기총의 이번 행동에 심리적인 일치점이 보인다. 천일 기독교인 명사들은 일제보다는 미제(美帝)가 하나님의 뜻을 더 거스른다고 생각했으며, 한기총은 북한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다. 전자에는 미제가 주적이었으며, 후자에게는 북한이 주적이었다. 주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화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마저 망각한 것이다.

필자는 합조단의 발표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걸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7월15일)까지 이와 연관해서 두 가지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되었다. 하나는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러시아가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부인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외교관례상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이해 당사국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렸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남한과 북한의 입장을 모두 담은 내용의 의장 성명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꼭 찍어서 범인이라고 주장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답 쫓던 개의 형국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아무개 목사는 7월3일 “기독교애국운동의 조직화를 위해 나라사랑운동에 앞장 설 5만 명의 기독교인 회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조직화된 좌파세력이 이메일,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전쟁이 난다고 하며 선거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게

다가 30, 40대의 40%가 천안함 폭파가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지금은 큰 위기다. 이대로 가면 다시 천북파파들이 설치하는 세상이 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당당히 외쳤다고 한다. 이런 유의 선동적인 설교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최소한 상식적인 식견이 있다면 의심이 가지 알 수 없었던 합조단의 발표를 목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에, 즉 레드컴플렉스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것이 심리적 기재로 작용해서 결국 세상과 역사를 바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미 지난 정권 아래서 흔하게 일어났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2003년 2월, 세문안 교회 이수영 목사는 “전쟁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대북문제에 관한 국민의 혼란과 우려는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의 발언 때문에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범죄국가 가 아니라 협상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비극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 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압살했으며, 두 번씩이나 남한의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124군 부대 특수요원들을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시키기도 하고 아웅산 테러를 자행했으며, KAL기를 납치 폭파하여 수백 명의 민간인을 죽이는가 하면 수백만의 백성을 굶어죽게 만들면서 대량학살무기를 개발 혹은 비축하기에 혈안이 된 나라가 범죄국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범죄국가란 말입니까? 이 발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준 우방 국가들을 배신하며 분노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 나간 발언을 하는 철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5년간이 너무나 불안하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은 범죄국가로 불리기에 충분한 집단입니다.(줄저 ‘속빈설교 꺾판설교, 228 쪽에서 재인용)

필자가 위에서 천안함 사태를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남북한의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문제로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잃은 것이 많다. 다른 하나는 이번 사태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할 설교자들이 역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왜곡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지난 6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6·25 전쟁 60년 평화기도회’에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간증자로 초대되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략하여 21세기 벽두를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부시를 평화 기도회에 초청했다니, 얼마나 파렴치하며 몰역사적이며, 부끄러운 일인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만천하에 까발린 사건이다. 이제야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의 속성이 정확하게 손에 잡혔다. 레드컴플렉스와 친미 사대주의의 심리적 착종이 그것이다.

이들이 이런 속성을 보이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없는 건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에 들어선 공산정권과 대립한 북한 기독교 인사들은 남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악의 화신이었다. 6.25를 전후로 인민재판식으로 처형당한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에 기댄 남한 정권 아래서 이들은 반공주의를 기독교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은 대개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다녀온 이들이다. 그들은 미국 문명을 기독교의 본질처럼 전

달하는 역할을 했다. 설교에서 사용하는 예화도 미국의 것이 대다수다. 심지어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 일류 국가가 되었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목사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기도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실정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모든 이들이 레드컴플렉스와 친미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순수하게 인도주의 정신으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이들도 많다. 그들은 민간의 북한 지원까지 막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신(新)냉전적 대(對)북한 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싸잡아 말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보수적이며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면 좋겠다. 이들은 성서 문자주의에 떨어져 있지만 인간과 세계를 보는 눈은 열려 있다. 필자가 이 대목에서 염두에 둔 근본주의는 북한을 무조건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식량 및 의료 지원을 ‘퍼주기’로 단정하고 북한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입장을 가리킨다. 한기총의 행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입장이다.

근본주의자들의 행태는 단순히 남북분단 체제와 친미적 틀에서 모든 게 해석될 수 없다. 그것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근본주의자들의 무의식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강박적 피해의식이다. 근본주의가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되었다. 근본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다. 자유주의로 인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신념이 과도하게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다. 자유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태세이다. 피해의식은 동시에 자기 절대화로 빠져든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피해의식을 견뎌낼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

원하는 세계 사람들의 원망을 사면서도 팔레스틴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피해의식과 선민의식의 결합에서 나온 결과인 것처럼, 한국의 근본주의자들도 자유주의 신학과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채 공격적인 행태를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욕먹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 근본주의는 신학의 거부다

근본주의자들의 피해의식은 자연과학에 대한 저들의 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중의 대표적인 분야가 진화론이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를 들를 기회가 있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가장 닳고 싶어 하는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였다. 그 교회는 ‘창조과학회’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고 있었다. 한국교회가 진화론과의 투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지 알 만한 사람은 알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똑같은 자연과학인데도, 지동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지동설까지 부정하는 극단적인 기독교 섹트가 미국 어딘가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는다. 근본주의자들은 왜 진화론은 부정하고 지동설은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필자에게는 불가사의다. 지동설은 실증적인 진리로 확인이 되었지만 진화론은 아직 그렇지 못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동설은 신앙에 아무런 결림돌이 되지 않지만 진화론은 창조론에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은 진화론을 거부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지동설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똑같은 과학적 사실이다. 전자는 물리학적 사실이고 후자는 생물학적 사실이다. 둘 다 기독교의 창조론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물리적 차원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만드셨고, 모든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직접 창조했다는 성경구절을 제시할지 모르겠다. 진화론에 따르면 결국 성경의 진술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이런 주장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즉 성서신학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구술한 것을 성경기자가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경험에 대한 진술이다. 그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고, 과학의 역사이기도 하다. 창세기의 창조 전승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순서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핵심이다. 창조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이 진화론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오늘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창조 신앙에 훨씬 가깝다. 최소한 학문적인 바탕에서 신학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동설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근본주의자들 외에는 없다.

진화론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진화론에도 여러 갈래가 있으니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적 체계도 일종의 가설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종말론적인 진리 앞에서는 교회의 가르침도 가설에 불과하다. 종말이 아닌 역사에서는 그 시대의 합리적 패러다임의 지배를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결국 종말론적인 진리와도 연결된다. 생명이 진화된다는 사실은 근현대 생물학이 동의하는 생물학의 패러다임이다. 지동설을 전제하지 않고 우주물리학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진화론을 전제하지 않고 생물학과 유전공학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이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서적이지도 않으며, 신학적이지는 더더욱

아닌 ‘창조과학회’ 유의 세계관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한국의 기독교는 보편적 진리 담론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세계교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근본주의가 한국교회에서는 다수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미몽이 주류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답으로 글을 마치겠다. 근본주의는 앞에서 짚었듯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무조건 거부하는 신앙운동이다. 근본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 고유한 자리를 확보한 신정통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적으로 비판할 토대가 부실했다.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문서로 폄하한다거나 기도의 능력을 부정한다고 비판할 뿐이지 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이어갈 능력이 없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렸다는 말처럼 그들은 자유주의와의 극단적인 대결로 결국 신학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결과는 신학무용론이다.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바로 그것이다. 신학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의 득세는 한국교회를 신학의 불모지도 만들고 말았다. 신자들은 신학적으로 성찰할 줄도 모르고, 더 나가서 그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세뇌당했다. 이런 상태에서 창조적인 영성은 불가능하다. 자폐와 퇴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근본주의와 신학무용론의 악순환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창조, 해방, 부활, 안식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참석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몸에 밴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주일공동에 배만큼은 빠뜨리지 않는다. 좋은 습관이요, 좋은 전통이다. 헌금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많은 헌금을 드린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리라. 주일 성수와 십일조 헌금은 한국교회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다. 막강한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로 한국 교회는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큰 교회는 모두 한국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한 여러 제삼세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선두를 차지한 현상과 비슷하다. 기독교의 성장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쌍둥이와 같다.

갓 태어난 유아가 크지 않는다면 병들었다는 증거다. 성장은 생명의 본질이다. 문제는 무한정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데에 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키가 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상이라 강박증이다.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 권이다. 개인 소득은 2만 달러 규모이다.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목을 매고 있다.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을 원한다는 것인지. 정치인들은 이런 욕망을 자극해서 표를 구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 지금보다 두 배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욕망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평생 돈 버는 것에만 마음을 둔 사람이 늙어서 그런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마음도 물리학

이 말하는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경쟁력 제고가 최고의 가치로 작동되는 시대정신과 투쟁해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 “예수 성공, 불신 실패”의 논리를 직간접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목회 패러다임이 총체적으로 교회 성장만능론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필자는 여기서 교회 성장에 대한 찬반 논쟁을 전개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충분할 정도로 논의되기도 했고, 또한 딱 부러지게 결말이 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성장만능론, 또는 성장일원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며, 신자들과 목사들이 영적 피로증에 노출되었다는 것만은 짚어야겠다. 교회 노릇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행하시는 존재론적 구원 사건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정신이 빠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연민이다. 영적 피로증이라는 말은 영적인 쉽이 없다는 뜻이다. 생명의 심층적 인식과 찬양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참된 안식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한국교회에 다름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모두 안식이 없다는 증거들이다.

다른 생각을 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매일 기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을 성찰할 필요는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에 유혹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거기서 참된 구원을, 즉 참된 안식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람은 자학에 빠져서도 희열을 느끼는 동물이기에 안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 많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정상으로 보이겠는가. 이런 문제는 종교현상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대신 교회가 말하는 안식이, 영적인 쉼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 좋은 보석감정사가 되려면 진짜 보석을 계속 관찰하라는 말이 있듯이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기독교 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기독교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주일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주일은 안식일이 지난 첫 날이다. 초기 기독교가 언제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는 문헌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기독교가 로마정부에 의해서 공인되고, 국교로 받아들여지면서 로마 황제가 주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로마 황제들에 의한 일이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결정된 4세기의 공의회를 로마 주교인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소집했다는 사실에서 기독교와 로마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 교리와 교회 정치가 총체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는 이미 그런 방식이 아니면 로마를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세력이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의 주일 예배가 자리를 잡았다. 뛰어난 정치인들은 늘 대중주의적이다.

기독교의 주일 예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과 연결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었다. 바울도 선교 지역에서 안식일을 택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기도처소를 방문하곤 했다. 안식일은 십계명 전승에 속한다. 십계명은 출애굽과 신명기에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출애굽기의 안식일 개념은 창조 사건과 연결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출 20:8-11) 신명기의 안식일 개념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 5:15) 출애굽기의 안식일 개념은 창조이고, 신명기는 해방이다. 창조 영성과 해방 영성이 곧 안식의 단초라는 말이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자.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시작된다. 사도신경이 창조 사건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결국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상투적인 것으로 떨어져버리고 말았다는 점이다. 창조는 추상적인 교리로 남고, 인간의 업적이 모든 삶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안식이 불가능하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목회나 신앙생활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자신들의 업적이 상위에 자리한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 노릇을 바로 하고 영적 피로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조 영성의 회복이 급선무이다.

안식일에 대한 출애굽 전승이 말하는 해방 역시 인간 구원의 근본이다. 구약성서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귀환을 하나님의 행위로 말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신앙고백이다. 주변 제국에 의해서 늘 시달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해방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또한 해방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아직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이미 당도한 하나님의 구원을 고단한 역사에서 희망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영성이다. 창조와 해방의 영성에 근거해서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그것은 곧 쉽이다. 노동

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종과 나그네도 노동을 멈춰야 한다. 심지어 가축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은 완전히 쉬라는 것이다. 십계명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의 노동해방을 선포한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그것을 모방한 것뿐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해방의 영성인 안식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경험했다. 그들은 이제 굳이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삼일 후는 바로 주일이었다. 부활 경험이 왜 창조와 해방 영성의 토대인가? 부활은 임사체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행하신 궁극적인 생명 사건이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creatio ex nihilo) 아무도 창조의 능력이 없으며, 아무도 창조의 실체를 모른다. 무(無)와 유(有)의 적대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 없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세상에서 반복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생명 사건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했다. 거기서 거들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의 출애굽 전승이 가리키는 해방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부활은 곧 죽음의 극복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케리그마이다.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경험에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베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인식하고 경험한 그들은 이제 주일예배 공동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런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른다.

창조, 해방, 부활 영성에서 말하는 안식이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경쟁 만능의 세상살이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나 하는 반론도 가능하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옳은 말이다. 일반 신자들이 지금 당장 수도승처럼 살 수는 없다. 아이들과 먹고 살려면 돈벌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무리 주일예배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단히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필자는 그런 치열한 삶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신앙의 기초이며, 신앙의 방향성이다. 자신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되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은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리고 거기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며, 신뢰이고, 결단이다.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인 칭의론에서도 분명해진다. 바울과 루터가 그렇게 강조한 칭의(稱義)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생각해 보라.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곧 생명이며, 구원이고,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자기의(義)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벼운 명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무거운 짐은 세상살이의 고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명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로워졌다. 무늬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근본이 달라졌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처럼 종교적인 수고와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여기서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다. 한 가지 예만 들자. 수 년 전에 아무개 목사가 쓴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만 보고 게으름에 대한 미학을 다뤘다고 생각했지만, 필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른 삶을 훈계하고 있었다. 훈계 정도가 아니라 뉘탈하고 있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사냐, 하는 투였다. 그는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명예를 강요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복음과 은총을 선포한 교회 지도자가 복음과 은총을 부정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서가 말하는 창조, 해방, 자유, 부활, 칭의, 종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닐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는지.

끝으로, 한 마디만 하자. 한국 교회는 일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신자들을 뱅뱅이 돌리듯이 쉴 새 없이 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몰아넣지 말았으면 한다. 모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안식일, 즉 주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 일에 시달린 사람은 정작 일해야 할 세상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교회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세상을 위해서 명실상부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

<성경과 목회>의 이번 호 주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이다. 이 주제는 롬 12:2절을 근거로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다. 세상, 또는 사람들의 평판에 치우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뜻이다. 이 문장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문장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이 문장에는 최소한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대, 변화, 분별이 그것이다.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단순히 교회 밖의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변화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아는 데서 시작하고 유지된다는 뜻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실제 목회 활동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것 없이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꾸준히 추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여기서 분별이, 또는 분별의 능력이 오해될 때가 많다. 이는 한국교회에서 영성이 오해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목사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런 훈련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흔히 하는 것들이다. 분별의 능력은 신학적 통찰력에서 가능하다. 영성도 기본적으로는 신학적 통찰력과 직결되어 있다. 왜 그런가?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조우를 통한 영적 경험이다. 도대체 영적 경험이 무엇인가? 성서는 이것을 매우 다양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

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통찰력이 필수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영성이 마치 주술적인 능력이나 단순히 열광적 은사주의로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신학적 통찰력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말이 옆으로 나갔다. 영성 문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신학적인 통찰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세대의 걸림돌(스캔들)이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가 여기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려한 것”이었다.(고전 1:23) 바울의 이 말을 단지 종교적 수사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목회자들도 이 말을 목회적 수사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수사로 끝나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변죽을 울리고 말 것이다. 목회자들이 말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영광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다. 경건의 모양으로만 남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바울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신앙과 삶의 현실이자, 세계의 현실이었다. 그의 운명은 바로 십자가에 놓였다.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가 가능할 것이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이것은 목회의 십자가 신학, 거꾸로 십자가 신학의 목회이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눈 딱 감고 질문하겠다.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대답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그 대답이다. 그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정답 자체보다는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는 마치 수학공부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수학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 공식에 이르는 과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

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개념에 이르는 것이지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과 신학도 비슷하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답에 이르는 과정을 아는 게 참된 신앙공부다.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자.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일까? 더 근본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일까? 복음서를 선입관 없이 읽는다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가능한대로 그런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다. 비록 순간적인 유혹에 불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예수도 인간이었기에 순간적으로 죽음이 두려웠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국가와 이념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 과감하게 나서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 그런데도 성서는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피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놓여 있을 것이다.

이 다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는가, 하는 그 다음의 질문과 연관된다. 십자가 처형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예수가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예수가 그것을 피해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종말에 세상을 완성할 분이다. 그런 절대적인 분이 한 유대인 남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위의 주장이 이상하게 들리는가? 아니다. 예수에게 십자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과 충돌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모든 설교와 메시아적 행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건이었다. 십자가는 죽음 자체이며, 실패이며, 좌절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하고 믿었던 예수에게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 그가 그런 상황을 피해보려고 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십자가 죽음의 절망과 저주는 당시 모든 이들에게 자명한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려한 것이로되”(고전 1:23) 이런 맥락을 모르면 십자가 신학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가 확신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다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것일까? 아니다. 그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훨씬 더 빛난다.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예수의 순종이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예수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지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었을 것이다. 예수는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그가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그것은 곧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솔직하게 묻자.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것을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한다.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지금 필자는 부활에 대해서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한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할 생각이 없다. 이미 십자가에 대한 설명으로 기독교 교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제시되었을 것이다. 부활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 사실만 짚겠다.

예수의 부활 현현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게 아니다. 만약 부활의 주님이 빌라도나 가야바에게 나타났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저자 거리에 나타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즉시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부활 현현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었다. 주로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하는 바울에 따르면 오백 여 형제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전 15:5-8) 예수의 부활 현현이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는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예수의 부활은 종말에 드러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에게 선취(先取)의 방식으로 일어난 생명 사건이라고 말이다. 그렇다. 부활은 종말론적 생명사건이다. 그것의 역사화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바로 이 부활에서만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필자는 위에서 십자가 신학과 부활 신학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도대체 이런 해명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위의 해명을 알고 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시할 대답도 알고 있을 것이다. 승리주의 목회의 극복이 그 대답이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십

자가 신학이 우리 운명과 목회에 그대로 일치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목회, 우리의 영성, 우리의 교회정치가 완전히 승리주의에 길들여져 있다.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승리만을, 그것도 세속적 승리만을 향해서 줄달음치고 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가 지상 목표가 되어 있다. 목사 모임에서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들에게 발언권이 독점되어 있다.

이 글의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이다. 바울이 말하는 ‘세대’의 특징은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부도덕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행태였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요청했다.(롬 12:1)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특징은 경쟁력 제고가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삶의 행태이다. 지금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기에 정신이 없다. 순진한 건지 분별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긍정의 힘>이 십자가의 복음에 먹칠을 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영적 삶의 수행적 과정을 해체하고 있다. 승리주의, 목적 지상주의가 결국 교회와 교회 사이의 영적 친교를 파괴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교권 투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 교회가 절대적으로 순수하거나 본질에만 천착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말이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세속의 가치에 부화뇌동한다고 하더라도 올곧게 영적인 수행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 훨씬 많지 않느냐고 말이다. 당신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목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모두 옳은 지적이다. 신학적인 통찰력을 갖추고 영적 시각이 예민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불안한 목회 현장에서는 개인 목회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를 펼치기 어렵다. 실패를 눈앞에 두고 그 길을

무조건 가라고 말할 수도 없다.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직한 목회를 하라도 다그치기도 힘들다. 교회 성장 여부에 바로 목사의 생존이 직결되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목회의 본질 운운은 속된 표현으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바로 이런 영적 위기에서 신학적 통찰은 더 밝은 빛을 발한다. 십자가 신학과 부활 신학은 다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의 처절한 실패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개입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이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은 어디에도 없다. 사회적인 성취, 목회적인 성취도 결국 구원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솔직하게 묻자. 100명 목회의 자리에서 500명 목회의 자리로 옮기면 목회자의 영적 자유와 행복이 보장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500명 교인의 교회를 1000명의 교회로 성장시키면 목사의 영성이 그만큼 깊어질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30평 아파트에 사나, 50평 아파트에서 사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십자가 영성에서만 본다면 목회의 실패야말로,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철저한 순종이 전제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 그렇다. 명실상부하게 완전한 실패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목회 패러다임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포퓰리즘의 목회에서 생명의 신비에 영혼이 공명되는 성령 지향적 목회로!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은 그 질문의 주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완료된 대답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찾아가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특히 교회가 위기에 떨어졌을 때 더 절실하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대하겠지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본질에 대한 질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가 위기에 떨어지고, 위기에 떨어짐으로써 본질을 회복할 마음도 들지 않게 된다.

이미 많은 이들이 언급한 것이기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글쓰기와 읽기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윤곽을 잡으려고 한다. 작년 20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해였다. 하필 이런 해에 예장 통합을 대표하는 명성교회에서 소위 부자 세습이 일어났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한국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이다. 명성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습을 실천했고 그 과정 중인 교회도 있고 앞으로 그런 교회가 여전히 나올 것이다. 명성교회는 이런 모든 교회를 대표할 뿐이다. 한편으로 보면 교회를 향한 그들의 열심이 지

나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우화처럼  
그들 모두가 펼친 하나의 블랙코미디다.

(이 글은 설교문이 아니다. 성경 해석도 아니다. 위에서 성경본  
문을 제시했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주석할 생각도 없다. 이 글은 일  
종의 신학 에세이다. 자유롭게 내 생각을 한국교회 이슈와 연결해서  
서술하는 것이니 글의 형식에 상관없이 읽어주었으면 한다.)

명성교회 사건은 한국교회에 내재한 모든 질병 현상의 압축이다.  
부자 세습은 하나의 결과이고, 더 근본에는 종교적 욕망이 기독교인  
의 영혼 깊숙한 곳에 파리를 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명성교회가 부  
자 세습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삼환 목사의 목회 리더  
십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아들 김하나 목사라는 판단에 놓  
여 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으나 그 말은 명성교회가 계속 메가  
처치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표출일 뿐이다. 교인들  
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교회에 허  
락하신 은혜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명성교회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주장은 대립되기에 한쪽이 다른 쪽을 설  
득시키기 힘들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해결은 안 될 것  
이다. 5백 년 전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교황  
청의 입장에서는 면벌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나름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독일 지역에서 면벌부를 판매한 사람이 방법론적으로 너  
무 지나치게 몰아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  
다. 예장합동에 속한 일부 교역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법과 신학의  
차원에서 아무리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도 명성교회는 자신들의 선  
택을 방어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 결과는 아무도 예  
단할 수 없다. 명성교회 사건이 한국교회에 공헌한 한 가지 사실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추하게 망가

지는 방식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한 것일까?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다양한 주제가 나온다. 교회에 관한 설명도 그 중의 하나다. 바울이 들은 전언에 따르면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바울 파, 아볼로 파, 게바 파, 그리스도 파로 나뉘었다.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나뉜 것은 아니고, 그런 특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고린도교회의 분열은 핵심적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점과 은사를 중심으로 한 열광주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점에 자리한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기면서 같은 교회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인들 사이에 차이점들이 부각된다. 그 차이가 확대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게 축소되면 다양성 가운데서도 일치된 모습을 견지할 수 있다. 바울은 그 일치를 위해서 고전 12:12-27절에서 소위 몸-교회론을 제시했다.

### 교회의 공공성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교회는 몸과 비슷한 구조다. 몸은 지체로 구성된다. 지체가 없으면 몸도 없다. 모든 지체는 몸의 구성 요소다. 지체는 개별 기독교인이나 개(個)교회를 가리킨다. 개별 기독교인은 개별 기독교인으로만 남지 않고 전체로서 교회를 구성한다. 지체가 몸에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개별 기독교인도 전체 교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스스로 분리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생명으로부터도 분리된다. 엡 1:22절과 골 1:18절에서 바울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는 몸이다.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몸의 유기성이다. 15,16절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바울의 이런 진술을 신앙적인 덕담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유기적 성격은 하나의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라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개별 교회를 뛰어넘어 전체 교회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론적 깊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런 교회 속성이 바로 보편성이다. 이 보편성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로 교회 전통이 된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즉 거룩성과 사도성과 단일성과 함께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이 속성은 서로 연관된다. 거룩하기에 사도적 전통에 서야 하며, 하나의 교회이기에 보편적이어야 한다. 사도적 전통에 근거해서 교회는 보편적이며 하나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거룩성이다. 우리말 사도신경의 교회 항목에는 ‘...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영어 사도신경의 ‘the holy catholic church’(거룩한 카톨릭 교회)에 해당된다. 여기에 사용된 catholic은 종파로서의 로마가톨릭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독일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eine heilige, allgemeine Kirche’(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로 되어 있다. 정교회도 인정하는 니케아신조의 우리말 번역은 이렇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따르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따르든지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에서 보편성, 즉 공공성은 필수다. 그걸 부정하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회의 공공성에 반대되는 개념은 한국교회에 속명적으로 얹혀 있는 개교회주의다. 교인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만을 교회로 여

기는 태도를 가리킨다. 노골적으로 다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나가는 교회와 다른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인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구체적인 개별 교회는 물론 중요하다. 그런 개별 교회가 모여서 전체 교회가 된다. 개별 교회가 살아야 전체 교회도 살고, 개별 교회가 건강해야 전체 교회도 건강하다. 다리와 눈과 위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것과 같다.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애착을 갖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로 짓는 경우도 있다. 교회가 종교적인 이익집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열정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일 것이다. 지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개별 교회를 향한 신자들의 열정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순기능을 근거로 개교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필자 역시 목회 현장에서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열정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교회의 보편적 성격, 즉 공공성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게 왜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내 교회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만 하면 다른 것은 관심 밖이다.

한국의 개교회주의는 분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믿거나 말거나 150개 이상의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런 분열 현상으로 인해서 보편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었고 지금도 훼손되는 중이다. 그것이 명성교회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한 비판을 명성교회 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일반 기업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성립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성립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따로 있고 당신들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는 명성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장통합의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에 관계되기에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교회가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일반 신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성교회 담임 목사와 예장통합에 속한 지도자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후대 한국기독교 교회사학자는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묻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분이시니 교회 지도자들은 역사 앞에서 책임 있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 교회의 단일성

본문 고전 12:14-27에서 제시된 몸으로서의 교회론이 가리키는 두 번째 관점은 가치의 역설적 성격이다. 22,23절은 다음과 같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면 우리의 아름다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의 설명은 사실적이다. 심장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어떤 지체보다 소중하다. 간이나 허파도 약해보이지만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지체다. 하찮아 보이는 손톱마저 몸 전체로 볼 때 다른 지체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바울은 교회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작은 교회를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로, 큰 교회를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봐도 된다. 바울의 교회론에 따르면 작은 교회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바울의 교회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큰 교회는 선이고 작은 교회는 악이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지 못한 목사는 교회 정치에서 발언권도 없거나 약하다. 실제 노회와 총회의 정치는 대형교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한 마디로 대형교회

에 돈이 많기 때문이다.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라는 신을 섬기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교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심각하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문제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난다. 교파 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대다수가 한국에 자리한다. 교파 불문하고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순위를 매기면 50개 중에 최소한 25개는 한국에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는 자랑한다. 동시에 한국 교회의 30%는 미자립이다. 대형교회는 한국의 재벌처럼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에 매진할 뿐이지 미자립교회 해결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 바울의 교회론에 비춰보면 한국교회는 비성서적이다. 자체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바울은 왜 작은 교회, 약한 교회가 더 귀하다고 말하는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작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큰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 비교한다면 큰 교회는 튼튼한 다리이고, 작은 교회는 발톱이다. 발톱이 병들었다면 발톱만이 아니라 다리도 똑같이 고통스럽다. 만약 다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다리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에는 연봉 2천만 원도 받지 못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1억 원 이상을 받는 목사가 있다. 이런 상황은 죄악이다. 이런 상황을 아무런 불편 없이 받아들이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목사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형교회가 보란듯이 해외선교사 파송에 천문학적인 현금을 쓴다는 것은 위선, 아니면 신학적인 무지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교회가 더 소중하다는 말을 공허한 신학 이론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은 훼손되며, 본질이 훼손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자주 언급되어 상투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교회성장 만능주의가 지금 한국교회를 귀신처럼 음습하게 지배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목사는 자신의 영성을 돌볼 틈도 없이 교회성장 이데올로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 솔라 피데의 영성!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로마가톨릭교회의 개혁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었다. 그 갈망은 영혼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22살의 젊은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가 되었다. 철저하게 금욕과 절제, 고도의 도덕성과 경건훈련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려고 했으나 그런 노력이 가중될수록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되었다. 그야말로 큰 깨달음인 돈오(頓悟) 경험이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는 구절에서 루터는 영혼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크게 경험한 것이다.

오늘 목회 현장을 이 ‘오직 믿음’ 개념과 연관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은 목회 성공,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일치에 놓여 있다. 목사도 물론 그렇고 일반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목사와 신자들이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도 믿음이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한다. 교회 생활 자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교회



생활은 루터 시대의 로마가톨릭교회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잘했다. 이런 교회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없었으며, 예수님도 유대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늘날 최소한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의 근본만 확실하게 붙든다면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교회의 공공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아니 재림한 후에도 극복되기 어렵다. 이런 개념의 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개교회주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나는 모른다. 어느 누구도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방법은 다 알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예를 들면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들의 연봉을 호봉제로 운영하면 어떨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구분하지 말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담임 목사에게는 수당을 좀더 제공할 수 있다. 교구 제도가 자리를 잡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에게도 꿈같은 이야기이다. 여기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없지 않겠지만, 사례비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교회 공공회성을 회복하기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사례비를 많이 받는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부자 세습이 부단히 시도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암담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카이로스)에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힘이 크게 떨어지는 순간이 갱신과 회복의 순간이지 않겠는가. 교인 숫자가 지금보다 50% 이상 줄어든다면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때가 멀지 않아 올 것이라는 조짐도 나타난다.

여기에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인 젊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가 오래 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기에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교인이 대폭 준다는 사실이다. 교인수의 감소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순간에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 바울의 개종은 사실인가?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면 옳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개종이라고 한다면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움직이는 건데, 바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신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 이유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조건 대립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 말하자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돌아선 게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유대교에서 유대-기독교로 돌아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기독교는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였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이들을 개종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회심은 개종이라기보다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이들의 영적 경험과 비슷하다. 유대-기독교의 위치에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명을 얻게 되었고, 그 뒤로 유대-기독교와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로 떨어져나가게 되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따라잡기 힘든 속사연들이 숨어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 공부ja 진행되면서 몇 번 더 언급될 예정이니까 이 정도로 접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 이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갈라

디아서가 어떤 사건에 대한 현장 보고서가 아니라 추후 진술이라는 사실이다. 바울은 지금 십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자신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입장에서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갈라디아서에도 어떤 사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지만, 어떤 사건은 주마간산 격으로 설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필요한 대목을 간추리거나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본문만으로 바울이 경험한 회심의 연대기를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역사성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그가 모든 역사적 사건을 꼼꼼히 진술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필자가 먼 훗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글을 쓴다고 할 때 여러 종류의 모임에서 행한 인문학적 성서읽기를 나름으로 서술할 것이다.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지나칠 수도 있다. 글을 쓸 당시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건들이 재평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의 갈라디아서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으로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영적 가치가 풍부해서 교회에 의해 경전으로 선택되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신학적 사유(영성)가 바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미숙하면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다.

#### 사람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변질을 막아보자는 데에 있다. 토라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갈라디아 신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복음의 변질로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복음의 내용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으로까지 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

들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볼 때, 물론 여기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다. 그는 예수의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다. 더구나 초기 기독교를 박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비판 앞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일단 자신의 이런 약점을 방어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건 불을 보듯 분명하지 않은가.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12절) 주장한다. 여기서 사람은 물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특히 바울을 적대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전승과 다르다는 뜻이다. 바울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만약 그의 이 말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용납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완전히 배척당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의 말대로 사도들과 예수의 동생 같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다면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교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초기 기독교의 전승으로부터 벗어난 셈이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그 맥락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칠게나마 몇 가지 관점만 지적해보자.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일정한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게바(베드로)나 예수의 동생들까지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사도의 반열로 인정하고 있다.(2:9)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는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

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 즉 복음은 사도로부터 속(續)사도로, 속사도에서 교부들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 모든 권위의 꼭지점에 사도들이 자리한다. 각각의 공동체는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 어떤 이들도 이런 연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전승 역사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전승의 역사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말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Offenbarung)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빛을 보았고, 못 들은 소리를 들었다. 빛과 소리를 누가 보고 못 보았는지, 누가 듣고 누가 못 들었는지는 사도행전의 진술에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이런 글쓰기의 착오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런 전승의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신비 현상 보다는 바울의 신적 경험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계시를 이런 특별한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부활 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한다. 부활의 주님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나타나셨다. 게바, 열두 제자, 오백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자신(고전 15:5-8)이 그 대상이다. 이런 정보를 바울이 어디서 얻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정보가 이미 초기 기독교 안에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다른 서신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것은 바울의 특별한 진술일 가

능성이 높다. 어쨌든지 바울은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마스쿠스 도상의 환상에 대한 사도행전의 진술과 부활 경험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진술이 동일한 것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롬 1:12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파헤치려면 한편의 신학석사 논문을 써야할 테니, 여기서는 이 정도의 문제 제기만으로 넘어가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해보자. 바울의 그 계시 경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특별한 환상을 말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말과 문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말과 문자는 물론 구약성서와 초기 기독교의 전승을 가리킨다. 바울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접했을 것이다. 처음에 그는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을 유대교와 대립하는 이들로 생각하고 박해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엔가 그는 예수 사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을, 또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흡사 어거스틴이 어느 날 “듣고 읽어라.”는 아이의 외침을 듣고 말씀을 읽은 뒤에 크게 깨우친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의 로마서주석 서문을 읽은 걸 어깨너머로 듣다가 크게 회심한 것처럼 말이다.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 말이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사태를 확실하게 규정해줄 수 있는 신학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계시”(Selbstoffenbarung Gottes)이다. 신론과 계시론이 결합되어 있는 이 신학용어를 소화하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용어는 주로 헤겔 이후로 바르트에 의해서 신론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의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계시의 동일화를 뜻한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시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곧 계시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충분히 소화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어느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구조에서는 하나님과 계시가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세계의 존재방식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 이런 사유방식이 아니라 계시가 곧 하나님의 존재방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은 계시로서 존재한다. 계시가 곧 하나님의 존재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분해서 생각한다. 하나님은 원래 따로 존재하고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펼쳐나가는 나라도 따로 있다고 말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실체론적 존재론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격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물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즉 그의 통치로서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로서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늘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존재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예컨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생각이 비약되면 신인동형동성론으로 발전된다. 하나님 자체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다. 흡사 바람처럼, 사랑처럼 실체가 아니라 어떤 힘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와 통치의 궁극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이런 점에서 그는 세계의 비밀로서(웅엘)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자. 계시는 곧 하나님의 자기 알림이다. 계시가 곧 하나님이다. 계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함부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 말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보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는 때이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듯 계시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판넨베르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로서 자기를 알리는 분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은폐된 분이다. 아직은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특별히 그의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그 계시가 선취적으로 발생했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진 숙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어떻게 참된 궁극적 계시인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인간들의 세계 경험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아야만 한다. 종말과 계시는 이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울의 계시 경험을 부활하신 분의 실질적인 현현경험이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들의 목록에 따르면 바울은 가장 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의 경험은 예수의 승천 이후인가, 이전인가? 이후라고 한다면 예수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했으며,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가 초기 기독교를 박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직접적으로 현현하신다는 말이 가능한가?

안타깝지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른 성서기자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신문기자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

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신앙경험을 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율렐린의 시(詩) 한편이 놓여 있다고 하자.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유한 언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언어는 그 시인의 고유한 세계를 담아낸다. 오늘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율렐린의 고유한 세계경험을 해석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 시에서 어떤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사실들을 끌어내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반(反)바울 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위기에, 더구나 사도적 권위가 근본적으로 손상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그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도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한 이들은 없었다.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도 개념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다. 사도 개념은 두 개의 기원이 있다. 하나는 시리아의 영지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유대교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초기 기독교에서 사도 권위가 각축을 벌였다는 뜻이다. 오늘 본문도 그런 흔적이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초기 기독교가 아무런 진리론적 근거도 없이 허구한 날 싸움질만, 즉 교권 투쟁에만 몰두했다는 말이 아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나 바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진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다만 입장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한쪽은 토라와 할례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쪽은 그것을 과감히 버렸다. 누가 옳은가? 지금 우리는 후자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그들은 모두 역사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승리자가 되었다. 역사의 승리자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필자가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진리 논쟁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역사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다. 그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가 역사적으로 심판한다는 뜻이다.

삼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한 뒤에 자신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유대교적 소명 방식으로 설명한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이다.(15,16절)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어법으로 강조한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복음과 사도권만이 아니라 소명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분명한 선을 긋는 이유는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예루살렘에 귀속된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 당시 아라비아에는 고도로 발전된 몇 개의 도시들이 있었다고 한다.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 아니면 자신의 소명 경험을 성찰하기 위해서 갔을까? 사도행전 9장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은 회심 후에 즉시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해를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연대기 서술에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는 조금 씩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일단 글쓰기가 다르기도 하고, 집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삼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게바는 만났을 것이다. 이는 그의 방문이 사(私)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삼 년을 아라비아 체류 기간으로 말한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바울

의 아라비아 3년처럼 우리의 내면을 심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건 잘못된 계산이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지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다. 여기서 3년은 그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간 뒤의 시간을 가리킨다. 참고적으로, 바울은 소명 이후에 영적 훈련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아예 처음부터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박해자였지만, 그것도 역시 입장의 차이였지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박해자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초기 기독교에서 사도권을 중심으로 각축이 벌어진 것처럼 복음 전파에서도 각축이 벌어진 것에 대한 수사적 표현이었다는 뜻이다. 필자가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은 못 된다. 신약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으리라.

소명 이후 삼년 동안 바울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 바울이 말하는 삼 년은 자신의 입장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입장 차이에 대한 암시가 아닐는지. 바울이 그걸 의식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런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라비아 체류까지 포함하면 삼 년도 훨씬 넘는 기간이다. 이는 곧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글쓰기 기법이 아닐는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십오일을 머문 뒤에 수리아와 길리기가 지방으로 떠난다.(21절) 수리아는 안디옥의 남쪽 지역이며, 길리기아는 안디옥의 서쪽 지역으로 그곳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다. 당시 기독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셈이다. 결국 유대 지역의 교회에는 바울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22절) 유대 지역의 교회에는 당연히 예루살

렘 교회가 포함되며, 그 교회들의 신학적 특징은 유대-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반(反)바울적이다. 이런 일련의 진행에서 본다면 바울은 유대 지역의 중심 교회와는 신앙적 왕래가 거의 없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그는 유대의 교회들이 자신을 ‘얼굴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비록 유대-기독교와 자신 사이에 신앙적 친교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이다.(24절)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역설적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유대-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가 극단적으로 배척했다는 점에서 역설적 표현일 수도 있다. 어쨌든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doxology)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결론 삼아, 글머리에서 한번 짚은 “바울의 개종은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자. 표면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게 분명하지만 당시에 유대교와 유대-기독교 사이의 차이라는 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앞에서 밝혔다. 이에 관해서는 성서 신학과 초기 교회사를 중심으로 훨씬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약간 다른 시점으로 들어가면 바울의 개종은 더 분명해진다. 그가 유대-기독교를 거쳐서 결국 이방인 기독교로 넘어온 시점이 바로 그것이다. 바울이 유대-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연결 끈인 토라와 할례를 완전히 거부했다는 것은 이제 유대교와 단절되었다는 의미이다.

바울의 개종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의 선교는, 특히 한국 개신교의 선교는 늘 개종을 전제로 한다. 불교 신자가 복음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들이 일종의 무용담처럼 교회 안에서 회자된다. 심지어는 불교 승려가 목사가 되었다

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해외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슬람교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개종이라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기독교가 그것을 목표로 전도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른다. 필자의 생각에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도, 바울도 공격적인 개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증언했을 뿐이다. 자기의 진리를 소박하게 표현하는 삶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공격적인 선교를 문제 삼는 것뿐이다. 특히 오늘의 다원적 사회에서 개종보다는 각자의 종교에 진실하도록 돕는 게 참된 선교가 아닐는지.

## 복음은 진리 투쟁이다

한국 기독교인에게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깊숙이 자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건 기독교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태도가 옳은 것도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오히려 투쟁적이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부단한 신학논쟁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복음이 투쟁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 단초를 우리는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 있다.

### 다른 복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끝낸 뒤에 뜰도 들이지 않고 돌직구를 날린다. 웬만하면 애들러 말함직도 한데, 바울은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는다. 6절을 보라. ‘당신들이 은혜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과격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 오늘날로 빗대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신천지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 상황이 위 대목에서 몇 번에 걸쳐 언급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에 압축되어 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다른 복음이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겠지만, 바울의 이런 표현은 아주 정확한 말이다.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은 헬라어 유양겔리온의 번역

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콘텐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복음인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

우선 십자가 사건을 보자.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다. 고전 1:23절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적인 것이었다. 십자가는 명실상부한 실패였으며, 생명을 잃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쳤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답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의 용서가 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대라는 요청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부활의 사정은 더 깊고 신비롭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부활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사건이었다. 부활의 주님은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 제사장, 또는 유대 민중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직 그를 따르거나 따르게 될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무엇이이었을까? 다시 죽어야 할 현재의 삶으로 재생한 것은 아니다. 부활은 종말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될 궁극적인 생명으로의 변화다.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사죄의 근거가 된다. 복음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바울이 일단의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초기 기독교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학적인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크게는 세 분파이다. 첫째는 히브리파 기독교인, 둘째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셋째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다. 히브리파 기독교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오래 전에 이스라엘을 떠난 유대인들이다. 이방인 기독교인은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을 가리킨다. 이 세 분파에서 일어난 신학적, 또는 실천적 문제의 관건은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라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토라와 할례를 받아들였으며, 이방인 기독교인은 거부했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은 불가근불가원의 입장을 취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주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주축이었고,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이방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다. 그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토라와 할례를 받아들이자는 절충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한다. 그의 입장이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피력되어 있다. 자신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반(半)유대주의 세력에 의해서 훼손되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도다.

### 복음의 왜곡

바울은 당시 주류였던 반(半)유대주의 세력과 당당히 맞선다. 갈

라디아 교우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갈 1:7)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다만 토라와 할례가 더붙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했을 뿐이다. 이들도 당연히 기독교인들이다. 표면적으로는 히브리-기독교인, 또는 유대-기독교인으로서 여전히 유대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너만 잘났냐? 왜 그렇게 팍팍하냐? 우리도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며, 토라와 할례를 주장하는 것도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일이니, 타협점을 찾아보자.’ 하고 말했을지도, 또는 ‘당신은 정식 사도도 아닌 주제에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편찬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누가 옳은가?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교회 형편을 상상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에 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바울이 반박하는 유대-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인 것만은 분명한 마당에 그들을 무조건 배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궁극적인 판단은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이 하실 터이니 그때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나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판단의 기준은 바울이 언급한 ‘다른 복음’, 즉 복음의 왜곡이다. 복음의 왜곡을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다. 단지 복음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라면 대립적이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질이 왜곡된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진다.

복음의 왜곡을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아마 바울의 적대자들도 자신들의 복음이 왜곡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휩쓸린 것이다. 바울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에 근거한다(1:12). 이런 주장은 일방적인 것처럼 보인다.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받은 계시에 따르면 당신들은 틀렸어.’ 하

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여기서 바울의 계시 경험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건 쉽지 않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장도 다른 종교인들의 눈에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와 같다.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최선이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자유에 근거해서 논증한다. 유대-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자유를 상실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5장 이하). 만약 그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했다면 바울은 아무 소리도 못하거나, 안했을지 모른다. 자유의 상실과 복음의 왜곡은 정비례한다. 복음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를 추종하는 사람의 영혼이 자유로운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사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영적인 자유를 상실했다.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자유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들도 많지 않다. 오히려 자유를 잃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자유의 상실은 곧 불안으로 나타난다. 신앙생활 자체에서도 그렇고, 세상살이에서도 그렇다. 신앙생활이 복음보다는 율법에 치우쳐 있다는 증거다. 예를 들어 십일조 헌금, 주일성수나 새벽기도 같은 것들이 모두 신앙적인 불안 요소가 된다. 한평생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이런 것과 직결시켜서 생각한다. 성수주일을 못했더니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식이다.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바벨론포로의 삶이다.

한국 교회의 영성이 죄책감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복음의 왜곡에 대한 방증이다. 이 죄책감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것을 심리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기독

교 신앙을 접근하는 일단의 흐름을 가리켜 청교도, 각성운동, 부흥운동이라고 한다. 이런 큰 흐름이 수세기에 걸쳐서 유럽과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다. 이런 신앙운동의 특징은 여럿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뽑는다면, 개인주의적 영성과 도덕주의, 그리고 회심이다. 이런 청교도적 영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18,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필요로 했던 영성이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죄책감 영성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상 도파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역설적으로 사회 윤리적 책임감의 결핍에 떨어졌다. 나이만 들었지 정신적으로 유아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런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교회성장이다. 목사와 일반 신자 모두 이런 교회성장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유의 손실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이런 신앙을 복음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신앙적 포퓰리즘

복음의 왜곡 앞에서 바울은 절망하고 분노한다. 그는 차마 입으로 꺼내기 힘든 말까지 쏟아낸다. “저주를 받을지어다.”(8,9절). 오죽 했으면 그가 반복해서 저주 운운했겠는가. 바울이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주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또는 문학적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이 아니다. 어쨌든지 바울은 복음이 왜곡되는 사태 앞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바울은 자신의 표현이 지나쳤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주 운운한 뒤에 곧 이어서 10절에서 두 가지 신앙적 태도를 대비한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사이의 대비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토라와 할례를 받아들이는 신앙이며,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에만 천착하는 신앙이다. 전자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들어와서 원래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유대-기독교인들의 신앙이며, 후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인의 신앙이다. 이를 조금 풀어서 본다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가능성을 두는 것이다. 이런 대답이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엄중한 어떤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은 눈에 확 드러난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다. 반면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들도 ‘신자들에게 좋게 하는’ 걸 추구한다. 일종의 신앙적 포퓰리즘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런 신앙행태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느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복주의라는 세속원리에 떨어지게 아니냐, 하는 말이다.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건 결국 복음의 왜곡이자 훼손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의 복음 이해가 고착되면 한국교회는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복음은 투쟁이며 진리 논쟁이다. 더 나가서 복음은 분노다. 거룩한 저항이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종교 권력에 저항했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혼합주의적인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 치열하게 투쟁하다가 그들에게 밀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죽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다. 이런 복음의 투쟁 역사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

## 교회 보편성 회복과 목사 사례비 문제

<월간 목회> 편집부로부터 청탁받은 원고 제목은 원래 “한국 교회 문제, 이렇게 극복하자”였다. 제목이 광범위하다.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 한 두 개이겠는가. 미자립 교회, 초대형 교회, 교파 난립, 목회자 과잉 공급, 담임 목사 세습, 목사 노후 불안정, 교인수 저하, 사회로부터의 불신, 기복주의, 개교회주의, 설교 표절, 목사의 부도덕성 등등, 끝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여러 매체와 논객들에 의해서 분석되었으며, 백가쟁명 식으로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전반적인 사태를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사도신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해명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로서 목사의 사례비 문제를 짚기로 했다.

모든 정통 교회는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정교회(orthodox church)는 <니케아 신조>로 고백한다. 어떤 신조를 따르든지 이 두 신앙고백은 기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개신교회도 간혹 <니케아 신조>로 신앙고백을 드러볼만하다. 신앙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은 두 가지 층위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교회 일치다.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린다면 모두 한 교회다. 현재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 2천년 역사의 모든 교회와 앞으로 예수 재림 이전까지 예배를 드릴 모든 교회와도 하나를 이룬다. 둘째는 <사도신경>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기독교 교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다. “... 나는 성령을 믿

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영생을 믿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일인칭 복수인 ‘우리’가 아니라 일인칭 단수인 ‘나는’이라는 게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 로마 교회에서 세례 받을 사람이 외워야 할 교리문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제1항목은 하나님, 제2항목은 예수 그리스도, 제3항목은 성령이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은 성령에 관한 항목이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몸의 부활과 영생은 성령 항목에 포함된다. 교회에 직접 해당되는 문구는 ‘거룩한 공교회’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우리말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세 단어로 되어 있다. 라틴어로 sanctam Ecclesiam catholicam이다. 영어 번역으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이다. 어떤 복음주의 계통 교회는 the holy Christian Church로 고쳐 표현하기도 하는데, catholic이라는 단어가 개신교회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은 원래 라틴어와 영어를 따라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다. ‘공교회’에서 공(catholicam)은 함께한다는 뜻의 공(共)이 아니라 공변되고 공적이라는 뜻의 공(公)이다. 즉 교회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2-4세기의 위대한 교부들이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의 안목이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하고 거시적이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도신경을 신앙의 뿌리로 여기는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실제로 교회의 이런 전통과 본질에 충실한가? 오히려 구태의연하고 비열한 이 시대정신에만 민감하게 부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 거룩한 공교회

우선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보자.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어떻게

구별되는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원이다. 불가시적 교회는 ‘이미’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교회다. 이미 승리한 교회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된 교회다. 이런 불가시적 교회는 무상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다. 교회의 이런 차원이 오늘의 현실 교회를 실제로 견인해가는 존재론적 근거다. 둘째는 보이는 교회의 차원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가시적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여전히 세상에서 투쟁하는 교회다. 부활을 약속으로 받았을 뿐이지 아직 부활의 현실로 들어가지는 못한 채 나그네로서의 삶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가시적 교회에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으며, 구별되어야만 하고, 앞으로도 구별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투쟁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이 투쟁은 단순히 세상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루터가 ‘에클레시아 썬퍼 레포만다’, 즉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외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만 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곧 공적 차원, 즉 보편성과 직결된다. 거룩한 교회는 보편적 교회이며, 보편적 교회(공교회)는 곧 거룩한 교회다. 교회의 거룩성은 보편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다. 교회의 보편성은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첫째는 교회가 우주론적이라는 사실이다. 교회는 단지 교회라는 범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의 주장은 교회 안에서만 진리로 통용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보편적 진리의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 교회의 주장을 세상이 늘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만 기독교의 주장이 진리로 판명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되는 게 아니듯이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진리라는 말은 기독교가 자폐적인 도그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부들은 세상과의 보편 진리 논쟁을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과감하게 변증해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는 당시 철학과 진지하게 대화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신론과 인간론 부분에서 컸다. 제논으로 대표되는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이 서두에서 제시한 로고스가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오해는 말자. 기독교가 주변 철학에 무조건 종속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과의 보편적 진리 논쟁을 신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독교가 보편적인 차원에서 진리라는 사실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기독교가 로마에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은 이런 공(公)적인 차원을 놓치고 개인의 종교적 욕망에 치중하는 사(私)적인 차원으로 떨어졌다. 교회의 본질에서 떨어졌다는 증거다.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는 개별 교회만이 아니라 상위 조직인 노회와 총회 역시 교회라는 사실이다. 세계 교회의 상황에서 볼 때 보편적 교회의 기초 단위는 교구다. 교구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관점이다. 교단에 따라서 명칭은 다르다. 노회나 지방회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 노회로 부르겠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공교회 개념과 충돌하는 개교회주의다. 교회 조직과 운영 등이 개별 교회에 위임되어 있다. 여기에도 장점이 있긴 하다. 가장 큰 장점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선택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한국교회는 이런 열정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민주주의도 이런 장점 중의 하나다. 가톨릭교회와 비교할 때 개신교회의 신자들은 발언권이 크다. 교회 제도도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개교회주의가 교회의 생존에 위태로

운 시기에는 나름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생존보다는 본질에 치중해야 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필자의 생각에 개교회주의는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골병들게 하는 신자유주의와 성격이 비슷하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폐단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개인들의 경쟁력 제고(提高)를 통해서 인간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이념이 신자유주의의 기초다. 개인들이 경쟁을 자유롭게 펼치도록 국가는 가능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도 자기 능력이 닿는 대로 서로 경쟁해야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막으면 안 된다. 그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갑을'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은 다 문을 닫는 단계에 와 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젊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글의 법칙처럼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한국교회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회끼리의 경쟁도 심각하다. 경쟁력이 없는 작은 교회는 도태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교회의 작동 메커니즘이 슈퍼마켓과 비슷하다. 이렇게 막장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목사들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목회가 가능할까? 핑 잡는 게 매라는 식의 목회가 횡횡하지 않겠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걸 바로 잡기에는 때가 늦었다. 개별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뚫고 나가기에는 교회 상황이 구조적으로 너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목사의 수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 상황에서 볼 때 신학대학교는 신학생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요공급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여분의 목사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 해외 선교사를 배양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가, 신학생 숫자를 줄이면 신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대책임가? 약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목사가 과잉 배출되면 역설적으로 괜찮은 목사는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벌어진 현상이지만 요즘 담임 목사 자리가 하나 나면 마치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청년들이 때로 몰려들 듯이 목사들의 지원이 상상을 초월한다. 40-50 명의 목사가 지원하는 일은 예사다. 이 중에 한 명이 선택되고 나머지는 좌절감을 맛본다. 이런 좌절이 몇 번 반복되면 그 목사의 소명의식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패배주의에 물들고, 목회자의 영적인 품위마저 실종된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수많은 젊은 목사들이 대리기사나 택배기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거나, 목회 자리에서 밀려나 어딘가에서 방황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목사 수급 문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한국교회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교단 지도자들도 나 몰라라 하고, 신학대학교 교수들도 외면한다. 별거벗은 임금의 행차 앞에서 모두 입을 다물었다는 우화처럼, 오늘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 앞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고수하고 있다. ‘거룩 공교회’를 믿는다고 매주일 신앙고백을 드릴 자격이 없는 게 아닐는지.

### 사례비의 평준화

교회의 공교회성을 파괴하는 좀더 직접적인 사안은 목사 사례비의 불균형이다.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례비의 불균형 문제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목사와 그들의 목회 행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다. 목사들이 대도시의 중대형 교회에 몰려드는 가장 큰

원인도 여기에 놓여 있다. 자녀 교육 역시 근본적으로는 사례비와 연동된다. 사례비의 불균형 문제는 교회 개혁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킨다. 교회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사례비의 불균형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발상을 전환해보자. 1만 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1백 명 모이는 담임 목사의 연봉이 열추 비슷해진다면, 조금 양보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아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가 무조건 전망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무시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교회 일치의 기운이 실제로 살아나지 않겠는가. 물론 사례비의 평준화가 불려올 폐단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어쨌든지 최저생활비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는 목사와 잘 나가는 기업체 CEO 못지않은 사례비를 받는 목사가 같은 노회, 같은 교단에 속해있다는 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함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신앙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건 위선이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경우에 사제들의 월급이 교구별로 동일하다. 수년 전에 들은 이야기로 인천교구의 사제들은 매달 150만원을 받는다. 지금은 약간이라도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다른 교구도 비슷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임 신부나 보좌 신부의 차이가 없고, 큰 성당과 작은 성당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부자교회와 가난한 교회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가족이 없고 사제관의 비용을 교회가 감당하는 가톨릭교회의 경우를 우리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 경험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톨릭교회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 다만 교구에 속한

모든 신부들이 동일한 사례비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공교회성을 유지한다는 점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례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야 말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것이다. 목사는 경제적으로 약간 어렵게 사는 좋거나, 목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넉넉한 게 좋다고, 또는 신자들의 중간 수준이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관점을 말하겠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연봉 수준이 괜찮아 보인다. 요즘 초임 교사의 연봉은 월평균으로 계산해서 세후 200만 원 정도다.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도 늘어날 것이다. 목사들의 사례비도 이런 수준에서 정하고, 교회가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특별 수당에 약간의 차이를 두면 된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교회의 물적 토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한국교회 정체의 총 헌금은 넘쳐나지만 그게 분배되지 않는 게 문제다. 전체 재정이 부족하면 하향평준화를 택하면 된다. 목사들이 함께 가난하게 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노회나 총회에서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아쉬운 게 없으니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게 최선이다.

첫 걸음은 모든 교회가 목사 사례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교인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부자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백주년 기념교회는 교회 재정 출납 상황을 홈페이지에 세부항목까지 자세하게 올린다. 대형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의 사례비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도 드문 일이다. 이런 교회가 백주년 기념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것이다. 목사 사례비만이라도 정확하게 공개되면 터무니없이 많은 사례비를 받는 목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통이 한국교회 전반

으로 확산됨으로써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가 조금씩이나마 전향적으로 새로워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 제자의 삶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은 상투성이 짝다. 이 제목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에 투철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도덕적으로 품위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경건생활에 충실하고,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데에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열정으로 신학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열정이 시든다. 대신 교회 운영, 즉 목회에 대한 열정이 과도하게 팽창된다. 좋게 보면 소명에 투철한 것으로, 나쁘게 보면 직업인이 되는 것이다. 제자로서의 삶과 목회자로서의 삶은 서로 긴장하고 충돌을 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신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인지도 대충은 안다. 목회를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회를 잘 한다는 것은 목회에 성공한다는 의미다. 부모가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낼 때는, 또는 본인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정할 때는 중형 이상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다. 사명감 운운 하면서 시골의 미자립 교회에서 고생하는 걸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괜찮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 목회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야 이해하지 못했겠냐만 그런 것이야말로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현실적이지도 않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모든 목사들이 중대형 교회

의 목사가 될 수는 없다. 대다수는 작은 교회를 맡게 될 것이다.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는 목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큰 교회를 맡거나 교회를 실제로 그렇게 키운 목사는 만족하거나 교만한 마음까지 들 것이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좌절감을 느끼는 목사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목회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다. 최선을 다 해서 성실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은 듣기만 좋을 뿐이지 기독교 신앙에서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 교회 성장은 대개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사는 목사의 목회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다. 가장 훌륭한 제자이면서 사도이자 선교사였던 바울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는 생전에 실패의 연속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다. 그는 이름 모를 어느 곳에서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가 어떻게 자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어느 정도 목회 선교적 업적을 낸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에 의해서 시작된 이방인 기독교의 역사는 그가 죽은 뒤에서 결실을 맺었다. 목회 성공이라는 말과 제자의 삶은 결코 일치될 수 없다.

제자의 삶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승으로 여기는 예수께서 누구지를 아는 것이다. 스승이 누구지를 모른 채 소문만 듣고 찾거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찾을 수는 없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찾았으면 그가 누구지를 일단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는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꺼림칙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익한 것이었다(고전 1:23).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낙인찍혔다. 삼십대 초반에 십자가형으로 삶



을 마감한 예수의 공생애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실패다. 오죽 했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라고 고통스럽게 외쳤겠나. 제자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자기도 스승과 같은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다. 실패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준비가 된 신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목사들 중에서는 더 없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목회자의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출세의 길이다. 둘째, 예수 당시와 오늘은 시대가 다르니까 모든 목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시대가 달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 강력한 요청이다. 셋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그걸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관적으로만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로 다루지 않고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은 곧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제자의 길'에 대한 질문이다.

###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뭔가 불편하게 불길하게 들린다. 희생, 고생, 실패 등등의 느낌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21세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러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기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

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 선택의 결과는 늘 똑같지 않다. 좋게 될 때도 있고, 잘못 될 때도 있다.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부정당하기도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 열광하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선지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렘 28장이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하나나를 보라. 당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파괴된 기원전 587년을 얼마 앞둔 때였다.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였다. 두 사람의 선지자가 신탁을 받아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나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자고 격려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의 설교에 열광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중 일이니 지금은 일단 바벨론 제국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설교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료와 귀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매국노의 설교로 간주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역사에서 이런 일은 흔하다. 당시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해했고, 설교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기도만 하면 그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렇기만 하다면 제자로서의 삶은 늘 명백하겠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나는 그것이 진리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수의 경우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요 4:23)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하이데거의 설명에 따르면 진리를 가리키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어원적으로 탈(脫)은폐를 가리킨다. 진리는 고정된 질서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은폐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따라서 진리를 향해 열린 사람은 질문을 숙명으로

경험한다. 교회와 목회와 교리와 세상과 생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자기의 소명과 운명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질문한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당시 율법과 성전주의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처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자유로운 영혼만이 질문한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진리의 영이 작동되지 않는다. 교회성장이라는 시장 원리가 모든 질문과 문제 제기를 억압하고 있다. 실제로는 더 이상 교회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

지금 신학생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짚을 건 짚어야겠다. 한국 기독교의 교세는 이미 정점을 찍은 지 오래 되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며,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기독교 중심으로 구성된 유럽과 달리 종교 다원 사회다. 한반도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외래 종교로 간주된다. 황석영의 소설 『손님』을 참조하라. 외래 종교가 20% 정도의 교인 수를 확보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20세기 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다. 더 나가서 세계 전체를 기독교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했다. 그런 소박한 생각이야 가상하지만 현실적이지도 않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기독교 교회 제도나 교리와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닌가. 교회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일치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 ‘미쇼 데이’(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미 1960년대 WCC에서 제시되었지만 한국교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한 종교 다원 현상을 부정하는 일에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 오늘의 세상은 이미 종교 이후 시대가 되었

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던 시대만이 아니라 포스트 릴리전(post religion)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미 본회퍼가 『옥중 서간』에서 표명한 것이다. 그는 성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非)종교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고독, 노쇠, 죽음 등등에 대한 불안에 호소하지 말고 삶의 중심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진단과 달리 21세기에도 여전히 종교 현상이 상당한 정도로 일어나기도 한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열광적 형태를 보이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 종교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서는 종교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니즘도 21세기에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1세기 사람들은 종교 이후를 산다. 형식적으로는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세상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멀리 않은 미래에 우리의 삶에서 인공지능이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뇌 과학도 기독교로서는 쉽지 않은 상대다. 만약 인간의 종교 현상이 뇌의 기계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된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신앙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인공지능과 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문제는 대다수 현대 기독교 지성인들은 이미 이런 현대 과학에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교회에 나올 매력을 시나브로 잃게 될 것이다. 젊은 지성인들이 이미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 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나이 든 이들이다. 앞으로 한 세대가 흐르면 교회는 비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춘 일부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그걸 좋은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복음이 일종의 여흥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수요와 공급은 이미 오래 전에 불균형을 이루었다. 한 마디로 목사가 너무 많다. 공급 과잉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 교단이 목사를 경쟁하듯이 배출한 결과다. 이런 상태에

서는 마치 의자놀이처럼 목회 현장에서 점점 많은 누군가는 도태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도 벌어진다. 좁은 웅덩이에 너무 많은 물고기가 모여 있으면 모두 질식사 하지 않겠는가. 대형교회 목사들은 사닥다리 걷어차기 놀이를 하고 있다. 자리를 잡지 못한 목사들은 소명감을 잃게 될 것이고, 목사의 품위도 실종되며 생존을 위한 이전투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눈에 뵈히 보이는데도 이를 바꿔야겠다는 노력이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릇 속의 미지근한 물에 들어있던 개구리가 물이 천천히 끓는데도 뛰쳐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죽는 경우와 비슷하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다. 본받아야 한다. 내가 보기에 교단은 자신들이 목사 안수를 준 이들에게 일자리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다면 목사 안수를 주지 말든지. 현재와 같은 상황만 본다면 교단은 목사 안수로 장사를 하는 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 수급의 임계점이 넘어섰으니 교회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허상은 내려놓고 공급을 혁신적으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목사 안수 정원도 줄이고 신학생 정원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 소수의 정예 요원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고품질의 목사를 배출하는 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 옳다. 반론도 가능하다.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대비하자거나 목사 배출이 결국 교단 성장의 견인차라거나,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런 주장들이 실제로 신앙적인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교회의 본질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어야겠다. 이것은 목사 수급과도 직접 연결된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로 생각했다. 보편성, 단일성, 거룩성, 사도성이 그것이다. 여기서 보편성은 요즘 자주 거론되는 교회의 공공성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

국교회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고, 그런 현상이 가속화된다. 공적 차원은 축소되고 사적 차원이 강화되었다. 교회가 프랜차이즈 자영업처럼 운용된다. 개교회주의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개별 교회의 빈익빈부익부, 목사 사례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리나라 교회보다 더 심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다. 같은 노회와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이면서 어떤 이는 일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어떤 이는 2,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난다. 그 이하의 연봉을 받는 교역자들도 수두룩하다. 이런 교역자들이 실제로 영적인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로마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은 모두가 동일 연봉을 받는다. 바울은 고전 12:12-31 절에서 몸-지체 교회론을 언급했다. 교회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 이런 교회론은 교역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목사들은 하나의 몸이다. 이게 분명하다면 연봉의 차이를 빨리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다. 교회의 본질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도 모르고, 세례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른다. 모르는 목사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런 대목에서 신학대학 교수들의 침묵은 직무 유기다. 신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신학대학교 교수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다. 신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자신들의 높은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연봉이 일반 교회 목회자 평균 연봉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연봉에 연연해하면서 신학적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이는 아무리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싶어도 교수로서의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없다고 말할 것이다. 총회나 노회에서 신학대학 교수들을 종교 재판하는 방식으로 감시하는 일이 허다하니 그런 사정이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신학자로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그런 말은 변명이다. 루터는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던 교황과의 투쟁을 불사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였다. 루터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명실상부하게 살았던 인물이다. 이런 사실을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발언하지 않으면 누가 발언하겠는가. 신학대학 교수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현학적인 말로 기념만 하지 말고 오늘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실존적인 차원에서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그래야만 그들의 제자들인 신학생들도 진리를 삶의 중심 문제로 붙잡지 않겠는가.

#### 면죄부와 교황 절대권

종교개혁 500주년이 곧 다가온다. 1517년 10월31일 루터는 자신이 신학대학교 교수요 사제로 활동하던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 위에 95개 신학 명제를 대자보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한다. 95개 신학 명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1) 면죄부는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 2) 교황 절대권은 오류다. 루터는 그걸 조목조목 짚었다. 각각의 명제가 짧은 문장으로 기술되었지만 어느 한 구석도 빈틈이 없다. 이 95개 신조가 당시 실용화된 금속활자 인쇄술 덕분에 삼시간에 독일 전역에 퍼졌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오늘 개신교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하겠다. 이것이 개신교회 개혁의 단초이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이 가능하려면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그런 신학적 통찰이 없다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제자로서의 영성은 무조건인 열정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토대를 필수로 한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가리키고 있다. 예수도 그런 신학적 통찰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과 진리의 차원에서 투쟁할 수 있었다. 그는 사 56:7절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

도하는 집이라.’(막 11:17)고 주장했다. 신학적인 통찰 아니고 무엇인가.

1) 면죄부는 구원받지 못하고 연옥에 떨어진 조상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특별 헌금이다. 면죄부 역시 좋은 쪽으로 보면 나름으로 설득력이 있다. 특히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효과적이다. 부모들의 영혼 구원을 불안해하는 이들은 면죄부 헌금을 드림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이 사제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사용된다는 것도 면죄부 헌금의 긍정적인 대목이다. 실제로는 면죄부 헌금의 상당 부분은 지역 영주나 주교들의 주머니에도 들어갔다. 면죄부는 오늘 개신교회의 헌금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십일조 제도는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십일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가 부실하거나 비신앙적이다. 십일조 헌금의 성서적 논리는 말라기에 근거한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십일조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했다. 전자는 율법적이고, 후자는 주술적이다. 이런 주장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 논리다. 율법과 주술에 묶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십일조 헌금만이 아니라 여러 헌금이 신앙적이지 못한 게 많다. 심지어는 일천번제 헌금이 버젓이 시행되는 실정이다. 루터 당시의 면죄부 헌금과 오늘의 개신교회 헌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오해는 말자. 선의의 모든 헌금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헌금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주술이 아니라 인격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말이다.

2) 루터가 비판한 교황 절대권은 오늘 개신교회의 성경 문자주의에 해당된다. 흔한 말투로 ‘가톨릭교회에는 사람 우상이 있고, 개



신교회에는 종이 우상이 있다.’고 한다. 이 문제가 현금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우상화는 광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세상과 충돌한다. 예컨대 진화론에 대한 입장이 그것이다. 창조과학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한국처럼 많은 곳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보니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과학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것이다. 타종교인들과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적개심 역시 이런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에 기인한다. 성경 문자주의는 교파난립의 원인이기도 하고, 성서의 역사 비평을 거부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학무용론을 공고히 한 원인이기도 하다.

다른 건 접어두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문자주의에 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요 1:1절은 이렇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이다. 로고스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코스모스인 이 세상이 조화롭게 작동되게 하는 힘을 가리켜 로고스(언어, 이성)라고 불렀다. 그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부분적으로만 옳다. 그것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차라리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고 번역하는 게 나았을지 모른다. 번역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실레이아는 나라, 통치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다. 하늘나라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다. 우리말 성경에서 전자는 하나님 나라로, 후자는 천국으로 번역되었다. 하나는 순수 우리말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다.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은 하늘 나라로 해야 하고, 한자로 하려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신국이라고 해야 한다. 마 16:28절에서는 ‘바실레이아’를 ‘권능’으로 번역했다. 바실레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도 성경 문자주의를 고집한다는 것은 신앙이라기

보다는 맹신이다. 좋게 보면 순진한 거고, 정확하게 보면 고집스러운 거다.

몇 군데 더 확인하자. 헬라어로 프뉴마는 영이고(형용사는 프뉴마티코스), 로기코스는 ‘합리적인’이라는 뜻이다. 바울은 롬 12: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리켜 ‘합리적인’(로기코스)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다. 영적이라는 말과 합리적인(또는 이성적인)이라는 말은 크게 다르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흔하다. 예를 들어 욥기 23:10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했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리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평신도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목사,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마저 여전히 문자주의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로마가톨릭의 신학적 오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쟁했던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로서 자격 미달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 정통주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제자로서도 역시 함량 미달이다. 제자의 삶은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요구한다. 이런 신학적 통찰은 목사 자격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수행되어야 한다. 평생 구도적으로 신학공부를 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게 낫다. 직업인으로서의 목사는 루터 당시의 교황들처럼 아주 쉽게 장사꾼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사꾼이라 하더라도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이 될 수도 있으니 목사의 길은 위태롭다.

### 솔라 피데- 구원의 토대

장사꾼이나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교회를 거룩한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장사꾼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게 아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목회를 장사하듯이 한다. 뽀빠 기업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는 오죽 많은가. 일반 신자들도 그렇게 배워서 교회를 소유하려고 한다.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크게 틀린 게 아니다. 일부러 사기를 치는 사람만 사기꾼이 아니라 모르고 속이는 사람도 사기꾼이다. 회중들을 죄책감에 떨어지게 하고, 허황된 천국을 망상하게 만들고, 선악 이원론에 빠지게 하고, 기복주의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즉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눈 밝은 목회자들은 어디나 있는 법이다. 그들은 영혼의 깊이에서 울리는 소리에 민감하다. 그 소리는 ‘구원’ 문제다. 제자의 삶은 결국 자신의 구원 문제에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루터가 지닌 종교개혁의 불씨도 바로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루터는 엄격하기로 유명한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 수도승이었다.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으려는 삶의 태도를 루터는 견지했다. 심지어 로마 스칼라 상타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의식도 수행했다. 그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일종의 돈오 체험이었다. 그제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으로 신학적인 패러다임 전이가 일어난 것이다. 그의 가슴을 때리는 성구는 롬 1:17절이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함 2:4)과 같으니라.’ 말 그대로 사람

은 ‘솔라 피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다. 솔라 피데 개념이 루터 신학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한다. 그래서 교회 체제를 고수하려는 로마가톨릭으로부터는 교회를 파괴하는 ‘뜯보잡’ 혁명가라는 비판을 받지만 폭력적으로라도 체제를 바꾸려는 혁명가들(예를 들어 뮌처)로부터는 수구반동분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양쪽 모두 루터 신학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비판이다. 루터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러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이 가장 놀라운 의, 곧 믿음의 의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며 의식적인 의도 아니며 법률적인 의도 아니며 공로 의도 아니며, 그것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이다. 위에 나열한 모든 의는 능동적인 의인 반면 이 의는 오직 수동적인 의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 대가로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해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받기만 하고 우리 속에 누가 와서 행하도록 맡기는 일 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 기독교적 의를 ‘수동적’ 의라 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상), 1535년 판, 루터신학대학교출판부, 20쪽)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루터가 보는 기독교인의 의는 수동적인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것도 없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를 얻는 것도 분명하다. 즉 칭의(稱義)가 옳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도, 헌금, 선교, 구제, 희생, 봉사 등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지는 못한다고 확신했다.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sola fide’라고 용감하게 선포한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

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개념도 여기에 포함된다.

솔라 피데는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에 대한 것이다. 의로움을 얻는다는 말은 곧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다. ‘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으나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것이다.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성례전적인 성직자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틸리히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루터가 당시 로마가톨릭교회를 뚫고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 사제가 중간에서 신자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본 것이다. 사람은 이제 사제를 거칠 필요 없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믿음과 삶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킬 위험성이 있는 신앙 주관주의, 신앙 실증주의로 보면 오해다. 의 문제를 인간의 차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인간은 선과 의 앞에서 무력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런 인식이 투철하면 그제야 무슨 행위를 할 것인지가 드러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와 같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솔라 피데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루터가 본 수동적 의를 오히려 적극적인 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믿음이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할 때만 솔라 피데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교회 현실에서 목사도 소모되고 있다. 목사 스스로 구원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교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업적을 내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

이다.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한 마디로 목회에 지쳐 있다. 자신의 영혼이 지쳐 있으니 신자들을 닦달할 수밖에 없다. 경쟁적인 믿음의 구도에 떨어진 신자들은 다시 목사들에게 그걸 요구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는 특별히 잘하지 못해도 목회 열정은 대단하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한다. 교회를 성장시키기만 하면 그 교회에서 목사는 왕이나 귀족 대우를 받는다. 목사를 힘이 좋아 일 잘하는 머슴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런 열정은 교회를 파괴한다. 솔라 피데의 영성이 점점 더 축소되기 때문이다. 루터 당시의 면죄부 판매도 이런 열정의 소산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 일치야 곧 하나님과의 일치다. 구원에 천착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예수와의 일치에 걸어야 한다. 문제는 목사들이 예수와의 일치를 상투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데에 있다.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존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경험도 없으면서 목사라는 권위에 숨어서 지낸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오늘의 목사에게 그대로 해당된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목사라는 외피에 숨지 말고 예수와의 존재론적 일치에 자신을 완전히 몰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목회 성과와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와의 일치에서 기쁨과 자유를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설교 조로 듣지 않았으면 한다.

예수와의 존재론적 일치를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갈 2:20)이라고 표현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 편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가 그와 몸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기독교 전통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야 예수 운명과의 일치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선포로 인해서 결

국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삼일 만에 부활했다. 그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원의 나라다. 우리는 예수의 운명과 하나 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다고 믿는다. 목사의 구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미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다.

여기서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고 앞에서 말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는 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이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다. 여기서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완성하려는 강요와 욕망이며, 죽음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다. 목회의 차원에서 이를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다. 죄는 자신의 노력으로 목회의 성과를 내려는 강요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죽음은 목회에 성과를 내지 못해서 무능력자로 낙인찍히는 두려움이다. 목사의 구원은 이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 해방 경험은 예수와 그의 선포인 하나님 나라 외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는 생각이 없을 때 주어진다. 목회 성공이 실제로 하찮아 보이는 것이다.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료의 ‘모래 한 알이 우주다.’라는 경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게 솔라 피데가 가리키는 세계이기도 하다. 이런 믿음에서 제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루터는 자기를 재판하는 보름스 제국의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

만약 제가 명석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 확신할 수 없다면 (저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믿지 않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들도 역시 실수하거나 자

가당착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저는 저 자신이 인용한 성경 말씀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짓을 한다는 것은 그릇된 일일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도와 주소서. 아멘.

오늘 목사들은 솔라 피데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적으로 그런 죄와 죽음의 불길로 뛰어든다. 교회가 구조적으로 그걸 목사에게 강요한다. 목사는 거기서 소비된다. 어느 한 순간도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목사가 목회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한다. 오늘과 같은 교회 구조에서 구원받은 목사들이 있을까?

예수님은 마 16: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회에 성공하고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목회에 성공한 목사들일수록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난폭한, 그리고 ‘워커홀릭’(workaholic) 수준의 목회 메커니즘에 휘둘리면서 자기의 구원을 성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평생의 목회가 끝난 뒤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생 시절부터 구도적으로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통치와 그 비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은총은 물론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걸 은총으로 깨닫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거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막 4:25)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다.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른 신학공부다. 신학공부에 내용을 채우기 위한 인문학 공부도 필



수다. 이런 길을 흔들림 없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걷는 사람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시나브로, 때로는 졸지에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서 기쁨과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음과 예수의 운명에서 본 하나님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무신론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신론이 정당하다면 이 질문은 아예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신론 문제가 하루 이틀 된 주제도 아니고, 그 주장도 가지각색이라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신학계에서도 ‘신 죽음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유럽 사상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니체다. 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와 『즐거운 학문』(Die fröhliche Wissenschaft)에서 신 죽음을 선언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소리쳤다. 나는 당신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해했다. 당신들과 내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살해한 자들이다.”(즐거운 학문). 니체는 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 개념이 허무주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외의 여러 사상가와 학자들의 무신론 역시 기독교 현상을 전제하는 것뿐이다. 더 근본적으로 신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긴 하나, 그들의 주장도 결국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 개념이라는 한계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신 질문에 대한 논란은 현대 철학이나 뇌 과학으로부터 기인된 게 아니다. 이미 성경에도 그런 논란은 많았다.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음의 운명을, 신약에서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음- 무죄한 이의 재난

음 이야기는 기존의 유대교적 전통 신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내리신다고 가르쳤다.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것이다. 그들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지키는 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만 작동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도 재난이 일어난다. 그것의 민족사적 사건이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 역사다. 문학적인 결과물은 욥기다. 욥기는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제기다.

욥은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름의 세 친구는 욥의 재난이 죄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후배 엘리후는 재난의 이유를 단련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의하는 입장이다. 욥은 그걸 부정했다. 자신은 그런 재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적인 지혜 개념에 저항하는 것이다. 인간과 역사에서 벌어지는 대참사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그가 아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게 아니다.’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부정 신학인 셈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이것이 최선이다.

욥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질문’이다. 특히 신정론(theodicy) 문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으로서 전능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자비와 긍휼이 무한한 분이라면 이 세상에는 왜 무죄한 이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이고, 어디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이들에게 복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학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는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인간 역사에 재난과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욥이 얻은 것은 아니다. 자연의 깊이를 다 모르듯이 재난의 깊이도 우리는 모른다. 창조의 신비를 대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독교의 신앙 요약이라 할 사도신경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창조의 신비와 완성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 극심한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는 창조 신앙이 한가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창조 신앙을 확보했다고 해서 발밑을 파고드는 재앙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용적인 게 아니다. 거기서 당장 쓸모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서는 곤란하다. 영혼을 성숙하고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공부가 답이다. 이를 통해서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어느 사이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신앙적인 내공이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다. 어느 누구도 욥이 당한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은 당하지 않는다. 사소한 문제로도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심한 재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욥 이야기를 전해준 고대 유대인들은 창조 신앙으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운명을 버텨낼 수 있었다.

#### 예수- 무죄한 이의 십자가

구약에서 무죄한 이의 재난에 해당되는 인물이 욥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다. 십자가 처형은 대재앙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구원의 길이라는 말로 미화하는 사람은 욥을 향해서 죄를 회개

하라고 주장하거나 단련의 기간이니 참고 견디라고 주장한 이들과 비슷하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를 토로했다. 예수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었다. 그 현장에서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누가복음 기자가 전한다. 관리들은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라고 예수를 비웃었다(눅 23:35). 군인들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난했다. 예수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고 외치면서 숨이 끊겼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운명에서 아무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다.

바울은 고전 1:23절에서 십자가 처형을 실질적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표적에서 찾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지혜에서 찾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다. 표적 신앙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지혜 신앙 역시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표적과 지혜는 종교적인 사람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삶의 절대적인 목표다. 그들에게 표적과 지혜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나 속셈으로는 표적과 지혜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이중성에서도 갈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종교적인 장식품이 아니겠는가.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명은 신성모독이다. 당시 유대교 고위층이 볼 때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자다. 하나님을 종교적 권위에 기대서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 즉 일상에 근거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셨다. 모

세의 법을 재해석했다.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전과 장사를 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들이 파격적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현존을 몸과 삶으로 생생하게 느꼈다. 그런 느낌에 충실하게 살았다. 그 결과는 십자가 처형이었다. 오늘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경험에 공명하지 못하고 율법 전통에 기울어졌다. 한 마디로, 하나님 경험이 없다. 그러니 사이비 하나님 경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신앙이 고착화되면 역사가 실종되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하나님 나라와 일상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예수의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일상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상투적인 것이다. 돈을 벌고, 싸우고, 사랑하고, 집을 장만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며, 나름으로 삶을 즐기면서 산다. 일상은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일상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는 종교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의 비유는 모두 일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동시에 제자들을 일상에서 벗어나게 했다.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일상에서의 일탈을 전제한다.

하나님 나라가 일상에 임했다는 말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나는 일상의 심연을 볼드는 것이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에는 표면이 있고, 심연이 있다. 표면을 보는 사람은 신문기자라고 한다면, 심연을 보는 사람은 시인이다. 신학자와 영성가는 가장 깊은 심연을 본다. 그 가장 깊은 심연이 하나님이다. 우선 문학적으로 설명하자. '나는 걷는다.'는 것은 일상이다. 걷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시원을 찾아보면 아득하다. 호모 에렉투스의 경이가 나에게서 다시 경험될 수 있다.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다. 이 책상 위에 놓인 사물이나 소품이 많다. 책, 연필, 초, 필통, 작은 화분, 책 받침대, 성경과 찬송, 주보, 장갑, 카메라 등등이다. 그 모든 것들의 시원은 아득하다. 내가 그것들을 손으로 잡는 것도 우주론적인 사건이다. 우주정거장에서 사는 우주인들을 보라. 그들은 식사와 배설, 칫솔질과 세면 등, 가장 간단한 행위가 생존과 관련된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빙빙 순간과 연결되고, 우주 전체와 연결된다. 그게 일상의 심연이다. 이런 일상의 심연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일상은 결코 상투적인 것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매 순간이 생명 충만이다. 우리에게 ‘하루’는 일 년 중에서 365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하루살이 같은 곤충에게는 일생이다.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하겠지만 그의 심연을 볼드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숨쉬고, 보고, 향기에 취하고, 나무를 붙들고, 옛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고, 잠에 빠져든다. 우주정거장에서 오래 머물다 지구로 귀환한 우주인들은 산들바람을 느끼고 풀냄새 맡는 것에서 황홀감을 경험한다. 그 일상의 심연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거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포에 밀착해서 살았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존하는 자리인 일상의 심연을 아는 것이 또한 기독교 신앙의 요체다.

일상 자체가 불행한 사람에게 일상의 심연을 통한 기쁨이 말장난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주장은 오해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실업, 실연, 작은 연봉, 수술, 사별 등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특별한 경우는 읍이나 예수의 운명이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연대하여 투쟁하는 게 최선이다. 읍 이야기는 그런 불행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런 특별한 경우를 당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내 운명을 버텨내도록 일단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는 지금 아주 특별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상대적으로 괜찮은 조건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현존을 놓치는 이들에게 말하는 중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일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한 바 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개념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라고 압박했으며,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라고 호소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두려워했으나 예수는 기뻐했다. 요한은 금욕적으로 살았으나 예수는 먹고 마시면서 즐겼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기쁨이고 자유와 해방의 능력이다.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혼인 잔치와 같다. 우리는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소를 사야하기에, 아들 장가를 보내기에, 땅을 사야하기에 바빠서 혼인 잔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기 연봉 2천5백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수히 많다. 만약 5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1억 원을 받는 사람 앞에서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다. 혹은 거꾸로 그걸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는 데는 그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 사람은 벤츠를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평소 좁은 아파트에 살 것이다. 큰돈을 들여서 외국 여행을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공원을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작은 연봉으로도 존재의 기쁨을 누리



고 자유와 해방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목사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목회 현장에서 경험해야 한다.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목사가 있고, 대형 교회에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없는 곳이 없으며, 없는 때가 없다. 다만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회심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게 고집이고 자기 연민이다.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특히 자본주의가 막장에까지 이른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 운운이 타당한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무시한단 말인가?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게 살다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런 운명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이미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도도한 흐름을 언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밋밋한 사람은 흐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 나라 경험이 또렷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의 현실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오아시스와 같아서 경우에 따라서 헛것을 보고 착각하는 수도 있다.

나름 진정성이 있는 기독교인들도 현실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님'(not yet)의 변증법적 긴장 가운데서 경험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비유이고 암시이고 선취이고 손가락질이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생명을 획득하지 못한다. 종말에 완전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결혼만 봐도 그렇다. 이 제도가 남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제도로 최선이긴 하나 이것으로 남녀 관계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의 미래는 열려 있다. 무조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종말이다. 그 종말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선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일상의 심연에 대한 경험이다.

### 예수 부활과 궁극적 생명

일상의 심연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삶에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따르거나 예술과 시의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의 신비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은 의미가 있긴 하나 우리의 논의에서는 불필요하다. 기독교 밖에서 진리와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 그들을 억지로 교회로 끌어들이길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길을 갈 뿐이다.

절대 생명이 바로 부활이다. 절대 생명이라는 표현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보다는 부활이 더 실질적인 용어로 들린다. 부활은 어떤 구체적인 사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했다. 바울은 “...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전 15:3)고 말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초보 교리다. 30대 초반의 한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에서 벗어난다. 세상의 강요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죄 용서다. 이를 바울은 고전 2: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생명 완성을 경험한 자의 외침이다. 그 경험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기에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바울의 예수 경험은 고후 4:6절에 나온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부활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 영광이 곧 부활이다. 부활을 환생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부활은 환생도 아니고 죽음 이후의 생명 연장도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종말의 완성자이시니 하나님과의 일치가 절대적인 생명을 얻는 길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부활의 예수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진술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우리도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0-22).

강의 요약은 이렇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일상(자연과 역사)의 심연이 그 답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상의 심연에 현존하시는가? 생명과 존재의 신비가 그 방식이다. 기독교인은 생명과 존재의 신비가 담지 된 일상의 신비를 어디서 경험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운명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다.

## 명성교회 세습 문제

마침내 서울 명일동 소재 장로회 통합측 ‘명성교회’가 지난 2017년 11월12일 저녁 예배를 김삼환 목사 원로 추대식과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담임 위임식으로 드림으로써 부자 세습을 완료했다고 한다. 보통은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에 위임을 받는데, 김하나 목사는 취임을 건너뛰고 위임을 받았다. 명성교회로부터의 신뢰가 두텁다는 뜻이다. 명성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자신들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것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통합 측의 중심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반대하고, 노회원들이 법정 투쟁에 들어갔고, 뜻 있는 통합 측 목사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염원을 통과시켰으니 한편으로는 짚짚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감격스러울 것이다. 힘자랑이 유별나다.

한국교회에는 왜 세습이 자주 일어나는가? 세습이 왜 문제인가?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곳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가타부타 시비를 걸어도 되는가? 총회 법을 무시한 동남노회와 명성교회에 대해서 통합 총회가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성교회에 속한 10만 명가량의 신자 중에서 이 문제를 비판하는 이들은 실제로 없는가? 있다 하더라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걸까? 통합 소속 목사들의 저항은 왜 미미한가? 기독교 언론들 역시 왜 비판 기사에 인색한가? JTBC는 이 문제를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보도도 하고 앵커 브리핑으로 다루기도 했다. 명성교회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명성교회 구성원들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끝냈으니 안도할지 모르겠으니 이것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명성교회와 한국교회를 어떤 거대한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도 있다. 500년 전 로마가톨릭이 대수롭지 않은 생각으로 면죄부(면벌부)를 시행했다가 종교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점에서는 명성교회의 이번 일은 차라리 잘된 거다.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나가는 게 그래도 새로워질 가능성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말이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히 전한다.

### 부자 세습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걸 부자 세습이라고 한다. 북한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에 이어지는 세습,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세습이 연상되기에 명성교회 당사자들은 부자 세습이라는 말을 피하고 싶겠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똑같다. 부자 세습 자체가 악은 아니다. 미자립 교회의 세습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감리교회 총회는 이번에 세습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작은 교회는 예외로 했다. 이런 작은 교회에는 갈 사람이 아예 없어서 아들 목사가 이어받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명성교회처럼 초대형교회의 세습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교회가 저항해야 할 부의 대물림이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이미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특별대우를 받아 ‘새노래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새노래 명성교회’는 명성교회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상당한 숫자의 신자를 보내서 시작된 교회다. 이것만으로도 김하나 목사는 요즘 말로 ‘금수저’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정도로 대우받는 식의 교회 개혁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쨌든지 김하나 목사는 그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년전에 공개적으로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고민 끝에 명성교회의 청빙을 수락했을 것이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둘째

치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결국 악수를 둔 것이다. 그들에게는 평생 부자세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이다.

모든 교단에는 헌법이 있다. 총회와 노회와 개별 교회는 모두 최상위법인 헌법을 따라야 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장로회 통합 헌법에는 세습 금지법이 있다. 자식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사위나 가까운 친척에 해당되는 이들도 다 포함된다. 중대형 교회의 세습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명성교회는 이번에 총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목사의 인사 문제는 노회에서 다루어진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려면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회법에 따르면 지난해의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노회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이번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자연 승계될 예정의 목사는 부자 세습을 반대한 사람이다. 노회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다른 이를 노회장으로 앉히고 김하나 목사의 인사 문제를 처리했다. 노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회원들은 당연히 명성교회에 직간접으로 속한 이들이다.

명성교회가 총회와 노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다.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노회에서도 탈퇴하고, 교단에서도 탈퇴할 수 있어.’라는 겁박이 통하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교회의 목사가 헌법과 노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당장 심판위에 소환당했을 것이다. 아무도 명성교회를 건들이지 못한다. 광고를 수주해야 할 기독교 매스컴도 감히 건들지 못하고, 학교 운명 경비를 지원받아야 할 신학대학교도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못 한다. 일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5, 60명이 명성교회 사태를 염려한다는 성명서를 낸 거 같은데,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앞으로 그들은 입을 더 닫을 것이다.

## 개교회주의

명성교회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했다. 김삼환 목사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모든 신자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있다. 김삼환 목사가 없는 명성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 이제 정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직을 떠나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의 카리스마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게 최선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다. 더구나 김하나 목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뛰어난 목회자 아닌가. 실제로 한국의 여러 대형교회가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자신들은 그런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명성교회 신자들의 진정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런 진정성에 근거해서 그들은 명성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을 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교회 일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니 참견하지 말라. 우리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당신들이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 그들의 순전한 마음과 그 열정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그들의 교회관이다. 교회관은 곧 신앙관이기도 하다. 교주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이비 이단 추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가톨릭교회가 보인 행태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마음이 순전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을 순전하게 따르면 그 결과는 더 치명적이다.

남의 교회 일에 왜 참견하느냐는 그들의 논리는 기독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편성은 공공성이라고도 한다. 사도신경의 한 구절은 ‘거룩한 공교회를 ... 믿습니다.’다. 니케아신조에 따르면 교회는 단일성, 거룩성, 사도성,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편성은 개별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노회와 총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즉 전체 교회가 바로 교회다. 명성교회만 독립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다른 통합 측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이다. 교단이 달라도 크게 보면 다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교회 일이니 참

견하지 말라는 말은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공공성을 허무는 것이다. 그런 말을 쉽게 발설하는 걸 보면 그동안 명성교회가 신자들에게 어떤 교회관을 심어주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순서를 빼야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아니라 귀신들린 것처럼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우리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한 탓이다. 개교회주의는 교회를 사적인 차원으로 떨어트렸다. 교회의 사유화다. 이것이 로마가톨릭과 다른 개신교회의 특성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개신교회의 역사도 있다. 그런 요인들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극단으로 치달는 개교회주의는 용납되기 힘들다.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입주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교회끼리의 무한 경쟁도 우리나라밖에는 없다. 목사 사례비의 양극화도 한국교회 밖에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교회성장 일원론에 빠진 교회도 한국이 대표적이다.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개교회주의에 기인한다. 명성교회의 부자세습도 바로 이런 데에 기인한 것이다.

### 명성교회의 내일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김하나 목사는 계속 명성교회 위임목사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교회 밖에서 추진되는 반대에 부딪혀 불명에 퇴진할까? 이런 대립으로 인해서 통합 교단이 부분적으로라도 분리될까? 교회법을 어긴 교회를 힘이 있다고 해서 묵과하는 교단에 더는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목사와 교회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늦게라도 명성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화의 해법을 찾을까? 이를 계기로 뜻 있는 신자들이 명성교회 출석을 그만둠으로써 명성교회의 위상이 급락하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2017년 11월16일) 이 시



간까지 이 문제에 대한 통합 측 목사들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다. 속으로는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겠지만 내놓고 반대하기는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목사들은 자기 교회 문제만으로도 힘이 소진될 대로 소진되어서 이런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 그러나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면 그들이 힘을 합할지도 모르겠다. 지난겨울에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말이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느낌만으로 한마디 한다면 명성교회에서 차지하는 김삼환 목사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이미 저질러진 사태를 아무도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명성교회 관계자들은 이런 사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단에서 힘이 있다는 인물들 명성교회 설교자로 초청하면 거절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며, 강단에 선 사람이 명성교회를 비판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형교회 강사로 초청받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의 한 달 치 월급보다 더 많은 강사료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비만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돈만 많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 하나님이다. 선의로 봐서 명성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름으로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 것이다. 신학교와 해외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많이 쏟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인심을 얻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떡고물 때문에라도 그런 일에 박수치는 동료들이 제법 나올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이번 사태를 천천히 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 잘 되는 일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후로 아무리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들은 한국교회와 동료 목사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기에 그걸 회복하기는 어렵다. 김삼환 아버지 목사와 김하나 아들 목사를 한국교회 역사학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

큰 일을 행할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손해나는 일은 없다. 정말 큰 손해는 그들 부자 목사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에 자신의 영혼을 걸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에 딱 맞추어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자신의 영혼을 걸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마 23:34)